ISSN 1226－2838

時調學論叢

第 46 輯

2017. 1. 31.

韓國時調學會

제 61차 한국시조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글로벌시대의 시조문학

글로벌시대의 시조문학

글로벌시대의 시조문학

차례

□ 기획논문

설득형 시조의 유형과 논증 구조에 관한 試論 ····· 김세림 · 7

정철의 「훈민가」와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 비교 연구

····· 테레시아 마가렛 · 35

□ 일반논문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의 시조교육 효과 연구 -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한

실험수업을 중심으로- ····· 박광옥 · 이명애 · 이지양 · 61

이우걸 시조에 대한 고찰 ····· 유순덕 · 91

『증보가곡원류(增補歌曲源流)』 농(弄) · 낙(樂) 사설과 악곡(樂曲)의

연관성 고찰 ····· 정일영 · 121

한국시조학회 이사회 자료 / 179

한국시조학회 제60차 전국학술발표대회 / 180

한국시조학회 편집회의 / 181

韓國時調學會 會則 / 183

한국시조학회 연구윤리 규정 / 187

한국시조학회 출판 · 편집 규정 / 190

한국시조학회 투고논문 심사조서 / 200

한국시조학회 회원 주소록 / 201

한국시조학회 단체회원 주소록 / 213

설득형 시조의 유형과 논증 구조에 관한 試論

김 세 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설득형 시조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 유형과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의 시조 문학 연구사에서는 시조를 문학 텍스트로서만 간주하고 텍스트 안에서의 깊이 있는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를 벗어나 시조를 화용론적 담론 행위로 파악하고 접근한다면 화자와 청자, 그리고 맥락이 고려된 새로운 해석과 유형이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시조를 설득적 말하기로 보고 그 유형과 유형별 구조를 분석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먼저 설득형 시조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전적 의미와 대표적인 설득 모델을 참고하였다. Petty와 Cacioppo(1986)의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에 따르면 설득 메시지는 설득에 이르는 접근 방법에 따라 중심 통로와 주변 통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논증 구조로 설명되지 않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청자에게는 충분히 설득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 텍스트의 설득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논리학에서 논증의 유형과 구조를 차용하여 조작적으로 개념을 정의해본 바, 화자에게 설득의 의도가 있고 텍스트에서 논증적 요소가 나타나는 것들을 설득형 시조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설득형 시조 안에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수의 작품을 대상으로 구조를 점검하였는데, 이때 설득의 목적이 분명해야 유형 구분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되어 교훈적 시조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귀납적 유형에서는 불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둔 일반화 방법과, 비교대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어떤 성질을 공유한다고 추론하는 유추의 방법을 사용한 시조들이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연역적으로는 이미 알려진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는 원인적 일반화를 사용한 설득형 시조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이론적 체계화를 통하여 설득형 시조의 개념과 유형을 보충하고 교육적

* 한양대학교

효용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지속될 것이다. 이 연구는 설득형 시조라는 새로운 개념과 유형을 설정하는 시도로서 그 단초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시조, 설득형 시조, 시조의 설득, 시조의 논증, 설득구조, 문학교육

Ⅰ. 문제 제기

본 논문[1]은 그간 고전시가 분야의 세심하고 분석적인 연구들의 성과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문학 텍스트로서 시조에 대한 연구는 시조가 향유된 이래로 꾸준히 축적되어 왔으므로 그 깊이와 견고함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조를 문학 텍스트로만 간주하던 논의에서 시선을 돌려 담론 행위로 접근한다면, 이에 따른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하리라 보았다.[2] 종래의 연구들이 야콥슨의 의사소통 모델에 따른 텍스트의 시적 기능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전후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화용론적 담론 행위로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것이다.[3] 연구자는 이 지점에서 시조를 설득적 말

1) 이 논문은 한국시조학회 제61차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과 질의를 통해 귀한 조언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 박상영(2004)은 사설시조를 담론 차원에서 접근하여 의미 작용 중심의 텍스트군과 전달작용 중심의 텍스트군로 나누어 유형을 살핀 연구를 진행한 바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의미 작용 중심의 텍스트군은 '의미융합의 구심적 담론'과 '의미융해의 원심적 담론'으로 나누어졌으며, 전달작용 중심의 텍스트군은 '단순소통의 동일화 담론'과 '복합소통의 거리화 담론'으로 나뉜다. 이때 전달작용 중심의 텍스트군이 훨씬 큰 비중으로 사설시조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사설시조가 미적 기능보다는 전언을 전달하려는 실용적 기능을 중시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힌바 있다. 박상영, 「사설시조의 담론구조와 시학」,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03-105쪽.

하기로 보고 설득형 시조의 유형과 각 유형별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시조의 또 다른 시가시학적 측면의 발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언어로 수행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인간만의 특징이며 동시에 특권이다. 타인과 생각을 공유하고 사회를 이루며 미래를 창조하는 데에는 언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만 명이 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 사회 안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납득시키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언어로 소통하는 이상 설득은 필수적 언어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근거를 사용하여 뜻을 펴는 방법들을 정리한『수사학』을 남겼다. 다시 말하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인데, 상대를 설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설득'은 꾸준히 언중들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설득'은 언론정보학, 언어학, 심리학 등 학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언론정보학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키워드로 신문, 광고 등에서 사용되는 설득 전략과 그 효과, 수용자의 반응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인간 소통의 최대 관심사를 '설득'으로 보고,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의사소통 목적이 '설득'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4] 언어학 연구자들은 수사학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의미를 해석하고, 화용론적 접근을 통해 설득 화행의 양상을 확인하기도 한다. 언어단위로서 '텍스트'에 대한 수사학적

---

3) Roman Jakobson에 따르면 모든 의사소통은 여섯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즉 그것은 발신자, 수신자, 그들 사이의 전언(傳言, message), 전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공유된 약호(code), '접촉'(contact) 또는 의사소통의 물리적 매체, 그리고 전언이 관계되어 있는 '전후맥락'(context)이다. Terry Eagleton,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83, 김명환 외 역,『문학이론입문』, 창비, 1989, 124쪽.

4) 김병철·안봉묵,『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68-69쪽.

관심은 궁극적으로 효과중심의 책략적 언어사용을 다루는 화용언어학적 관심사와도 일맥상통할 것이다.[5]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지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화자와 청자의 내면을 분석하고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분석해내고 있다.

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는 반드시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게 되며 이는 마찬가지로 언어로 이루어진 시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6] 시조 특유의 짧은 형식은 화자가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텍스트를 선별적으로 구성, 전략적으로 표현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즉 설득과 논증의 일반 또는 보편 원리와, 시조만의 특수 원리가 함께 작동하는 텍스트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 원리는 구조, 특성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학 텍스트 장르 중에서도 특별히 고전, 그 중에서도 시조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조의 교술적 특성 역시 설득의 일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7] 시조의 교술성은 일부 작가들에 한해서만 언급되어 왔으나 사사로운 감정을 배재하고 공공적인 이념이 담긴 내용을 담아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 시조는 작자와 작중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 문제를 거론하거나 학문을 표현하는 등의 보편적인 양상의 시조들도 결국은 현실 문제를 타개하거나 진리를 설파하고 싶은 작가의 설득 목적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박성철, 「설득전략으로서의 텍스트 문체 분석 : 표현영역(elocutio)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4, 515쪽.

6) 김대행(1986)은 시조의 작자와 청자의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성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본 연구의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몇몇 작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조는 대체로 작자와 화자가 일치하며 작중의 청자와 실재의 청자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283-297쪽.

7) 시조의 담화 유형은 화자 우위의 담화, 화자-청자 등위의 담화, 청자 우위의 담화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보편타당한 진리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는 작품들은 권위적이고 교훈적인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종진, 「화자-청자 관계를 통한 시조의 담화 유형과 그 특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2008, 63쪽.

전통적으로 동양은 서양과는 다른 고맥락 언어문화를 지향한다. 논리보다 감정과 경험을 중시하고 직접 주제를 전달하는 듯한 문장에서도 숨겨진 뜻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서양에서만큼 동양의 수사학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 역시 논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보다 지식으로서 덕을 쌓는 행위를 더욱 중시했기 때문이다.[8]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나 파토스보다 에토스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수사학의 발전에 따라 점차 현대 연구자들이 로고스에 집중하게 되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서양에서 말하는 설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우리만의 설득적 수사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9]

또한 시조의 태생적 자질이 '설득'과의 연계 필요성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설득', '수사', '사고', '논리' 등의 연구는 국어교육계에서 보통 작문 혹은 화법 과목에 한정지어 연구되었으며 이는 어느 한 방향의 정해진 전달 매체만을 다룬다는 공통적 단점이 있다. 시조는 그 향유 양상에서부터 구술언어와 문자언어 모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작문과 화법 교육 내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만한 텍스트로 평가받을 수 있다.

사실 우리 고전에는 설득적인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장르의 문학 텍스트가 다수 존재한다. 가사(歌辭)는 현실적이고 설득적인 유교 이념을 표현하는 장르이며, 설(說)은 개인이 깨달은 바를 서술하여 독자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장르이다.[10] 화자의 개인적인 흥취를 전달하는 내용을 가진 작품들 역시 사적 즐거움

---

8) 심경호, 「한국고전과 한국학에서의 수사학에 대하여」, 『수사학』 3, 한국수사학회, 2005, 17-148쪽.

9) 주재우(2011)는 '설' 양식이 상대방의 대결과 승부를 목적으로 하는 대립적 설득이 아닌 윤리적 진전을 꾀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 포용적 성격의 설득이라 정의했다. 이는 동아시아 전통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따르는 것이며, 동시에 서구 수사학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양산되는 글쓰기에서 벗어나 내면으로부터의 성찰과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글쓰기를 실천했던 자료로서 가치 있다고 보았다. 주재우, 「설(說) 양식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 다른 장르의 특징이나 유형을 적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강명혜는

을 타인에게 알리겠다는 근원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넓은 범주의 설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설득'의 정의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수용될 수 있는 용어로 서술될 것이다. 당대 문인들은 시조를 향유하며 학문을 표현하고 세계와 소통했다. 교술성이 강한 시조들은 청자들에게 보다 설득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전략을 내세워 전개되었고, 산문에 비해 압축적인 양식의 특질 탓에 그 전략이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기존의 설득 담론의 논리학적 접근들을 검토하여 문학, 그 중에서도 시조에 적용 가능한 개념들을 살피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정의된 설득형 시조의 개념에 근거하여 시조 텍스트의 논리적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의 구조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특히 설득형 시조의 대다수일 것으로 판단되는 유추형 시조들의 유형 검토가 줄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Ⅳ장에서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조 텍스트가 지닌 설득적 갈래로서의 타당성을 밝히고, 확인된 논리적 유형들을 시조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다.

Ⅱ. 설득형 시조의 개념 설정

1. 설득의 개념과 구조

사전적 의미로서의 '설득'은 상대방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행위를 말한다. 말로서 뜻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화자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학문이 오랫동안 서구 문물의 바탕을 이루어

Bakhtin이 주장한 산문의 언술 유형을 바탕으로 사설시조의 언술 방식을 객관화된 언술, 대상을 직접 겨냥하는 언술, 낯선 말을 지향하는 언술로 세분화 하였다. 강명혜, 「사설시조의 언술 연구」, 『時調學論叢』 第10輯, 韓國時調學會, 1994, 206-2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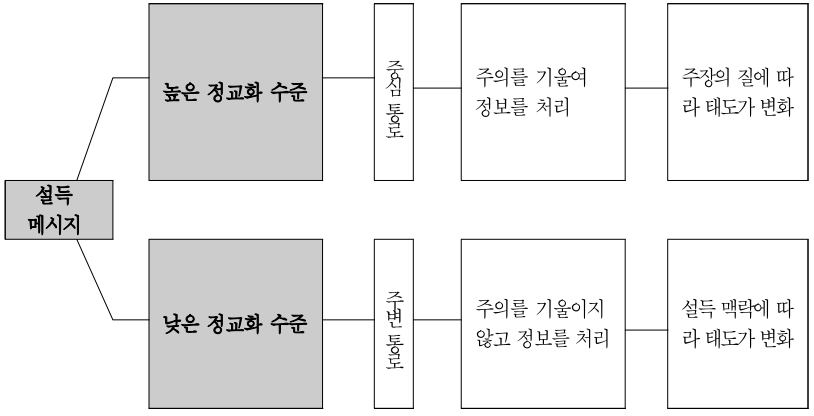
온 수사학이다. 기원전부터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각각의 주장에 적합한 설득 방법을 찾는 수사학에 심취해왔다. 수사학은 법정 변론이 성행하던 시기의 초창기 발전과정을 거쳐 말을 꾸미는 데만 치중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 이에 따라 형식논리학의 발전과 함께 수사(修辭)로 범위가 한정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수사학의 역사는 이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구자들의 공통 관심사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하겠다.

설득이란 '화자가 청자의 생각, 느낌, 행동을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언어 행동'[11], 혹은 '말하는 이가 말을 사용하여 듣는 이의 반응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말하기'[12] 등으로 조금씩 표현만 달리하여 정의되고 있다. 청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구하고 행위까지 나아가는 정도 등의 층위 구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화자의 발화가 공통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언어 등의 텍스트'로 청자의 '변화'를 유발하고자 시도한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요컨대 '화자'와 '청자', '텍스트'의 '변화 의도적 작용'이 곧 설득이다.

설득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된 설득 모델은 Petty와 Cacioppo(1986)의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이다. ELM은 설득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제시된 정보의 장점에 대해 개인이 세심하고 사려 깊게 고려함으로써 발생하는 중심 통로이고, 다른 하나는 설득 상황에서 제시된 단순 단서로 인해 태도가 변화되는 주변 통로이다.[13] 중심 통로는 설득에 접근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 사항에 대한 근거가 명확할수록 설득의 효과가 높아지게 된다. 주변 통로는 청자

11) Reardoon, Kathleen K, 임칠성 역, 『대인의사소통』, 한국문화사, 1997, 195-6쪽.
12) 이창덕 외, 『삶과 화법』, 박이정, 2000, 338쪽.
13) Petty, R. E., & Cacioppo, J. T,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attitude change*, New York: Springer-Verlag, 1986, 리대룡 외 역, 『커뮤니케이션과 설득』, 범우사, 1999, 17-18쪽.

가 쟁점 사항에 대해 지니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데 화자에 대한 신뢰도 등에 따라 설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본다. 즉 전자는 Logos와, 후자는 Ethos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14]



정보화 가능성 모델(ELM) 과정 (Petty&Caccioppo, 1986)

ELM 과정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탄탄할수록 중심경로에 있다고 보고, 근거 외의 요소들이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변경로에 있다고 보았다.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설득은 이성적인 전략, 즉 높은 정교화 수준을 보이는 것만을 의미해왔다. 그러나 화자의 신뢰도나 말하는 상황의 적절성, 감성에의 호소 등 낮은 정교화 수준에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위 모델에서 밝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오류이거

14) EMS 총설인 위의 책에는 중심 통로와 주변 통로에 대한 도식이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본고에서 전부 다루기에는 논지와 맞지 않다고 여겨 중요 내용만 정리된 모델로 싣는다. 다만, 낮은 정교화 수준의 처리 과정에서 '설득 단서'라 정리된 것을 '설득 맥락'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고 수정하였다. 정리된 모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재휘, 『설득 심리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56쪽.

나 논증 구조로 설명되지 않는 문장의 나열이라 하더라도 접근 방법에 따라서는 설득적인 메시지로 포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형태는 문학 텍스트에서 종종 발견된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게 눈여겨 볼 수 있다.

이제 논리학에서 유형과 구조를 빌려와 세부적인 문장 수준의 논증 구조에 주목하고 그 논법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논증(argument)이란 어떤 주장이 담긴 일련의 언명들의 계열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계열이란 두 개 이상의 언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논증에는 결론(conclusion)과 전제(premise)가 명확히 드러나 있거나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다.[15] 논증지시어를 통해 전제와 결론들을 찾았을 때 빠져있는 논증들을 약식논증(enthymeme)이라 부르며, 생략된 전제들을 보충해 넣으면 올바른 논증에 도달할 수 있다.

논증은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따라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으로 나뉜다. 귀납 논증(inductive argument)은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을 뒷받침하는 형식을 취하는 논증으로, 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개연성을 따지는 논증의 유형이다. 한편 연역 논증(deductive argument)은 주어진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증이다. 따라서 올바른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되며, 타당하거나 부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16] 연역 논증에서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은 그러한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일 수 없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연역적이지 않은 논증은 모두 비연역논증 또는 귀납 논증으로 볼 수 있다. 귀납논증은 결론이 전제로부터 도출되며 각 전제의 참이 가정되어 있을 때 그 결론이 거짓이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게 된다.[17]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의 구체적인 유

15) James D. Carney and Richard K. Scheer, Fundamentals of logic, Macmillan, 1980, 전영삼역, 『논리학 입문』, 간디서원, 2007, 14쪽.

16) James D. Carney and Richard K. Scheer, 위의 책, 13-61쪽.

17) James D. Carney and Richard K. Scheer, 위의 책, 28쪽.

형은 연구자에 따라 달리 나뉘기도 하고 그 유사한 속성으로 인해 구별이 쉽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유형 구분을 따른다.

보편적 유형	구체적 유형
귀납적	사례에 의한 논법
	유추에 의한 논법
	인과관계에 의한 논법
연역적	원인적 일반화에 의한 논법
	신호에 의한 논법
	분류에 의한 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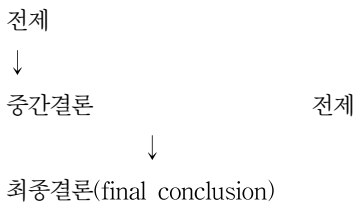
논법의 유형과 예

귀납적 논증 중 사례에 의한 논법은 "구체적인 범주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들을 검토한 후, 이들 경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범주 내의 아직 알려지지는 않은 다른 사례들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Hollihan&Baaske, 1994, p.76)고 보는 것이다. 유추에 의한 논법은 어떤 대상, 사람 또는 사건들에 대해 진실인 것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다른 대상, 사람 또는 사건들에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물론 비교대상이 되는 양자가 실제로 유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인과관계에 의한 논법은 대상, 사람 또는 사건들 사이의 유사성(또는 차이)이 대상, 사람 또는 사건들 사이에 어떤 특성이 공유(또는 비공유)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또한 상관관계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역적 논법의 원인적 일반화는, 인과적 상관관계와는 달리 이미 알려진 원인-결과의 관계에 주목하며 그러한 관계가 같은 범주 내의 다른 특정 사례에도 사실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Hollihan&Baaske, 1994, p.84) 신호에 의한

논법은 일반적 사실에 관한 관찰된 특성들을 조사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례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다. 분류에 의한 논법은 이미 밝혀진 구성요소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자료로 하여 같은 범주 중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검증 항목에도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18]

논증의 유형이 이러함을 판단하기에는 주장과 근거를 낱낱이 풀어헤쳐 관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그 중 어떤 논증을 기술하는 분명한 방법의 하나로서 화살표를 이용해 그 결론과 전제 사이의 관계를 지시해 주는 방법이 있다. 복잡한 논증에서 몇몇 결론들은 또 다른 결론의 전제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언명들을 중간결론이라 한다. 중간결론은 앞서의 전제들로부터 나온 결론이 되는 동시에 또 다른 결론을 위한 전제가 된다. 이러한 논증도해(argument diagram)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9]



2. 설득형 시조의 정의와 의의

시조의 3장 구성이 초중장의 병렬과 종장의 접속 종결로 이루어졌다는 구조의 원리를 전제한다면, 시조는 구조상의 보편 원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적 태도나 지향이 반드시 같지는 않으면서도 구조상의 동일성을 보이는 점에서 이를 더욱 보편적 구조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20]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18) Timothy A. Borchers, Rhetorical Theory, Wadsworth, 2005, 이희복 외 역,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44-148쪽.

19) James D. Carney and Richard K. Scheer, 앞의 책, 1980, 전영삼 역, 2007, 43-44쪽.

본다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긴 부분이 곧 시조의 주제와 연결될 것이다.[21] 이는 곧 일상 언어가 문학으로 치환되었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구조상의 특수성으로도 볼 수 있다.

서양의 고대 수사학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배치(disposition)의 개념이었다. 이것은 사고의 배치를 의미하는데 사고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2] 고시조는 시의 형식을 취하지만 언어로서 논리 정연한 문장이었다. 사고의 배치가 안정되고 전달내용이 정제되어서 의미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다.[23] 수식어를 배제하고 사고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렬하는 등 정렬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장과 장 사이의 응결성과 응집성이 높아 의미의 맥락 구조도 정돈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시조는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발화자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편이다.

확보된 구조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수사 전략들은 ELM 과정의 설득적 맥락과 상당부분 닮아있다. 시조의 화자들은 종종 권위에 호소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청자들을 감동시키고 감복케 한다. 또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군더더기 없이 나열된 시조의 장 형태에서 청자들은 자연스럽게 화자의 목소리로 귀를 기울이게 된다. 다른 시가 장르에 비해 시조가 갖는 장점이 뚜렷한 바[24], 그 형식적 우수성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이 '설득'이 될

---

20)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166쪽.

21) 김상진(1985)은 시조에서 주제, 즉 의미의 초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초장중심형, 중장중심형, 종장중심형, 단순나열형으로 이름지어 분류하였다. 특히 초장중심형의 경우 명령문을 사용하여 교훈적인 주제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문문을 사용할 경우는 설의법에 의한 강조로 이어진다고 보아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상진, 「이규보 시조의 의미구조와 지향세계」, 『한양어문연구』 7, 한양어문연구회, 1985, 83-87쪽.

22) 고영근, 『텍스트이론』, 아르케, 1999, 30쪽.

23) 임종찬, 「시조의 텍스트성 연구」, 『時調學論叢』 第21輯, 韓國時調學會, 한국시조학회, 2004, 7쪽.

24) 시조는 형식의 고태성(古態性, 故態性), 주제와 미의식의 광포성(廣布性), 향유의 공동체성, 장르의 지속성 등을 이유로 다른 고전시가 갈래보다 유리한 교육적 텍스트가 된다. 류수열,

수 있을 것이다.

시조를 의사소통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개인 의사소통'과 '집단에서의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개인의 의사소통이 자아와의 의사소통이라면 집단에서의 의사소통은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내용이나 규준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소통이라 할 수 있다.[25] 설득이 목적인 시조들은 집단 안에서 자아가 추구하는 바를 인정받거나 행동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집단에서의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자에 해당되는 시조들 중, 발화의 목적을 '설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조들을 '설득형 시조'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득형 시조의 요건으로는 가장 먼저 '화자의 설득 의도 유무'를 들 수 있다. 이는 설득형 시조에 대한 가장 광의의 정의로도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요건만으로는 연구대상을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 두 번째 요건으로 논리학의 형식적 요소를 참고하여 '논증적 요소의 유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논증적 요소란 논증도해로 풀었을 때 명시되는 전제와 결론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어긋난 논리도 발화로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용론적 전제[26]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시조의 활용 가능역 연구」,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219-220쪽.

25) 개인 내적 의사소통(IRPC : Intrapersonal Communication)을 자아와의 의사소통, 자아의 자아에 대한 의사소통으로 정의할 수 있다. IRPC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스스로를 판단하는 방식, 개성 등의 핵심적 요소와 자아동인, 이것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등으로 구분지어 이해할 수 있다. 집단 의사소통은 일정한 방법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일한 목표와 관심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규준을 준수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말한다. 집단의 일부가 되어 집단 안에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개인 의사소통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G.Burton&R.Dimbleby, Between Ourselves, Oxford Univ Pr, 2007, 이주행 외 역,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한국문화사, 2005, 1-68쪽, 307-348쪽.

26) 화용론적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는 전제의 논리적 관계보다는 화행의 맥락에서 문장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조건을 중시한다. 주어진 맥락, 대화상의 특정 상황, 화자의 믿음 등을 고려하여 문장의 적절성을 판별하는 조건인 것이다. 오주영, 『화용론과 의미해석-화행,전제,

따라서 본고에서는 설득의 의도가 있되 논증의 요소가 나타나는 시조들을 설득형 시조로 본다. 예컨대 설득의 의도는 충분히 감지되어 넓은 의미에서는 설득에 해당하는 시조들도 논증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애초에 설득의 의도가 없는 음주나 풍류를 노래한 시조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술한 바 논증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텍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 논리적으로는 오류이거나 논증구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설득이 이루어지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고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좋은 차입니다." 라고 언급했을 경우,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오류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중심리를 자극하여 판매를 호소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높은 설득력을 지닌다. 오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과 오류를 활용해 효과를 누리는 것은 층위가 다른 문제다. 이처럼 논증 구조가 빈약하더라도 발화자의 설득적 의도가 살아있다면 설득형 시조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마올 사ᄅᆞᆷᄃᆞᆯ하 올ᄒᆞᆫ 일 ᄒᆞ쟈ᄉᆞ라
사ᄅᆞᆷ이 되어 나셔 올티곳 못ᄒᆞ면
ᄆᆞ쇼ᄅᆞᆯ 갓 곳갈 ᄉᆡ워 밥 머기나 다ᄅᆞ랴

-「훈민가」, 정철(269)[27]-

위 작품의 화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권유하기 위하여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마소와 같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동요는 충분히 일으킬만하다. 사람을 마소에 빗대면서까지 옳은 일의 당위성을 입증하고픈 화자의 주장이 타당성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설득적 의

함축』,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8, 87-107쪽.

27) 논의에서 제시되는 시조의 번호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시조 Ⅰ』과 『시조 Ⅱ』, 『사설시조』 편에서 정렬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소통은 화자와 청자가 담화 텍스트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화자가 지닌 주장이나 관점 등이 각종 수신 맥락을 통해 청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설득형 시조는 집단 의사소통 중에서 발화의 목적을 설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텍스트, 또한 논증 구조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설득적 맥락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지니는 시조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Ⅲ. 설득형 시조의 유형탐색

2장에서 제시한 논증 구조에 따라 시조들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표면상 설득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교훈적 시조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대표성을 갖는다고 평가할만한 작품 선택을 우선으로 하되, 귀납적 논증의 유추에 의한 논증과 연역적 논증의 원인적 일반화에 의한 논증이 다수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귀납적 설득시조는 개별 사실에서 출발하여 일반 원리를 이끌어내는 귀납적 추론방법을 사용한 시조로,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닐 수 있다는 함정을 가지고 있다. 근거가 되는 전제가 참일 경우 주장하는 결론을 그럴듯하게 뒷받침해주는지에 따라 강한 논증과 약한 논증 등으로 나눈다. 논리학에서는 전제가 참인 강한 논증 외에는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문학 텍스트 안에서는 논증이 실패했다고 해서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님을 전술한 바 있으므로 배제하지 않았다.

1. 귀납적 설득 시조의 유형

(1) 귀납적 일반화

귀납적 일반화는 불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둔 일반화를 말하며, 보통 사례를 통한 논증을 구사한다. 앞서 제시한 논법의 유형에서 '사례에 의한 논법'과 같은

의미이다.

가마귀 검다 ᄒᆞ고 白鷺야 웃지 마라
것치 검은들 속조ᄎᆞ 검을소냐
것 희고 속 검은 거슨 너 ᄲᅮᆫ인가 ᄒᆞ노라

-이직- (31)

이 시조에서는 초장이 곧 화자가 제시하는 주장이며 직접적인 청자가 드러나 비교적 명확하게 설득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청자인 백로에게 까마귀의 검은 빛은 부끄러움의 대상인 모양이나, 화자는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지 않음을 첫 번째 근거로 내세우며 이를 질타한다. 또한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청자인 너 뿐이라고 탓하는 등 흑백의 대립적 색상이 상징하는 표리부동을 경계하는 작품이다.

까마귀의 검은 빛이 표면적, 외형적 조건일 뿐임을 검토한 후 이와 유사한 범주에 청자가 있다고 가정한 것에서 귀납적 논증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청자의 내면적 속성이 흑백 대립의 속성과 같을 것임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이 시조에서 사용된 논증 구조는 귀납적 일반화에 가깝다고 본다.

전제가 되는 근거를 제시한 다음 마지막에 주장하는 바를 내세우는 논증 유형과는 다르게 이 시조는 주장하는 바를 초장부터 제시하여 보다 강한 어조가 느껴지도록 구성하였다. 반면 일반적인 전제-결론의 배치 순서대로 종장에 주장하는 바를 담아 시조의 3장 구성에 충실한 예도 발견된다.

善으로 敗ᄒᆞᆫ 일 보며 惡으로 인 일 본가
이 두 즈음에 取捨ㅣ 안이 明白ᄒᆞᆫ가
眞實로 惡된 일 안이 ᄒᆞ면 自然 爲善ᄒᆞ는이

-엄흔- (148)

엄흔은 선으로 망한 사례가 없고 악으로 잘된 사례가 없음을 개별적인 사실로

보고 근거로 삼았다. 또한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첫 번째 근거의 명확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근거의 타당도를 더욱 높여준다 하겠다. 하여 종장에서는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일반 원리를 끌어내어 선한 행동을 하도록 청자를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납적 논증에서는 근거가 되는 개별 사례들이 참이 아닐 경우 주장 역시 참이 아니게 된다는 문제가 발견된다. 따라서 근거1의 반례가 있을 경우 근거2와 화자의 주장 모두가 흔들리므로 근거1은 반드시 참이어야 주장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근거1의 반론으로 '선으로 망한 사례'와 '악으로 잘된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이 작품 안에서는 근거2의 흔들림 없이 단호한 어조가 오히려 근거의 사실성을 납득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2) 유추

귀납적 유추는 비교대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두 대상이 어떤 성질을 공유한다고 추론하는 방법이다. 물론 개별 사실들을 제시한 후 일반 원리로 나아가는 귀납적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의 시조를 살펴보자.

> 개야미 불개야미 준등 부러진 불개야미
> 압발에 疔腫 나고 뒷발에 죵귀 난 불개야미 廣陵 심재 너머 드러 가람의 허리를
> 가르 무러 추혀 들고 北海를 건너닷 말이 이셔이다 님아 님아
> 온 놈이 온 말을 ᄒᆞ여도 님이 짐쟉ᄒᆞ쇼셔
>
> (128)

이 시조는 초장에서 개미, 그 중에서도 등뼈가 부러진 불구(不具) 개미를 대상으로 함을 밝히며 시작한다. 이 대상은 앞발은 헐고 뒷발은 곪았다는 중장의 부가적 설명으로 인해 그 불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불개미가 광릉의 샘재를

넘고 심지어 호랑이의 허리를 물고 북해를 건너는 것으로 대상과의 관계는 구체화되고, 흥미로운 전개의 마지막인 종장에서야 그 의미는 드러난다. 화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하여도 내 임께서는 가려들어 현혹되지 말라 당부한다. 혹여 당신이 나에 대한 모함을 듣더라도 이는 불구인 개미가 호랑이를 물고 바다를 건너는 것만큼 허무맹랑함을 유추를 통해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시조를 해석할 때 화자의 주장을 '유추'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유추는 본디 유비추리(類比推理)라는 말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지닌 속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두 대상의 다른 속성까지도 동일하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논증의 한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추리 구성을 지닌다.

- 대상 a가 성질 P1, P2, ……, Pn을 가지고 있다.
- 대상 b도 성질 P1, P2, ……, Pn을 가지고 있다.
- 그런데 대상 a는 Pn+1을 가지고 있다.
- 그러므로 대상 b도 Pn+1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28]

위의 추리 구성을 앞선 시조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다.

- 불구인 개미가 호랑이를 물고 바다를 건넌다는 말이 있다.
- 모든 사람이 내 험담을 한다.
- 그런데 불구인 개미가 호랑이를 물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러므로 나에 대해 하는 험담은 발생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을 믿지 말라.)

유추의 구성에 따라 시조를 재구조한 결과, 해석이 더욱 분명해짐과 동시에

28) James D. Carney and Richard K. Scheer, 앞의 책, 1980, 전영삼 역, 2007, 191쪽.

화자의 주장을 담은 진술이 어떤 구성을 통해 설득력을 얻게 되었는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일정한 설득의 구조와 전략을 통해 분석된 내용은 다시 화자와 청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짐작하여 헤아리고 화자의 결백 혹은 옳음을 믿어달라 말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상황을 초장과 중장을 통해 설정한 것임을 예측할 수도 있다. 화자에 대한 신뢰를 주장하기 위하여 근거를 빗댄 것인데 이러한 형식은 시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종종 나타난다.

이런들 엇더ᄒᆞ며 저런들 엇더ᄒᆞ리
萬壽山 드렁츩이 얼거진들 긔 엇더ᄒᆞ리
우리도 이 ᄀᆞᆺ치 얼거져 百年ᄭᆞ지 누리이라

-「하여가」, 태종- (18)

청자인 정몽주를 회유하고자 부른 것으로 알려진 이방원의 이 작품에서는 이러해도 괜찮고 저러해도 괜찮다는 상황을 제시하며 시작한다. 어찌되든 상황은 괜찮음을 표현한 것인데 그에 대한 다른 사실적 근거로 만수산의 드렁칡이 얽어져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중장에서 제시하기도 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칡덩굴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얽어져 커나가는 속성을 우리에게서도 만들어보자며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종장이 자못 설득적이라 하겠다.

화자는 칡덩굴의 얽힘 속에서 친밀하게 기대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속성을 발견해냈다. 그리고 이를 인간관계에 대입하여 유사한 속성으로 공유해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충분히 귀납적 유추 논증의 예로 불릴만하다. 물론 교훈을 주는 작품은 아니지만 알려진 시조들 중 설득력이 매우 높은 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예로 들어 보았다.

간밤의 부든 ᄇᆞ람 눈 셔리 치단 말가
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ᄆᆡ라
ᄒᆞ물며 못다 퓐 곳치야 일너 무엇 ᄒᆞ리오

-유응부- (58)

지난 밤 눈서리가 쳤던 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다. 또 그로 인하여 소나무의 늘어진 가지들이 더 기울어지는 것 역시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보인다. 굳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지경인데 꽃이, 심지어 피다 만 여린 꽃이 풍랑을 버텨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유응부는 눈바람과 낙락장송의 기울어짐을 들어 꽃들의 수난을 유추해냈다.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같은 성질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귀납적 유추 논증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유응부가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맥락까지 고려한다면 못다 퓐 꽃들이 충신이 될지도 모를 아직은 어린 선비들임을 짐작케 하여 더욱 안타까움이 높아지는 작품이라 하겠다.

靑山은 엇뎨ᄒᆞ야 萬古애 프르르며
流水ᄂᆞᆫ 엇뎨ᄒᆞ야 晝夜애 긋디 아니ᄂᆞᆫ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 호리라

-「도산육곡지이」, 이황- (131)

산이 만고에 푸르른 것은 변함이 없고 흐르는 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것도 그러하다. 청산과 유수의 공통점은 변함이 없다는 속성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근거로 제시된 이 두 조건들처럼 변함없이 노력하여 학문을 닦을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사물의 영원성에 빗대어 학문 수양 탐구에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리가 청산과 유수처럼 영원히 살 것임을 잘 표현했다고 본다.

2. 연역적 설득 시조의 유형

(1) 원인적 일반화

원인적 일반화는 이미 알려진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범주 내에서 특정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논증이다. 필연적인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귀납적 설득과 대별되며, 도출된 혹은 주장된 내용은 전제가 되는 일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白日은 西山의 지고 黃河ᄂᆞᆫ 東海로 든다
古今 英雄은 北邙으로 가단 말가
두어라 物有盛衰니 恨ᄒᆞᆯ 줄이 이시랴

-최충- (4)

초장은 일반적인 원리에 가깝다. 해가 서쪽 산에 지고 황하가 동해로 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응당 당연한 일이다. 그 당연함 속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웅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찾을 수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섭리대로 흘러감은 자연히 만물의 흥망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하여 아쉬워하거나 한탄하지 말자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영웅의 죽음과 만물의 흥망성쇠는 자연의 섭리로 같은 범주에 묶인다. 담담하게 원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화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한 자연의 섭리로 설명되고 해소될 것만 같다.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는 ᄃᆞᆺ 검노ᄆᆡ라
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랴
님 향ᄒᆞᆫ 一片丹心이야 變ᄒᆞᆯ 줄이 이시랴

-박팽년- (43)

박팽년의 시조에서는 최충의 시조에서 말하는 자연의 섭리가 무심하게 생략되어 있다. 초장에서 까마귀의 지극히 당연한 까만색을 언급하고 중장에서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당연히 밤에도 밝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두 개별사실 모두 당연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상위의 일반 원리에 최충의 시조처럼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처럼 당연하다'는 명제가 숨어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장에서 이 당연한 흐름대로 내가 임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萬物을 삼겨 두고 日月 업시 살리러냐
方寸 神明이 긔 아니 日月인가
진실로 學問봇 아니면 日月食이 저프니라

-「명명덕곡」, 고응척- (201)

자연을 일반 원리로 삼는 시조들은 이 외에도 다수 발견된다. 초장에서 만물을 만들어두고 해와 달 없이 살겠냐는 물음은 해와 달이 상징하는 자연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해와 달과 같음을 밝혔는데 이는 해와 달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초장의 명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종장에서는 해와 달이 없어지지(가리지) 않기 위해서 곧 사람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화자는 그 방법으로 '배움'을 제시한다. 개별 사실이 되는 근거들을 나열하고 종장에서 이에 걸맞은 제안을 시도하는 것이 청자에게 무척 설득적으로 다가오는 구성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연을 일반원리로 삼은 시조들은 자연의 당연한 순환 흐름이나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이 해야할 일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대인들의 도학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이 인간의 도리를 함축하고 있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이상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한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다.

Ⅳ. 결론

본고는 장르 안에 각각 내포된 설득적 요소를 찾아보고자 시조를 선두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Steiger가 기존의 절대적 장르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장르에 속하는 모든 텍스트가 다소 '서정적', '서사적', '극적'으로 표현되는 관념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장르로서의 시조를 두고 그 안에서 설득적 요소를 중심으로 나눈 갈래에서는 설득적 시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때문에 담론 행위로서의 시조 연구에서 설득형 시조의 개념은 그 필요성이 충분해지며 이는 논리학적 접근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시조를 담론 행위로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설득적 개념의 의미를 살피며 설득적 시조 유형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화를 위하여 설득의 개념과 논증적 구조를 차용, 설득형 시조의 조작적 개념을 설정하고 그 유형을 살펴 각각의 작품에 적절하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시조 텍스트를 의사소통 담론으로 파악하여 논증적 유형과 구조를 살피는 작업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조를 설득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그 교육적 가치는 재조명될 수 있다. 교육학에서 '설득'은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평가받는다. 설득 능력은 자기표현· 설명 담화보다 발달 과정에서 뒤늦게 이루어지며, 글쓰기의 경우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에 속하는 등,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자연스러운 습득이 어렵다[29]는 점을 들어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설득적 글쓰

29) 최영인, 「설득 화법 집중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연구」, 『화법연구』 24,

기와 설득적 말하기를 대표적 교육내용으로 삼아 화법 과목과 작문 과목을 아우르며 그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조가 그 제재로서의 역할을 넘어 방법적 원리 제시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조 텍스트가 지닌 설득적 갈래로서의 타당성도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후속과제를 통해 설득형 시조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앞세워 그 유형과 구조를 덧붙여 볼 것이다. 또한 확인된 논증적 유형들을 시조 연구와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보고자 한다.

문학 텍스트는 미적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자(혹은 독자)의 수용에 따라 심미가 곧 감동이 되고 감동이 심미인 순간에 더욱 큰 울림을 준다. 현대인들이 즐기는 시조는 이제 감상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조 번성기였던 몇 백 년 전에는 향유의 즐거움 외에도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어떤 수행 기능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시조가 미적 기능과 설득적 기능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당대의 시조 문학은 충분히 사회적 발언이 가능했던 장르로 간주되며, 그래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설득 매체로의 역할도 수행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야콥슨의 의사소통 유형을 빌어서 말하자면, 순수 서정시는 의사소통의 여섯 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하나가 부각되는 장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조는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관여하는 설득 지향적 갈래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시조가 직접 청자를 면전에 두고 연행되는 구술문학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조를 메시지 중심의 의사소통 구조를 지닌 설득 지향적 갈래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논문은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시조 작품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광의의 설득 개념에서는 스스로 자기 표명을 한 '개인 의사소통' 유형의 텍스트조차 설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한국화법학회, 2014, 271쪽.

있다. 이는 시조의 전수 조사를 통해 연구를 확장하여 보다 촘촘한 유형과 구조 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를 보충하려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으나 대상 시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태도나 화자, 청자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밝혀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자료

김홍규,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김대행, 『시조 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박을수, 『시조 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김홍규, 『사설시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2. 논저

강명혜, 「사설시조의 언술 연구」, 『時調學論叢』 第10輯, 韓國時調學會, 1994., 206-299쪽.
고영근, 『텍스트이론』, 아르케, 1999, 30쪽.
김대행, 『시가시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166쪽.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283-297쪽.
김병철·안봉묵,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68-69쪽.
김상진, 「이규보 시조의 의미구조와 지향세계」, 『한양어문연구』 7, 한양어문연구회, 1985, 83-87쪽.
김재휘, 『설득 심리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56쪽.
류수열, 「한국어교육을 위한 시조의 활용 가능역 연구」, 『문학교육학』 4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219-220쪽.
박상영, 「사설시조의 담론구조와 시학」,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03-105쪽.
박성철, 「설득전략으로서의 텍스트 문체 분석 : 표현영역(elocutio)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4, 515쪽.
심경호, 「한국고전과 한국학에서의 수사학에 대하여」, 『수사학』 3, 한국수사학회, 2005, 17-148쪽.

오주영, 『화용론과 의미해석 -화행,전제,함축-』,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8, 87-107쪽.
이창덕 외, 『삶과 화법』, 박이정, 2000, 338쪽.
임종찬, 「시조의 텍스트성 연구」, 『時調學論叢』 第21輯, 韓國時調學會, 2004, 7쪽.
정종진, 「화자-청자 관계를 통한 시조의 담화 유형과 그 특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2008, 63쪽.
주재우, 「설(說) 양식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최영인, 「설득 화법 집중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연구」, 『화법연구』 24, 한국화법학회, 2014, 271쪽.

G.Burton&R.Dimbleby, Between Ourselves, Oxford Univ Pr, 2007, 이주행 외 역,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한국문화사, 2005, 307-348쪽.
James D. Carney and Richard K. Scheer, Fundamentals of logic, Macmillan, 1980, 전영삼역, 『논리학 입문』, 간디서원, 2007, 191쪽.
Richard E. Petty, John T. Cacioppo,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Attitude Change, New York: Springer-Verlag, 1986, 리대룡 외 역, 『커뮤니케이션과 설득』, 범우사, 1999, 17-18쪽.
Petty, R. E., & Cacioppo, J. T,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Central and
Reardoon, Kathleen K, 임칠성 역, 『대인의사소통』, 한국문화사, 1997, 195-196쪽.
Terry Eagleton,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83,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비, 1989, 124쪽.
Thomas A. Hollihan, Kevin T. Baaske, Arguments And Arguing: The Products And Process Of Human Decision Making, Waveland Pr Inc, 1994.
Timothy A. Borchers, Rhetorical Theory, Wadsworth, 2005, 이희복 외 역, 『수사학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44-148쪽.

〈Abstract〉

A Study on the Types and Argumentation Structures of Persuasive Sijo

Kim, Se-Li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concept of Persuasive Sijo operationally and analyze the type and structure of it. Sijo literature research has considered Sijo as the literary text and evaluated it in the aspect of text in-depth. It was expected that a new interpretation and type considering the speaker, listener, and context would be revealed if we evaluate Sijo in the aspect of pragmatic discours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type of Sijo and the structure of Sijo by identified type with considering Sijo as persuasive dialogue.

First of all, the lexical meaning and the representative persuasion models were referred to set the concept of Persuasive Sijo operationally. According to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 developed by Petty and Cacioppo(1986), a persuasive message can be divided into a central route and a peripheral route depending on the approach leading to persuasion. I found the possibility of persuasion in the literary text because even a sentence not logically grounded or not explained by the argumentation structure could be persuasive enough to listeners.

Moreover, when the concept was defined operationally by borrowing the type and structure of demonstration, Sijo showing the intention of persuasion and text showing demonstrative elements could be classified as Persuasive Sijo. The structures of multiple Sijo were evaluated to confirm if Persuasive Sijo types could be classified. Didactic Sijo were examined first because the type of Sijo would be more distinctive when the objective of Sijo is clear. From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two induction types, which are generalization, based on uncertain evidence, and analogy, inferring a certain property based on the similarity of the comparative objects. Moreover, in the deductive inference aspect, some Persuasive Sijo used generalization applying known reasons and results to specific cases.

In the future, the concepts and types of Persuasive Sijo will be supplemented through a theoretical systematization. Furthermore, future studies will evaluate how to apply the gained knowledge to the educational purpos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new concepts and types of Persuasive Sijo.

Key sords : Sijo, Persuasive Sijo, Persuasive of Sijo, Argumentation of Sijo, Persuasion Structure, Literature Education

이 논문은 2017년 01월 08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17년 01월 11일부터 2017년 01월 19일까지 심사를 하고,
2017년 01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정철의 「훈민가」와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 비교 연구

테 레 시 아 마 가 렛 *

〈국문초록〉

본 논문의 주제는 정철의 「훈민가」와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의 작품 비교이다. 정철의 「훈민가」는 16세기 시조이다.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훈시조이다.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생활 방식과 언어를 가지고 만든 시조이다. 한편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은 19세기 구린담이다. 인도네시아 고전 시가를 가지고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훈 구린담이다. 네덜란드 식민지를 당한 인도네시아 백성들을 위해 이슬람교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교훈 구린담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훈 시가를 가지고 비슷한 점을 비교하였다. II장에서 시조와 구린담 두 시가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정철과 라자 알리 하지의 생애를 알아보았다. III장에서는 두 작품의 내용을 전체 구성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고, IV장은 결론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두 작품을 비교하고 비슷한 점을 찾아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비교문학의 가능성을 열어보았다.

주제어: 시조, 정철, 구린담, 라자 알리 하지, 인도네시아, 비교문학

I. 서론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똑같이 1945년에 독립하게 되었다. 한국은 35년간 식민지가 되었다가

* 경희대학교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는 3년간 식민지가 되었다가 1945년 8월 17일에 독립하게 되었다. 독립일이 비슷하긴 하지만 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서 언어와 문화도 다르고 나라의 사상도 다르다. 역사와 문학 역시 다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비교문학 연구가 더 필요하다. 차이점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점도 연구해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필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고전 시가 비교 연구를 해봤다.[1] 한국의 유교를 바탕으로 만든 주세붕의 「오륜가」와 인도네시아 이슬람교 철학을 바탕으로 만든 라자 알리 하지(Raja Ali Haji)의 「12장 구린담」을 비교해본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인도네시아와 한국 문학을 소개하겠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 있으며 섬나라이고 큰 나라[2]이어서 민족이 많고[3] 역사도 길다[4].

---

1) 테레시아 마가렛,「주세붕의 「오륜가」와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2) 인도네시아는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 군가이며, 아시아와 호주대륙 사이의 북위 6도, 남위 11도, 동경 97도에서 서경 141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위치는 국가의 문화, 사회, 경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3,977마일 뻗은 인도네시아는 오세아니아 해양을 포함하여 1만 9천 평방 마일 면적을 자랑한다. 5개 큰 섬을 꼽자면, 수마트라섬 (473,606 square Km), 자바섬(132,107 square Km), 칼리만탐섬(539,460 square Km), 술라웨시섬(189,216 square Km), 파푸아섬(421,981 square Km)이다. http://kbriseoul.kr/kbriseoul/index.php/ko, 2016년 12월 22일 참조.

3) 인도네시아 인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부지역은 대부분 말레이족이고, 반면 동부지역은 멜라네시안섬 출신인 파푸안족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출신지방, 지역별로 각기 종족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예를 들면, 중부자바, 동부자바는 자바인, 서부자바는 순다인, 북부수마트라는 바탁인종이다. 또한 중국, 인도, 아랍후손들의 소수인종도 있다. 이들은 기원전 8세기부터 무역 상인으로 교류하다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였다. 정확한 최근 수치는 알 수 없지만, 1930년대 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구의 3%가 화교이다. http://kbriseoul.kr/kbriseoul/index.php/ko, 2016년 12월 22일 참조.

4) 인도네시아 최초로 알려진 정착자는 오천년전 이곳에 살았던 호모 에레커스인 혹은 자바인이다. 6만년 전, 현재의 조상인 파푸안은 이 섬을 통하여 동부로 이동하여 사실상 뉴기니아와 호주에 3, 4 만년 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4세기경, 현재 인도네시아 주종을 이루는 말레이, 자바 및 말레이-폴리네시안족과 같은 그룹의 조상들이 출현하였다. 인도, 중국, 남동아시아 내륙국가들과의 무역교류는 외래 문화 유입을 가져왔고 인도네시아 종교에 영향

인도네시아 반도에는 마자파힛(Majapahit)[5]이라는 왕국이 있었다. 옛날에 인도네시아는 한 왕국이 아닌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마자파힛 시대 때부터 한 나라로 되었다. 1602년부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그리고 동티모르는 말레이어라는 언어를 사용했지만 이제 말레이시아와 브루네이만 말레이어를 사용한다. 인도네시아와 동 티모르는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다. 말레이어는 옛날 언어이고 인도네시아어는 영어와 다른 언어하고 붙어서 말레이어 바탕이지만 조금 달라서 말레이어와 인도네시아어의 차이는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처럼 다른 것으로 보면 된다.[6]

인도네시아는 300년 동안 식민지가 되어 전통과 고전문학을 잃어버리거나 네덜란드에 넘어가 있다. 남은 것이 물론 있지만 한국처럼 기록문학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고전문학사는 두 가지로 나눈다. 외국문학[7]과 말레이 문학

을 끼쳤다.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최초의 인도적 왕국은 스리위자야이었다. 천년보다 훨씬 이전에 많은 섬들과 무역 교류했던 중심지였으며, 말라카 전략적 해협주변의 수마트라섬 해안에 위치해 있다. 자바섬 근교에는 내부에 수많은 아주 정교한 종교적인 조각물로 내부를 장식한 보로부드르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이 있다. 가장 강력한 힌두-자바인의 왕국은 14세기 마제파힛 왕국 때 한때는 (현재 인도네시아로 알려진) 나라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쳤으며 이제는 파푸아 뉴기니아의 서부해안 에서 무역거점을 연결하는 통로로 알려졌다. 인도 이슬람 무역상인들이 8, 9세기에 인도네시아에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13세기에 마르코 폴로는 북부 수마트라섬을 방문하였고, 그곳에 최초로 이슬람 국가가 건립하였다. 곧 이어, 자바섬 북부해안의 통치자는 힌두의 마제파힛 왕국을 정복하였고, 점차적으로 인도네시아 전 섬으로 확대해 갔고,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향신료는 최초로 포르투갈 상인들이 1511년 말라카의 주요 무역항구로 들여왔다. 이러한 향신료들은 향신료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병을 치료한다고 믿었다. 말 그대로 가치가 금과도 같았다. 네덜란드는 포르투갈 향신료 무역을 통제 착취하였고, 네덜란드 VOC회사를 설립하여 18세기에 독점하였다. 19세기에, 네덜란드는 자바섬에서 설탕과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세계 공급량의 4분의 3을 차지하였다.
http://kbriseoul.kr/kbriseoul/index.php/ko, 2016년 12월 22일 참조.

5) 마자빠힛 왕국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시대로 점어들던 시기에 한껏 만개한 힌두, 불교 왕국이었다. 양승윤, 『인도네시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255-7쪽 참조.

6) 고영훈 외, 『인도네시아 문학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3-5쪽.

이라고 한다. 말레이 문학은 사회 예술로 여겨져서 작품이 구비로 전해졌다. 라자 알리 하지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살았다. 그때는 무슬림이 많았지만[8] 코란은 아랍어로 쓰여 있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인도네시아의 기록 고전문학은 코란과 이슬람교의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갈래의 하나인 구린담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9] 라자 알리 하지는 구린담 양식을 가지고 백성에게 이슬람교를 가르쳤다. 이슬람교 코란은 아랍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읽지 못해서 그가 문학작품으로 이슬람교를 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구린담」에는 이슬람교 가치가 많이 담겨 있다.

한편 한국의 고전문학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기록문학도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를 잘 할 수 있다. 구비문학도 있지만 향찰, 한자, 한글 등으로 쓴 기록문학이 5세기부터 있었다. 갈래가 다양하지만 고전시가 갈래는 향가부터 경기체가, 시조, 가사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 기록문학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10] 한국의 문학은 오랜 역사가 있어서 다양한 기록 작품을 볼 수 있다. 고전시가 중에 시조는 제일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조 종류 중에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교훈시조가 있다. 교훈시조

---

7) 인도네시아 고전문학사에 외국문학이라는 것은 힌디아 블란다 문학이라고도 한다. 힌디아 블란다라는 것은 말레이어로 네덜란드이다. 그래서 네덜란드 식민지 때 만든 작품을 외국문학이라고 한다. 대부분 시, 산문 그리고 소설이다. Subagio Sastrowardoyo,『Sastra Hindia Belanda dan Kita』, Balai Pustaka, 1990, 11-20쪽.

8) 13세기부터 인도 구자랏 지방과 페르시아로부터 이슬람상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시작하여, 14세기 후반부터 믈라카나 팔렘방 등의 항구에 이슬람상인들이 들어와 무역하면서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슬람세력은 지속적으로 남하, 동진하여 수마트라 섬 북단의 아체와 믈리키 해협을 제압하고 15세기 중엽에는 자바 섬의 연안도시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마자파힛 왕국은 이슬람 세력에 밀려 1520년에 멸망하였고 힌두문화를 고수하던 귀족과 성직자들은 동부 자바, 롬복 섬, 발리 섬으로 피신했다. 이슬람교의 본격적인 전파는 16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김상술,『아빠가바르 인도네시아』, 그린누리, 2010, 25쪽.

9) Irwandra, 「Relasi Tuhan-Manusia: Pendekatan Antropologi Metafisik Terhadap Gurindam Dua Belas Karya Raja Ali Haji」, 『An-Nida'』 제38집, 2013, 25-36쪽.

10) 조동일,『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14, 34-42쪽.

를 만든 고전 작가들 중에 정철이라는 문인이 대표적이다. 정철은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훈민가」라는 교훈시조를 지었다. 백성들에게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교훈시조를 만들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유교의 윤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도덕도 가질 수 있다.

필자는 석사학위논문에서는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과 주세붕의 「오륜가」를 비교하였다. 주세붕의 「오륜가」는 유교의 삼강오륜을 가지고 그대로 시조로 옮긴 것이지만 정철의 「훈민가」는 유교의 삼강오륜뿐만 아니라 백성의 생활도 다루어서 백성들의 생활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정철의 「훈민가」를 가지고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과 비교할 것이다.

II. 두 시가의 특징과 작가의 생애

1. 시조와 정철

1) 시조의 특징과 개념

대부분 조선시대 시는 성리학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었다. 조선시대 시 갈래 중에 시조가 그 하나이다. 시조가 언제 생겼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고려말 발생설과 조선전기 발생설이 대립하고 있다. 시조는 조선의 사대부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1] 시조는 한국문학의 전통적 양식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창작, 가창되고 다수의 작품이 현전하는 갈래이다.[12] 시조는 기본적으로 노래로 성립하여 발전해 온 양식이며 음악이나 리듬의 문제를 뗄 수 없다.[13]

---

11) 민족문학사연구소,『새 민족문학사 강좌1』, 창비, 2009, 215-216쪽.

12) 金興圭,『韓國文學의 理解』, 民音社, 1991, 44쪽.

13) 김창원, 「조선전기 시조사의 시각과 경기체가」,『韓國詩歌硏究』제9집, 한국고시가문학

오늘날 시조는 '4음보격(音步格) 3행(行)' 또는 '3장(章) 6구(句) 45음절(音節) 내외'의 형식을 지닌 정형시가(定型詩歌)로 정의한다. 그렇지만 '시조'가 원래 문학으로서의 시가 갈래를 가리키던 말이 아니라 음악의 곡조에 관한 말로서 '옛 곡조'에 상대되는 '현재 곡조' 또는 '당대에 성행하게 된 새로운 곡조'를 뜻하였다. 시조가 고려 말인 14세기 말 무렵에 그 기반이 되는 전단계 시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선 초인 15세기 초, 중엽 동안의 모색을 거쳐서 15세기 말에 '4음보격 3행'의 형식을 이룸으로써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시조 작품들은 작가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여, 그 삶의 다양성만큼이나 주제와 제재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14]

시조는 대부분 내면세계의 정서를 읊는 형식을 지니었다. 시조는 내면세계를 형상화하므로 실제의 사물이 아니라 내면 속의 사물 곧 사물의 이미지를 그린다.[15] 유교 사상은 조선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교에 관련된 시조 작품도 많이 있다. 고시조 작품들에 나타난 여러 제재와 주제들은 불완전하지만 통계에 의거하여 분류하면 유교적 이념과 교훈이라는 주제가 13.3% 내외라고 나온다. 16세기부터 성리학의 발달에 따라 사대부들의 사상과 생활이 유교적인 것으로 일원화되었고 시조에서 표현되는 사상도 유교적으로 되었다.[16]

유교는 생활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생활이란 바람직한 인간의 생활을 말하며, 바람직한 생활은 스스로의 자기 위치의 확보에 달렸다.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이웃은 이웃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17] 유교에 있는 삼강오륜에 관련된 시조를 '오륜시조(五倫時調)'라고 한다.[18]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훈시조라고 하면 오륜을 담고 있는

회, 2001, 309-336쪽.

14) 성호경, 『시조문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17-18쪽, 187-188쪽.

15)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214-219쪽.

16) 성호경, 위의 책, 110-111쪽, 214쪽.

17)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전통과 계승』,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56쪽.

시조를 먼저 생각한다.[19]

2) 정철의 생애

정철은 1536년에 서울 장의동에서 영일 정씨 정유침(鄭惟沈)의 4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세자의 양제로 있던 맏누이의 귀여움을 받으며 궁중에서 놀며 자라났다. 태어나서 열 살 때까지 그는 궁핍과 고난을 모르고 궁정적 영광에 싸여 자라났다. 1545년 인종의 승하와 함께 몰아닥친 을사사화(乙巳士禍)는 하루아침에 정철을 감싸고 있던 모든 영광들을 걷어내어 버렸으며 16세 경 전라도 창평(昌平)에 정착할 때까지 그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시절 6, 7년간을 부모를 따라 남북으로 전전해야만 했다. 정철이 창평에 살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14세 경에 어머니와 함께 먼저 내려와서 임시 거처에 머물다가 16세 되는 해에 아버지가 석방되어 살 집을 마련하여 정착하게 된 것이라 한다.

정철은 27세 때 문과로 관직에 나아가기 이전까지 10여 년 동안 호남의 사림회를 배경으로 학문과 교우의 폭을 차츰 넓혀, 그가 평생 흠모하여 마지않던 스승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등에게 배우는 한편, 그에게 문을 가르쳤던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 시의 스승이었던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45세 정월에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받고 부임했는데, 금강산, 관동팔경 등을 돌아보고 가사 「관동별곡」을 지었으며 백성 교화의 목적으로 연시조 「훈민가」를 지었다. 58세에 논척(論斥)을 받고 물러나 강화도에서 죽었다.[20]

---

18) 훈민(訓民)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시조 작품을 연구자에 따라 훈민시조(訓民時調), 교훈시조(敎訓時調)라고 하였다. 최홍원은 오륜사상이라는 목적으로 만든 시조를 '오륜시조(五倫時調)'라고 하였다. 최홍원, 「「오륜가」와 출처(出處)의 얼굴:주세붕의 「오륜가」와 박인로의 「오륜가」의 거리」, 『국어국문학』 163호, 국어국문학회, 2013, 315쪽 참조.

19) 김하나, 「교훈 시조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55쪽.

2. 구린담과 라자 알리 하지

1) 구린담의 개념과 특징

구린담은 인도 영향을 받았다. 서기 100년에 힌두교 신자가 인도에서 '키린담(kirindam)'이라는 작품을 가져왔다. 구린담이라는 단어가 인도어로 '짝이 있는 속담'이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와서 기능이 조금 달라졌다. 고전문학에서 구린담은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의 연작시'로 되었다. Za'ba에 따르면 구린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노래로 부를 수 있거나 마지막 1행의 토막의 마지막 글자나 모음이 똑같아야 한다. 둘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가 많다. 셋째, 유머가 가끔 있다. 넷째, 샤이르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수수께끼나 산문으로 만든 구린담도 있다. 다섯째, 옛날부터 있었다.[21]

구린담(Gurindam)은 1연 2토막, 1토막 3~6음보의 충고, 교훈적인 내용의 연작시다. 첫 토막은 문제이고 둘째 토막은 답이다. 인도네시아 작가 라자 알리 하지가 처음으로 구린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다.[22] 제일 유명한 구린담

---

20)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2012, 225-255쪽.

21) Za'ba, 『Ilmu Mengarang Melayu』, DBP, 1965, 242쪽.

22) 라자 알리 하지가 정의한 구린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dalah beda antara gurindam dengan syair itu, aku nyatakan pula. Bermula erti syair Melayu itu perkataan yang bersajak yang serupa dua berpasang pada akhirnya dan tiada berkehendak pada sempurna perkataaan pada satu-satu pasanganya, bersalahan dengan gurindam. Adapun erti gurindam itu iaitu perkataan yang bersajak juga pada akhir pasangannya tetapi sempurna perkataannya dengan satu pasangannya sahaja. Jadilah seperti sajak yang pertama itu syarat dan sajak yang kedua itu seperti jawab. Bermula inilah rupanya syair.
구린담과 샤이르는 다르다고 하였다. 구린담과 달리 샤이르는 1연에 2짝이 있지만 관련이 없어서 완벽하지 않다. 구린담은 1연에 2짝 시이지만 관련된 연이라서 완벽했다. 샤이르는 이렇게 된다.

Dengarkan tuan satu rencana-mengarang di dalam gundah gulana
barangkali gurindam kurang kena-tuan betulkan dengan sempurna.
걱정할 때 지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들어보세요

작품은 바로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이다. 작가는 구린담 양식으로 시민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쳤다. 이슬람 코란은 아랍어를 사용해서 보통 시민들이 읽지 못해서 간단한 문학 작품으로 소개했다. 그래서 「12장 구린담」에는 이슬람 가치가 많다. 라자 알리 하지는 특별하게 백성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교화한 것이 있다. 구린담 주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교훈 구린담이 있다.

2) 라자 알리 하지의 생애

라자 알리 하지(1809-1873)는 프능앗섬(Penyengat Island)의 지도자이고 여러 나라를 다녔고 아랍까지 다녀왔다. 이슬람교의 전문가이고 궁의 일과 관련하여 왕과 장관들은 라자 알리 하지를 찾아서 지도를 달라고 하였다. 문학뿐만 아니라, 라자 알리 하지는 법학, 종교, 사학, 언어학과 사전학으로도 유명하다.[23] 라자 알리 하지는 인도네시아 고전문학사에서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대작가라고 할 수 있다.[24]

라자 알리 하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와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32세 때

구린담이 마음에 안 들으면 선생님, 완벽하게 고치세요.

Inilah erti gurindam yang di bawah satar ini.
구린담은 이렇게 된다.

Persimpanan yang indah-indah-iaitulah ilmu yang memberi faedah
aku hendak bertutur-akan gurindam yang teratur.
아름다운 보관이야 - 혜택을 주는 지식이야
난 말하고 싶어 - 완벽한 구린담으로
Abu Hassan Sham,『Puisi-Puisi Raja Ali Haji』, Dewan Bahasa dan Pustaka Kementerian Pendidikan Malaysia, 1993, 277-282쪽.

23) Jan van der Putten, 「On Sex, Drugs, and Good Manners: Raja Ali Haji as Lexicographer」,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제33집, 2002, 415-430쪽.

24) Abu Hassan Sham,『Puisi-Puisi Raja Ali Haji』, Dewan Bahasa dan Pustaka Kementerian Pendidikan Malaysia, 1993, 84쪽.

라자 알리 입니 라자 자파르(Raja Ali ibni Raja Ja′afar)라는 사촌하고 링가(Lingga) 지역의 지도자가 되었다. 젊었을 때부터 종교 학자가 되어서 리아우(Riau) 지역에서 이슬람 고문이 되었고 궁인들도 라자 알리 하지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였다. 라자 알리 하지가 많이 유명했기에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도 알고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라자 알리 하지는 너무 종교적 광신도라서 기독교와 네덜란드인을 많이 싫어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가 인정해도 싫어했다.[25]

1870년대 라자 알리 하지는 리아우 지역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에 위험한 사람이었다. 라자 알리 하지는 이슬람교를 잘 따라서 기독교와 식민지 정부를 싫어했다. 라자 알리 하지는 백성들에게 교육이 중요해서 의식을 잘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26] 라자 알리 하지는 시를 지은 작가보다 산문을 지은 작가로 유명했다. 그렇지만 산문 안에도 시 작품이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래와 시 문학이 산문보다 더 유명했기 때문이다. 리아우(Riau)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이슬람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작품에 종교와 교훈이 많이 있다.[27]

백성들에게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12장 구린담」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백성에게 코란을 가르쳤다.[28] 이슬람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도 신경을 썼다. 식민 정부에게 학교를 지어 달라는 편지까지 쓴 적이 있었다.[29] 라자 알리 하지 작품에는 종교에 따라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많이 있다.[30]

---

25) Anthony Reid와 David Marr, 『Perceptions of the Past in Southeast Asia』, Th.Sumartana 역, 『Dari Raja Ali Haji Hingga Hamka』, Grafiti Press, 1983, 100-104쪽.

26) Anthony Reid와 David Marr, 위의 책, 102-108쪽.

27) Abu Hassan Sham, 『Puisi-Puisi Raja Ali Haji』, Dewan Bahasa dan Pustaka Kementerian Pendidikan Malaysia, 1993, 264-265쪽.

28) Ding Choo Ming, 「Local Wisdom in Malay Manuscripts」, 『Resonance』, 2009, 18-22쪽.

29) Jan van der Putten, 「Of Missed Opportunities, Colonial Law, and Islam-phobia」,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제34집, 2006, 345-362쪽.

III. 「훈민가」와 「12장 구린담」의 내용 비교

정철은 16수 「훈민가」를 45세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서 1년 동안에 지었다. 정철은 고을 수령으로서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가득차 있었던 듯하다. 다시 말하면 「훈민가」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시조이다. 내용을 보면, 오륜과 이웃과의 관계, 농사 일 등 농촌에서의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 1수부터 5수까지 오륜을 말하고 6수부터 이웃이나 벗과의 인간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다. 정철은 자신을 목민관의 높은 위치에 두지 않고 백성들의 이웃으로서 생활의 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듯한 설정을 지속한다. 8수부터는 가족관계를 넘어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16수는 다시 당위적 규범이 아니라 자연적 본성에 호소함으로써 시 전체의 통일성을 회복하고 있다.[31]

라자 알리 하지가 살았을 때는 인도네시아 반도는 네덜란드 식민지라서 외국 문화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 사상을 막기 위해 「12장 구린담」을 만들었다. 종교와 관련된 작품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방식, 친구 관계, 그리고 임금-신하 관계까지도 있다. 라자 알리 하지는 이슬람교 철학으로 살면 나중에 알라께 축복을 빌 수 있다고 여겼다. 학자와 관리로서 라자 알리 하지는 백성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다.[32] 「12장 구린담」은 12장이 있고 각 장은 다른 생활법을 설명한다. 라자 알리 하지의 구린담은 왜 열 두 장이 있는 것인가? Irwandra에 따르면 일 년이 12개월이어서 12개월 동안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라자 알리 하지의 작품들은 종교와 생활 방식을 관련하는 작품이라서 몇 편인지도 상

30) Irwandra, 앞의 글, 25-36쪽.

31) 신연우, 「주세붕(周世鵬)에서 정철(鄭澈)로 훈민시조의 변이와 그 의의」, 『溫知論叢』 제38집, 1998, 33-61쪽.

32) Irwan Djamaluddin, 『Mengisi Roh ke Dalam Jasad』, Navila, 2007, 1-2쪽.

징적이다.[33]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은 1846년에 만들었지만 1854년에 처음 출판되었다.[34] Irwan에 따르면 「12장 구린담」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35]

장	주제	분류
1	4개의 기초지식: 종교(이슬람교), 알라신, 자기모습, 세상 그리고 내세	믿음
2	기도, 자캇, 순례를 해야 하는 예배	예배
3	몸 안에 있는 기능을 잘 지키기	도덕
4	마음이 중요해서 잘 지키기	도덕
5	좋은 환경에서 잘 사귀기	도덕, 인간 관계
6	친구, 선생, 아내, 신하를 구하는 조건	도덕, 인간 관계
7	좋고 나쁜 행동과 결과	도덕, 인간 관계
8	말하는 것 잘 지키기	도덕, 인간 관계
9	악마 입구를 방지하기	도덕, 인간 관계
10	가족 및 친구 관계	도덕, 인간 관계
11	지도자의 의무와 행동	도덕, 인간 관계
12	나라의 생활과 알라신에게의 의무	믿음, 도덕, 인간 관계

1. 사상에 대한 내용 비교

두 시가의 전체 구성과 관련해서, 「훈민가」와 「12장 구린담」의 작가는 첫 번째 부분에서 똑같이 자기의 사상을 설명한다. 「훈민가」는 1수부터 5수까지 유교의 오륜을 설명하고, 「12장 구린담」은 1장과 2장에서 이슬람교와

33) Irwandra, 위의 글, 25-36쪽.

34) 네체르(Netscher)는 1842년에 바타비아(오늘날 자카르타)라는 도시로 와서 네덜란드 식민정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1850년에 헤르만(Herman Neubronner van der Tuuk)이라는 언어학자와 친구가 되었다. 언어학에 관심이 많아지고 1853에 The Society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말레이어와 인도네시아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리아우 지역에 있는 시를 번역해서 The Society의 논문집에 출판했다. 1847년에 라자 알리 하지가 「12장 구린담」을 만들어서 네체르가 1854년에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었다. Jan van der Putten, 앞의 글, 345-362쪽 참조.

35) Irwan Djamaluddin, 앞의 책, 207-208쪽.

예배를 설명한다. 중간 부분에서 두 작품은 똑같이 도덕과 인간관계를 설명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훈민가」가 나라일과 자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2장 구린담」은 믿음, 도덕, 그리고 인간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지만 나라의 생활과 알라신에게의 의무를 말한다.

「훈민가」와 「12장 구린담」의 첫 번째 부분의 내용 비교는 다음과 같다.

「훈민가」 (1~5수)[36]	「12장 구린담」 (1~2장)
아버님 날 나ᄒᆞ시고 어머님 날 기ᄅᆞ시니 두 분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실가 한ᄂᆞᆯ 곳ᄃᆞᆫ ᄀᆞ 업슨 은덕을 어ᄃᆡ 다혀 갑ᄉᆞ오리 형아 아ᄋᆡ야 네 ᄉᆞᆯ흘 만져 보아 뉘손ᄃᆡ 타나관ᄃᆡ 양ᄌᆞ조차 ᄀᆞᄐᆞᆫ다 한 졋 먹고 길러 나이셔 닷ᄆᆞᄋᆞᆷ을 먹디 마라 님금과 ᄇᆡᆨ셩과 ᄉᆡ 하ᄂᆞᆯ과 ᄯᅳ하로ᄃᆡ 내의 셜운 이ᄅᆞᆯ 다 아로려 ᄒᆞ시거든 우린ᄃᆞᆯ ᄉᆞᆯ진 미나리ᄅᆞᆯ 혼자 엇디 머그리 어버이 사라신 제 셤길 일란 다 ᄒᆞ여라 디나간 後ㅣ면 애ᄃᆞ라 엇디ᄒᆞ리 평ᄉᆡᆼ애 고텨 못ᄒᆞᆯ 이리 잇 ᄲᅮᆫ인다 ᄒᆞ노라 ᄒᆞᆫ 몸 둘혜 ᄂᆞ화 부부ᄅᆞᆯ 삼기실샤 이신 제 ᄒᆞᆷ끠 늙고 주그면 ᄒᆞᆫ ᄃᆡ 간다 어ᄃᆡ셔 망녕의 ᄉᆡ시 눈 흘긔려 ᄒᆞᄂᆞ뇨	종교가 없는 자 - 이름도 없다. 네 가지를 아는 자 - 마리팟이라고 한다. 알라신을 아는 자 - 알라 신의 명령과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자기를 아는 자 - 알라신을 알게 된다. 세계를 아는 자 - 속는 것을 안다. 내세를 아는 자 - 죄가 많은 세계를 안다. 신을 아는 자 - 두려움 뜻을 안다. 기도를 안 하는 자 - 기둥이 없는 집처럼 된다. 금식을 안 하는 자 - 두 세계에서 살 수 없다. 자캇을 안 하는 자 - 축복을 받지 못 할 것이다. 하지를 안 하는 자 - 약속을 못 지킨다.

정철과 하자 알리 하지는 관리자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상을 가르쳐야 하는 생각이 있다. 정철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유교다운 시조로 유교와 윤리를 가르쳤다. 유교는 윤리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삼강오륜[37]이 생겼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

36)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2012, 225-255쪽.

이,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륜에 다 있다. 오륜은 바로 군신유의(君臣有義: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부지유친(父子有親: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한다), 부부유별(夫婦有別: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長幼有序: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붕우유신(朋友有信:친구와 친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이다. 1수부터 5수까지 보면 수마다 오륜을 말하는 것이다. 즉, 부자유친, 붕우유신, 군신유의, 장유유서 그리고 부부유별이다.

반면에 라자 알리 하지는 이슬람교를 가지고 이슬람교다운 구린담으로 이슬람교 가치와 예배 방법을 가르쳤다. 제1장을 통해 라자 알리 하지는 인간을 만든 마리팟에 대해 설명한다. 마리팟이라는 말은 이슬람교에만 나오는 말이다. 이슬람교 철학은 타사우프(Tasawuf)[38]라고 한다. 마리팟은 바로 타사우프의 대들보이다. 마리팟은 샤리아(syari'at), 타리까(tarikat), 하끼까(hakikat) 및

37)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에게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맹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부자간에는 정이 있어야 하고, 군신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장유간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붕우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면서 오륜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비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임금은 의롭고 신하는 충직하며,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유순하며,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공손하며, 봉우는 서로 인자함을 키워준 뒤라야 비로소 그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황, 『처음 읽는 한문: 계몽편, 동몽선습』, 안나푸르나, 2015 참조.

38) 타사우프는 수피즘이나 이슬람의 신비주의 사상이라고도 한다. 수피즘에는 이슬람의 율법을 준수하는 '샤리아'의 단계와 영적 수행이라는 내적 접근로를 걸어나가는 '타리까'의 단계,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는 '하끼까', 영적인 지혜를 얻는 '마리파'의 단계를 확립해 놓고 있다. 샤리아는 영적 수행의 첫 번째 단계이며 다음의 세 단계를 위한 기초가 된다. 두 번째 단계인 타리까는 '신비로운 길' 또는 '신께 가는 길'이라는 뜻이며, 신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수행에 몰두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인 하끼까는 샤리아와 하끼까의 단계를 거쳐 얻게 되는 신비적인 진리 또는 신의 현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다. 마지막 단계의 마리파는 하끼까에 도달한 결과로 얻어진 영지, 즉 신에 대한 앎 또는 진리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뜻한다. 김관영,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 수피즘(Sufism)의 본질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20권0호, 한국동서철학회, 2000, 277-315쪽 참조.

마리파(makrifat)이다.[39] 제2장을 보면 이슬람교의 다섯 기둥[40]과 금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슬람교에서 일 년에 라마단이라는 신성한 달에 이슬람 신자들은 금식해야 한다. 그 때 금식을 안 하면 세상이나 내세에서 살 수 없고 지옥만 갈 수 있다는 뜻이다.

2. 도덕과 인륜에 대한 내용 비교

중간 부분은 도덕과 인륜을 말한다. 정철의 「훈민가」를 보면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훈민가」는 6수부터 14수까지이며, 「12장 구린담」은 3장부터 11장까지이다. 「훈민가」와 「12장 구린담」 중간 부분은 다음과 같다.

「훈민가」 (6~14수)	「12장 구린담」 (3~11장)
가난히 가ᄂᆞᆫ 길흘 ᄉᆞ나히 에도ᄃᆞ시 ᄉᆞ나희 네ᄂᆞᆫ 길흘 계집이 치도ᄃᆞ시 제 남진 제 계집 아니어든 일홈 ᄆᆞᆺ디 마으려 네 아ᄃᆞᆯ 효경 닑더니 어도록 ᄇᆡ환ᄂᆞ니 내 아ᄃᆞᆯ 쇼ᄒᆞᆨ은 모ᄅᆡ면 ᄆᆞᄎᆞᆯ로다 어ᄂᆡ 제 이 두 글 ᄇᆡ화 어딜거든 보려뇨 ᄆᆞᄋᆞᆯ 사ᄅᆞᆷᄃᆞᆯ하 올ᄒᆞᆫ 일 ᄒᆞ쟈ᄉᆞ라 사ᄅᆞᆷ이 되어 나셔 올티곳 목ᄒᆞ면 ᄆᆞ쇼ᄅᆞᆯ 갓 곳갈 ᄉᆡ워 밥 머기나 다ᄅᆞ랴	눈을 잘 지켜야 - 원하는 것이 조금이다. 귀를 잘 지켜야 - 나쁜 소식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혀를 잘 지켜야 - 혜택을 받는다. 손을 열심히 잘 지켜야 - 무겁거나 가볍다. 배가 너무 부르면 - 안 되는 일을 한다. 중간에 기억해야 - 그 때 정신이 나간다. 발을 잘 지켜야 - 나쁜 일을 안 한다. 마음은 몸의 왕국이야 - 잘림을 하면 다 쓰러지다. 부러움이 심하면 - 화살이 나온다. 욕하거나 칭찬할 때 생각해야 - 그 때 사람들이 무

39) Abu Hassan Sham, 『Puisi-Puisi Raja Ali Haji』, Dewan Bahasa dan Pustaka Kementerian Pendidikan Malaysia, 1993, 92쪽.

40) 이슬람의 다섯 기둥은 샤하다(shahada), 살라트(salat), 자카트(zakat), 사움(sawm) 그리고 하즈/메카 순례(hajj)이다. 샤하다는 알라신이 유일신(唯一神)이며 무함마드가 그 예언자임을 반복하여 외우는 신앙 고백이다. 살라트는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것이다. 자카트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를 주는 것이다. 사움은 라마단 달에 무슬림들이 낮에는 금식해야 되며 담배 피우고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시각이다. 하즈는 메카 순례하는 것이다. Andrew Rippin, 『Muslim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 Routledge, 2005, 103쪽 참조.

	시하기 때문이다. 화나면 변호하지마라 - 정신이 나간다. 조금이라도 거짓말 하면 - 입이 더럽다. 손해가 많이 있는 자 - 자신을 모르는 자이다. 조금이라도 인색하지마라 - 큰 도둑이 된다. 크게 된 자 - 버릇없게 하지마라. 나쁜 소리를 하는 자 - 입이 침의 곳이 된다. 자기 잘못을 알아야 - 다른 자가 이야기 안 한다. 안 되는 일을 하지마라 - 죽기 전에 반 몸이 죽지 않는다.
풀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티리라 나갈 ᄃᆡ 겨시거든 막대 들고 조ᄎᆞ리라 鄕飮酒 다 罷ᄒᆞᆫ 후에 뫼셔 가려 ᄒᆞ노라	문명 사람을 알고 싶으면 - 마음과 언어를 봐야 한다.
ᄂᆞᄆᆞ로 삼긴 듕의 벗 ᄀᆞᆺ티 유신ᄒᆞ랴 내의 왼 이를 다 닐오려 ᄒᆞ노매라 이 몸이 번님곳 아니면 사ᄅᆞᆷ 되미 쉬울가	행복한 사람을 알고 싶으면 - 작은 일을 잘 해야 한다. 귀족을 알고 싶으면 - 행동을 봐야 한다. 유식하는 자를 알고 싶으면 - 지루 없이 질문하고 공부해야 한다.
어와 뎌 족해야 밥 업시 엇디홀ᄉᆞᆫ 어와 뎌 아자바 옷 업시 엇디홀ᄉᆞᆫ 머흔 일 다 닐러ᄉᆞ라 돌보고져 ᄒᆞ노라	합리적인 자를 알고 싶으면 - 세계에서 공급을 잡아야 한다. 착한 자를 알고 싶으면 -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봐야 한다.
네 집 상ᄉᆞ돌흔 어도록 ᄎᆞᆯ호ᄉᆞᆫ다 네 ᄯᆞᆯ 셔방은 언제나 마치ᄂᆞᆫ다 내게도 업다커니와 돌보고져 ᄒᆞ노라	약이 될 수 있는 친구 - 구하라. 나쁜 일을 알려주는 선생 - 구하라. 순정적인 부인 - 구하라. 충실한 친구 - 구하라. 예의가 있는 신하 - 구하라.
오ᄂᆞᆯ도 다 새거나 호믜 메고 가쟈ᄉᆞ라 내 논 다 ᄆᆡ여든 네 논 졈 ᄆᆡ여 주마 올 길헤 ᄲᅩᆼ 따다가 누에 먹겨 보쟈ᄉᆞ라	
비록 못 니버도 ᄂᆞᄆᆡ 오ᄉᆞᆯ 앗디 마라 비록 못 머거도 ᄂᆞᄆᆡ 밥을 비디 마라 ᄒᆞᆫ 적곳 ᄠᅴ 시른 ᄀᆡ면 고텨 싯기 어려우리	말이 많으면 - 거짓말 입구이다. 기쁨이 많으면 - 슬픔 입구이다. 계획이 부족하면 - 잘못 될 입구이다. 자식에게 교육을 안 시키면 - 크게 되면 아버님이 피곤하시다. 조롱이 많으면 - 자기가 부족하다. 잠이 많으면 - 나이가 소용없다. 소식을 들으면 - 참아야 하다. 불평을 들으면 - 질투가 난다. 부드럽게 말하면 - 다른 사람이 따라한다. 막말하면 - 다른 사람이 화를 난다.

	적당히 일하면 - 문제가 없다. 자기에게 배신하는 자 -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정철의 「훈민가」를 보면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오륜을 설명해서 그 다음 부분은 형제, 남녀, 자녀의 공부, 옳은 일, 친척, 농사, 죄까지 설명하는 것이다.[41]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은 몸에 있는 기능, 마음의 중요함, 좋은 환경, 친구, 선생, 아내, 신하, 좋고 나쁜 행동, 말하는 것, 행동, 악마, 가족과 친구관계, 그리고 지도자의 의무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마지막 부분에 지도자의 행동과 나라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3. 국가와 제도에 대한 내용 비교

마지막 부분은 국가와 제도를 이야기한다. 정철의 「훈민가」를 보면 15수에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한다. 「12장 구린담」은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소개한다. 「12장 구린담」은 12장에만 있다. 「훈민가」와 「12장 구린담」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훈민가」 (15~16수)	「12장 구린담」 (12장)
상늑 장긔 ᄒᆞ디 마라 쇵ᄉᆞ 글월 ᄒᆞ디 마라 집 배야 므슴ᄒᆞ며 ᄂᆞᄆᆡ 원슈 될 줄 엇디 나라히 법을 셰우샤 죄 인ᄂᆞᆫ 줄 모로ᄂᆞᆫ다 이고 진 져 늘그니 짐 프러 나ᄅᆞᆯ 주오 나ᄂᆞᆫ 졈엇씨니 돌히라 므거울가 늘거도 설웨라커든 지믈 조차 지실가	같은 민족 - 친절하라. 나쁜 일을 버려라 - 머리로 되라. 배신을 버려라 - 권한을 잡아라. 화날 때 - 행사를 먼저 해라. 창피를 당하기 싫으면 - 남을 어리둥절하게 하지 마라.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 예의를 가져라. 왕과 장관 논의할 때 - 가시 울타리 공원 같다.

41) 김하나, 『교훈 시조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8-30쪽.

	왕이 좋은 마음은 가지면 - 일을 잘 한다. 백성에게 공정한 법 - 왕이 도움을 받은 상징이다. 지식이 많은 자가 종경을 받아야 - 알라 신도 사랑하시다. 현자를 존경해야 - 사랑을 아는 상징이다. 죽음을 생각내야 - 효(孝)의 기원이다. 맹인이 아닌 마음 - 내세가 진짜이다.

정철의 「훈민가」는 15수에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한다. 나라는 법이 있으니 백성들이 그 법을 잘 따라야한다. 그리고 내기 장기라는 것을 하면 원수가 될 수 있으니 안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철은 윤리를 다시 말한다. 늙은이를 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유교의 장유유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을 보면 백성이 임금이나 관리자에게 어떻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지도자가 백성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지도자는 백성의 하인이니 백성들에게 서비스를 잘 주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결론

조선시대 주요 사상은 유교이고,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주요 사상은 이슬람교이다. 두 나라의 주요 사상은 다르고 나라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나라의 비교는 필요하다. 두 나라 문학이 물론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갈래도 다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교류를 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철의 「훈민가」와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을 가지고 비교해 보았다. 「훈민가」는 물론 조선 시대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12장 구린담」은 인도네시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다. 서로 다른 사상

과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문학으로서 어떤 방식과 교훈이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두 작품은 기본적으로 '교화 또는 포교'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공통점이 있다. 또한 정철과 라자 알리 하지가 자기 지역의 리더이니 비슷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 작품을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훈민가」와 「12장 구린담」은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과 목적이 유사하다.

<참고문헌>

고영훈 외,『인도네시아 문학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3-5쪽.

국어국문학회,『한국시조감상』, 보고사, 2011.

김관영,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 수피즘(Sufism)의 본질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20권0호, 한국동서철학회, 2000, 277-315쪽.

김상술,『아빠가바르 인도네시아』, 그린누리, 2010, 25쪽.

김창원, 「조선전기 시조사의 시각과 경기체가」,『韓國詩歌硏究』제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1, 309-336쪽.

김하나, 『교훈 시조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8-30쪽, 55쪽.

김학성,『한국고전시가의 전통과 계승』,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56쪽.

金興圭,『韓國文學의 理解』, 民音社, 1991, 44쪽.

나병철,『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214-219쪽.

성호경,『시조문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17-18쪽, 110-111쪽, 187-188쪽, 214쪽.

민족문학사연구소,『새 민족문학사 강좌1』, 창비, 2009, 215-216쪽.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2012, 225-255쪽.

신연우, 「주세붕(周世鵬)에서 정철(鄭澈)로 훈민시조의 변이와 그 의의」, 『溫知論叢』제38집, 1998, 33-61쪽.

양승윤, 『인도네시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255-257쪽.

이재황,『처음 읽는 한문: 계몽편, 동몽선습』, 안나푸르나, 2015.

조동일,『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14, 34-42쪽.

최홍원,「<오륜가>와 출처(出處)의 얼굴:주세붕의 <오륜가>와 박인로의 <오륜가>의 거

리」, 『국어국문학』 163호, 국어국문학회, 2013, 315쪽.
테레시아 마가렛,「주세붕의 <오륜가>와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Abu Hassan Sham,『Puisi-Puisi Raja Ali Haji』, Dewan Bahasa dan Pustaka Kementerian Pendidikan Malaysia, 1993, 84쪽, 92쪽, 264-265쪽.
Andrew Rippin,『Muslim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 Routledge, 2005, 103쪽.
Anthony Reid와 David Marr,『Perceptions of the Past in Southeast Asia』, Th.Sumartana 역, 『Dari Raja Ali Haji Hingga Hamka』, Grafiti Press, 1983, 100-108쪽.
Ding Choo Ming,「Local Wisdom in Malay Manuscripts」,『Resonance』, 2009, 18-22쪽.
Irwan Djamaluddin,『Mengisi Roh ke Dalam Jasad』, Navila, 2007, 1-2쪽, 207-208쪽.
Irwandra, 「Relasi Tuhan-Manusia: Pendekatan Antropologi Metafisik Terhadap Gurindam Dua Belas Karya Raja Ali Haji」, 『An-Nida'』 제38집, 2013, 25-36쪽.
Jan van der Putten, 「Of Missed Opportunities, Colonial Law, and Islam-phobia」,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제34집, 2006, 345-362쪽.
Jan van der Putten, 「On Sex, Drugs, and Good Manners: Raja Ali Haji as Lexicographer」,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제33집, 2002, 415-430쪽.
Subagio Sastrowardoyo,『Sastra Hindia Belanda dan Kita』, Balai Pustaka, 1990, 11-20쪽.
Za'ba,『Ilmu Mengarang Melayu』, DBP, 1965.
http://kbriseoul.kr/kbriseoul/index.php/ko 2016년 12월 22일.

〈Abstract〉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Hunminga」 by Jeongcheol and 「12 Gurindam」 by Raja Ali Haji

Theresia Margareth

This paper theme is poem's comparative view of 「Huminga」 from Jeongcheol and 「12 Gurindam」 from Raja Ali Haji. 〈Hunminga〉 was written by Jeongcheol in 16 centuries. This is an education poem that was made to educate the Joseon people. The sijo was made based on Confucianism and the people's daily life thus use daily language which make the people easy to understand. In another hand, 「12 Gurindam」 was written by Raja Ali Haji in 19 centuries. He used the old Indonesian poetry style for educating the people. He used literature and daily language so that the people can understand Islam easily. I would like to compare these two education poems because they have similar purpose, educating the people. In the part II, I would like to explain abou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sijo as well as the Jeongcheol's short biography. And I would like to explain abou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gurindam as well as the Raja Ali Haji's short biography. I would like to compare the poems in part III and make the conclusion in part IV.

Keywords : Sijo, Jeongcheol, Gurindam, Raja Ali Haji, Indonesia, Literature Comparative

이 논문은 2017년 01월 08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17년 01월 11일부터 2017년 01월 19일까지 심사를 하고,
2017년 01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붙임〉

Gurindam Dua Belas Oleh Raja Ali Haji
라자 알리 하지의
「12장 구린담」

말레이어	한국어
Barang siapa tiada memegang agama – sekali-kali tiada boleh dibilangkan nama. Barang siapa mengenal yang empat – maka itulah orang ma′rifat. Barang siapa mengenal Allah – suruh dan tegahnya tiada ia menyalah. Barang siapa mengenal diri – maka telah mengenal akan Tuhan yang bahri. Barang siapa mengenal dunia – tahulah ia barang yang terpedaya. Barang siapa mengenal akhirat – tahulah ia dunia mudarat.	종교가 없는 자 – 이름도 없다. 네 가지를 아는 자 – 마리팟이라고 한다. 알라신을 아는 자 – 알라 신의 명령과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자기를 아는 자 – 알라신을 알게 된다. 세계를 아는 자 – 속는 것을 안다. 내세를 아는 자 – 죄가 많은 세계를 안다.
Barang siapa mengenal yang tersebut – tahulah ia makna takut. Barang siapa meninggalkan sembahyang – seperti rumah tiada bertiang. Barang siapa meninggalkan puasa – tidaklah mendapat dua termasa. Barang siapa meninggalkan zakat – tiadalah hartanya beroleh berkat. Barang siapa meninggalkan haji – tiadalah ia menyempurnakan janji.	신을 아는 자 – 두려움 뜻을 안다. 기도를 안 하는 자 – 기둥이 없는 집처럼 된다. 금식을 안 하는 자 – 두 세계에서 살 수 없다. 자캇을 안 하는 자 – 축복을 받지 못 할 것이다. 하지를 안 하는 자 – 약속을 못 지킨다.
Apabila terpelihara mata – sedikitlah cita-cita. Apabila terpelihara kuping – khabar yang jahat tiadalah damping. Apabila terpelihara lidah – nescaya dapat daripadanya faedah. Bersungguh-sungguh engkau memeliharakan tangan – daripada segala berat dan ringan.	눈을 잘 지켜야 – 원하는 것이 조금이다. 귀를 잘 지켜야 – 나쁜 소식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혀를 잘 지켜야 – 혜택을 받는다. 손을 열심히 잘 지켜야 – 무겁거나 가볍다. 배가 너무 부르면 – 안 되는 일을 한다. 중간에 기억해야 – 그 때 정신이 나간다. 발을 잘 지켜야 – 나쁜 일을 안 한다.

Apabila perut terlalu penuh – keluarlah fiil yang tiada senonoh. Anggota tengah hendaklah ingat – di situlah banyak orang yang hilang semangat. Hendaklah terpelihara kaki – daripada berjalan yang membawa rugi.	
Hati kerajaan di dalam tubuh – jikalau zalim segala anggota pun roboh. Apabila dengki sudah bertanah – datanglah daripadanya beberapa anak panah. Mengumpat dan memuji hendaklah pikir – di situlah banyak orang yang tergelincir. Pekerjaan marah jangan dibela – nanti hilang akal di kepala. Jika sedikitpun berbuat bohong – boleh diumpamakan mulutnya itu pekung. Tanda orang yang amat celaka – aib dirinya tiada ia sangka. Bakhil jangan diberi singgah – itulah perompak yang amat gagah. Barang siapa yang sudah besar – janganlah kelakuannya membuat kasar. Barang siapa perkataan kotor – mulutnya itu umpama ketur. Di mana tahu salah diri – jika tidak orang lain yang berperi. Pekerjaan takbur jangan direpih – sebelum mati didapat juga sapih.	마음은 몸의 왕국이야 – 잘림을 하면 다 쓰러지다. 부러움이 심하면 – 화살이 나온다. 욕하거나 칭찬할 때 생각해야 – 그 때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이다. 화나면 변호하지마라 – 정신이 나간다. 조금이라도 거짓말 하면 – 입이 더럽다. 손해가 많이 있는 자 – 자신을 모르는 자이다. 조금이라도 인색하지마라 – 큰 도둑이 된다. 크게 된 자 – 버릇없게 하지마라. 나쁜 소리를 하는 자 – 입이 침의 곳이 된다. 자기 잘못을 알아야 – 다른 자가 이야기 안 한다. 안 되는 일을 하지마라 – 죽기 전에 반 몸이 죽지 않는다.
Jika hendak mengenal orang berbangsa – lihat kepada budi dan bahasa. Jika hendak mengenal orang yang berbahagia – sangat memeliharakan yang sia-sia. Jika hendak mengenal orang mulia – lihatlah kepada kelakuan dia. Jika hendak mengenal orang yang berilmu – bertanya dan belajar tiadalah jemu. Jika hendak mengenal orang yang berakal – di dalam dunia mengambil bekal.	문명 사람을 알고 싶으면 – 마음과 언어를 봐야 한다. 행복한 사람을 알고 싶으면 – 작은 일을 잘 해야 한다. 귀족을 알고 싶으면 – 행동을 봐야 한다. 유식하는 자를 알고 싶으면 – 지루 없이 질문하고 공부해야 한다. 합리적인 자를 알고 싶으면 – 세계에서 공급을 잡아야 한다. 착한 자를 알고 싶으면 –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봐야 한다.

Jika hendak mengenal orang yang baik perangai - lihat pada ketika bercampur dengan orang ramai.	
Cahari olehmu akan sahabat - yang boleh dijadikan ubat. Cahari olehmu akan guru - yang boleh tahukan tiap seteru. Cahari olehmu akan isteri - yang boleh menyerahkan diri. Cahari olehmu akan kawan - pilih segala orang setiawan. Cahari olehmu akan abdi - yang ada baik sedikit budi.	약이 될 수 있는 친구 - 구하라. 나쁜 일을 알려주는 선생 - 구하라. 순정적인 부인 - 구하라. 충실한 친구 - 구하라. 예의가 있는 신하 - 구하라.
Apabila banyak berkata-kata - di situlah jalan masuk dusta. Apabila banyak berlebih-lebihan suka - itulah tanda hampirkan duka. Apabila kita kurang siasat - itulah tanda pekerjaan hendak sesat. Apabila anak tidak dilatih - jika besar bapanya letih. Apabila banyak mencela orang - itulah tanda dirinya kurang. Apabila orang yang banyak tidur - sia-sia sahajalah umur. Apabila mendengar akan khabar - menerimanya itu hendaklah sabar. Apabila mendengar akan aduan - membicarakannya itu hendaklah cemburuan. Apabila perkataan yang lemah-lembut - lekaslah segala orang yang mengikut. Apabila perkataan yang amat kasar - lekaslah orang sekalian gusar. Apabila pekerjaan yang amat benar - tidak boleh orang berbuat onar.	말이 많으면 - 거짓말 입구이다. 기쁨이 많으면 - 슬픔 입구이다. 계획이 부족하면 - 잘못 될 입구이다. 자식에게 교육을 안 시키면 - 크게 되면 아버님이 피곤하시다. 조롱이 많으면 - 자기가 부족하다. 잠이 많으면 - 나이가 소용없다. 소식을 들으면 - 참아야 하다. 불평을 들으면 - 질투가 나다. 부드럽게 말하면 - 다른 사람이 따라한다. 막말하면 - 다른 사람이 화를 난다. 적당히 일하면 - 문제가 없다.
Barang siapa khianat akan dirinya - apa lagi kepada lainnya. Kepada dirinya ia aniaya - orang itu jangan engkau percaya. Lidah yang suka membenarkan dirinya -	자기에게 배신하는 자 -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자기를 박해하는 자 - 믿을 수 없는 자이다. 자기만 옳다는 혀 -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주는 자이다.

daripada yang lain dapat kesalahannya. Daripada memuji diri hendaklah sabar – biar daripada orang datangnya khabar. Orang yang suka menampakkan jasa – setengah daripada syirik mengaku kuasa. Kejahatan diri sembunyikan – kebajikan diri diamkan. Keaiban orang jangan dibuka – keaiban diri hendaklah sangka.	자기를 칭찬하지 말자 – 소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친절을 보여주는 자 – 힘을 보여주는 자이다. 범죄를 숨기자 – 선(善)을 고요하게 된다. 다른 사람 망신을 열지 마라 – 자기 망신을 찾아라.
Tahu pekerjaan tak baik tetapi dikerjakan – bukannya manusia iaitulah syaitan. Kejahatan seorang perempuan tua(h) – itulah iblis punya penggawa. Kepada segala hamba-hamba raja – di situlah syaitan tempatnya manja. Kebanyakan orang yang muda-muda – di situlah syaitan tempat berkuda. Perkumpulan laki-laki dengan perempuan – di situlah syaitan punya jamuan. Adapun orang tua yang hemat – syaitan tak suka membuat sahabat. Jika orang muda kuat berguru – dengan syaitan jadi berseteru.	나쁜 일을 알고도 하는 자 – 사람이 아니라 악마이다. 늙은 여자의 짓 – 악마의 지도자이다. 왕의 신하 – 껴안은 악마이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 – 악마의 유혹이 있다. 남자와 여자의 모임 – 악마의 연회이다. 절약한 어른 – 악마가 싫다. 공부를 많이 하는 젊은이 – 악마와 싸운다.
Dengan bapak jangan durhaka – supaya Allah tidak murka. Dengan ibu hendaklah hormat – supaya badan dapat selamat. Dengan anak janganlah lalai – supaya boleh naik ke tengah balai. Dengan istri dan gundik janganlah alpa – supaya kemaluan jangan menerpa. Dengan kawan hendaklah adil – supaya tangannya jadi kapil.	아버지에게 불리하지 마라 – 알라 신께서 화가 나지 못 한다. 어머니에게 존경하라 – 살아날 수 있다. 자식을 방치하지 마라 – 시청 안으로 갈 수 있다. 부인과 첩을 잊지 마라 – 창피가 오지 못 한다. 친구에게 공정하라 – 손에 지혜가 있다.
Hendaklah berjasa – kepada yang sebangsa. Hendaklah jadi kepala – buang perangai yang cela. Hendaklah memegang amanat – buanglah khianat. Hendak marah – dahulukan hujah.	같은 민족 – 친절하라. 나쁜 일을 버려라 – 머리로 되라. 배신을 버려라 – 권한을 잡아라. 화날 때 – 행사를 먼저 해라. 창피를 당하기 싫으면 – 남을 어리둥절하게 하지 마라.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 예의를 가져라.

Hendak dimalui - jangan memalui. Hendak ramai - murahkan perangai.	
Raja mufakat dengan menteri - seperti kebun berpagarkan duri. Betul hati kepada raja - tanda jadi sebarang kerja. Hukum adil atas rakyat - tanda raja beroleh inayat. Kasihkan orang yang berilmu - tanda rahmat atas dirimu. Hormat akan orang yang pandai - tanda mengenal kasa dan cindai. Ingatkan dirinya mati - itulah asal berbuat bakti. Akhirat itu terlalu nyata - kepada hati yang tidak buta.	왕과 장관 논의할 때 - 가시 울타리 공원 같다. 왕이 좋은 마음은 가지면 - 일을 잘 한다. 백성에게 공정한 법 - 왕이 도움을 받은 상징이다. 지식이 많은 자가 종경을 받아야 - 알라 신도 사랑하시다. 현자를 존경해야 - 사랑을 아는 상징이다. 죽음을 생각내야 - 효(孝)의 기원이다. 맹인이 아닌 마음 - 내세가 진짜이다.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의 시조교육 효과 연구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한 실험수업을 중심으로-

박 광 옥 · 이 명 애 · 이 지 양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시조를 활용한 실험수업을 통해 시조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조교육 원리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학교육의 의의 특히 시조교육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수업 실시 전에 참가자들의 문학 및 시조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 전원이 문학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학교육이 문화이해와 언어 표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문학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요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지 않게 매우 높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구성과 재미있는 수업방식이 기대됨을 보였다.

시조의 상호텍스트성을 교육방안의 구성 원리로 삼아, 문화 간 텍스트성으로 도입하기, 작품 간 텍스트성으로 작품 제시하기, 작품 내적 텍스트성으로 내면화하기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고급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2회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다. 중국 정형시인 절구와 일본 정형시인 하이쿠를 문화 간 텍스트성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한국 정형시인 시조의 형식과 내용을 상호 문화적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하였다. 같은 주제의 고시조와 현대시조 작품을 제시하여 작품 간 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통시적으로 내용, 표현법 및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작품의 내면화 과정에서는 작품 내적 텍스트성을 적용하여 시조 작품의 내용과 주제와 학습자 자신의 경험이 만나는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찾는 주체적 읽기를 하였다. 주제를 선택해 주어진 형식에서 시조를 지으면서 실제 작품 창작의 경험을 하였다.

시조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 후 자기평가지로 자신의 향상도를 인지와 정의 영역에서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육경험을 한 자신에 대한 평가이자 성찰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평가지 결과 외에도 수업관찰, 설문지, 확인

* 가톨릭대학교

질의 등으로 질적 분석을 병행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두 가지 통합 분석을 통해 시조 수업이 학습자들의 언어, 문학/문화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시조라는 문학 장르를 한국언어문화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실험수업 방안을 설계하고 수업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한 시도라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시조, 시조교육, 문학교육, 한국언어문화교육, 상호텍스트성, 상호문화, 실험수업, 요구조사, 자기평가

Ⅰ. 머리말

본고는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 시조를 활용한 실험수업을 통해 시조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조교육의 원리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의 기본 전제로서 두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문학이 외국인 대상 언어문화교육에 가져다주는 효용성과 특히 시조문학이 함의하는 가치이다.

첫째, 한국문학이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이다. 먼저 문학과 언어의 관련성부터 살펴보자. 문학은 실현매개체인 언어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1] 문학에서 쓰이는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일상어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문학어는 현실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시적 허용이나 비유, 상징 등의 문법적 일탈이 언급되기도 하나 이는 일상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2] 따라서 문학을 통해 일상어의 풍부한 용례를 찾아

1) 김현수, 『테리 이글턴의 문학이론입문』, 인간사랑, 2006, 15-40쪽. 문학은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글'이라는 내용에 의미를 두기보다 '일상언어를 변형하고 낯설게 만든 언어집합체'라는 언어자체에 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생소함을 통해 경험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 주는 데 문학의 의의를 두고 있다.

익힐 수 있다.

또한, 문학은 작가 개인에 의해 개성적으로 창조된 언어활동이다. 자신만의 언어스타일로 자기정체성 구현이라는 언어의 목적을 달성한다. 문학은 관습적으로 유지되어 온 언어의 특성인 일상성과 개별적이고 발산적인 창의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둘 사이의 긴장 가운데 특정한 맥락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운용하는 법을 보여준다. 문학 안에서 어휘의 선택, 문장의 구성, 주제의 전개 등 효율적인 방식이 추구된다. 이러한 일상성·창의성·적절성·효율성 등은 문학의 특징이면서 본질적으로 언어활동의 능력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는 문학이라는 언어운용모델을 경험함으로써 한국어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3)]

둘째, 문학이 한국문화교육에 필요한 이유이다.[4)] 문학은 작가가 초점을 맞춘 시대와 사회의 인공물과 습관 뿐 아니라 정신문화를 반영하고 있다.[5)]문학은 시

2) 이창봉.「은유를 통한 '기쁨'의 이해」, 『인간연구』 제20권, 가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2011, 198-201쪽. Lakoff & Johnson에 의하면 은유는 어떠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언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은유는 인간의 사고와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3)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0, 129-140쪽. 언어의 일상성과 창조성의 관계를 보편성을 고수하려는 구심력과 일탈을 추구하는 원심력 간의 역학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4) 윤여탁,「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 제14권 제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32-134쪽. 일상 언어와 대중 매체에서는 찾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언어인 문학 언어에 주목하고 전반적인 언어 능력의 향상 외에 문학 자체 교육의 의의 또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외국인학습자가 교육 대상이므로 문학 언어의 일상성에 보다 주목하여 적절한 언어 사용의 모델로서의 문학을 교육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5) 문화의 정의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다. 이제는 문화 관련 연구를 할 때 연구자 나름으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거쳐야할 첫 관문이 되었다. 본고는 박종한(2012:2013)의 역동모델을 따르고자 한다. 이는 문화정의에 관한 통시적 메타연구들을 다시 재분석하여 인공물, 습관, 기능 등 세 가지로 최종적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특히 유기체와 같이 끊임없이 작용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역동성을 강조한다. 본고는 덧붙여, 문 화를 정신의 소프트웨어라고 한 Hofstede(1980)와 같이 정신 영역에 보다 주목한다. -박종한,「문화의 정의: 하나

공의 제약을 넘어선 인류 공통의 보편성을 기저에 담으면서도 시대와 지역적 특수성을 함유한다. 따라서 문학교육을 통해 문학이 함유하는 사상, 가치관, 태도 등을 여러 각도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실제자료의 하나인 문학작품을 통해 적절한 언어사용뿐만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한 문화를 만나고 배우게 된다. 한국언어문화교육의 목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간 적응능력의 향상이다.[6]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적응능력을 위해 문학은 언어가 창의적으로 사용되고 문화가 함축된 교육제재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 문학장르 가운데 시문학 특히 시조가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겠다. 주지하듯이 시조는 800여년의 역사를 지닌 현존 최고(最古)의 한국 문학으로서 현재까지 향유되는 유일한 시형식이고 한국시가 역사상 최단형의 정형시이다.[7] 교육적으로, 3행으로 이루어진 단형성에서 창작과 기억의 용이성을 찾을 수 있다. 약 5,000수가 남아있고 현대시조로도 전승되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쉽게 지어 왔음을 알 수 있다.[8]

의 통합적 정의를 찾기 위한 두 번의 거대한 도전」, 『중국어문학논 집』 제76권,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443-80쪽.
박종한, 「문화 연구와 교육의 정초를 위한 탐색적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83권, 중국어문학연구회, 2013, 523-58쪽.
Hofstede, G.,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1980.

6) 이명애·박광옥·이지양, 「한국문화교육에서의 문화지능 적용 연구-'문화적 선입견 다루기' 전략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12권 제4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6, 152-154 쪽.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외국어와 외국문화의 하나로서 객관화시키고 교육의 목표를 의 사소통과 문화 간 적응에 대한 능력의 관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7) 원용우, 『우리시대의 문학과 인생』, 국학자료원, 2011, 22-23쪽. '시조는 고려 말경 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오랜 생명력을 지니면서 전승되어 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시가이다. 3·4 또는 4·4조를 기본 율조로 하고 우리 민족의 사상, 감정, 체험 등을 담기에 가장 알맞은 그릇으로서 형식은 3장6구12절의 정연한 형태를 가진 정형시'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8)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2007, 7쪽. 개화기까지 포함하여 옛시조는 총 5,492수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시조는 시작과 더불어 오랫동안 창으로 불리어 왔기에 음악적 리듬이 있다. 리듬이 내재되어 있어 낭송하면 재미를 느끼고, 두 어절(1구)씩 끊어 읽기 곧 한국어의 기본 율격 단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이러한 리듬은 노래와 같은 효과를 지니므로 사용된 언어의 내용과 형식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치 '삼행시 짓기'가 첫 글자에 맞춰 3행으로 즉흥적으로 짓듯이, 시조 역시 형식에 맞춰 조금만 훈련하면 초·중·종장으로 어렵지 않게 창작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문학사적 의의를 꺼내지 않더라도 시조에는 수많은 정서, 주제, 이야기가 들어있다. 여기에서 인류 보편성과 한국전통의 특수성을 모두 찾을 수 있고,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조의 역사성(한국 고유의 정형시), 단형성, 리듬감, 즉흥성, 주제의 다양성 등에서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 언어와 문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황인교(1998), 윤여탁(2002), 장문정(2008) 등의 요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이 모두 높다. 다만 문화작품이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므로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고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강경희·강승혜(2015)가 지적하듯,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 중반 이후에야 시작되었고 목표설정, 교육과정, 방법론 연구 등에서 체계적 통합이 아직 부족하다. 강충화(2013)[9]와 매영(2014)은 교재분석을 통해 문학작품을 활용한 교육 활동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작품 선정과 내용 구성이 교재별로 차이가 많음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 문학의 의의 특히 시조교육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학습자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상호텍스트성[10]

9) 5개 대학교재를 분석한 결과, 다루는 문학작품 수, 장르 간 분포, 급수 간에 교재별로 차이가 심해 표준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전체 교재 가운데 시조의 경우 연세대 교재와 이대 교재에서 총 4편만을 다루고 있다.

10)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교육』, 박이정, 2010, 96-98쪽. 상호텍스트성을

을 중심으로 수업원리와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2차에 걸쳐 중고급반 대상으로 활동 중심의 시조 실험수업을 한다. 실험수업의 효과를 자기평가 설문 결과와 수업 관찰 기술 등으로 통합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 시조교육의 원리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데에 본고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시조의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한마디로 텍스트간의 상호관련성이다. '속', '사이', '상호' 등을 의미하는 'inter'와 씨실과 날실로 짜여있다는 의미를 지닌 'text'가 결합된 조어이다. 한 텍스트 안에 이전이나 동시대의 다른 텍스트들의 영향으로 존재하는 어떤 관련성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한 시대의 문화 형태들과의 상호관련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초기 형성된 상호텍스트성은 언어기호로 이루어진 텍스트들이 서로 영향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지칭하였다. 이후 점차 넓어진 의미에서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뿐 아니라, 텍스트내의 주체들 간이나 텍스트와 사회문화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총체적 연결 현상에 대해서도 포괄한다. 소쉬르의 기호학과 바흐친의 문학이론에서 비롯한 상호텍스트성은 범위가 모든 사회문화적 국면에서의 관계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요컨대, 사람들 사이의 모든 의사소통은 근본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텍스트성은 교육 특히 문학교육에 적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하나의 텍스트를 분리하여 그 자체로만 교육의 객체로 두기보다 다중텍스트를 활

처음 이론화한 것은 바흐친의'대화주의'다. 대화의 '다성성(多聲性)'을 상호텍스트성'개념으로 정리한 사람은 크리스테바(1966)이다. 다성성은 한 작품 안에 다양한 의식이나 목소리들이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특성이고, 상호텍스트성은 한 텍스트가 이전 또는 동시대 담화의 영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용하여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적용하고 다양한 관계성 안에서 이해하며 학습자 자신 안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활용해 나간다면 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11]

상호텍스트성을 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위범주화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Irwin의 세 가지 텍스트성[12]을 외국인 학습자 대상 시조교육에 응용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명칭과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장르 간 비교를 통해 텍스트 의미를 구성하는 문화 간 텍스트성(intercultural textuality),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작품 간 텍스트성(intertextuality), 그리고, 텍스트 내부 요소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독자와의 소통을 다루는 작품 내 텍스트성(intratextuality) 등으로 구분하였다.

문화 간 텍스트성은 시조의 경우 중국의 한시, 일본의 하이쿠 등 각 국가 고유의 정형시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 간 텍스트성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주의의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문화 간에 대화와 상호작용을 하는 적극적으로 열린 문화적 자세이다.[13] 외국인 학습자에게 자국

---

11) Whitehead, A.N.,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The Free Press,1929, p.14, 오영환, 『교육의 목적』, 궁리출판사, 2004, 18쪽. 교육은 지식 활용의 방법을 알게 하는 데에 궁극적 목표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곧, 삶에서의 활용이다.

12) 김도남, 앞의 책, 135쪽에서 재인용. Irwin(1991)은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하는 읽기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텍스트 내부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내적 관계 텍스트성(intratextuality),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상호관계 텍스트성(intertextuality), 텍스트 외부에 있는 내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외적 관계 텍스트성(extratextuality)이다.

13) 이명애·박광옥·이지양, 앞의 글, 154쪽. 한국문화교육의 방향을 상호문화주의로 둔다. 다 양한 문화 간의 단순 병렬이 아닌 '대면'을 강조한다. 문화 간 주체로서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공존 공영하고자 하는 속성을 밝힌다. 이를 위한 기본원리로 문화 간의 만남과 대화, 곧 문화 간의 적극적 소통을 언급하고 있다.

에서 배웠던 정형시를 환기하고 텍스트 간 상호성을 인정하며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를 배울 때, 상호 존중하는 대화적 자세에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의 시조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며, 스키마로 존재하는 문학능력[14]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문학수업이 갖추어야할 조건[15] 중 학습자들의 모국에서 문학적 체험과 현실적인 한국에서의 문학체험이 연속성을 이루어 문학경험이 확장되는 효과를 이룰 것이다.

작품 간 텍스트성은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관련성으로, 이전의 혹은 동시대의 다른 텍스트와 맺는 상호성이 여기에 속한다. 작품간 텍스트의 동시적 관계로는 문답형 시조들에서 볼 수 있다. 또는 통시적으로 동일 주제를 다룬 고시조 작품과 현대 시조 작품을 같이 제시하여 비교 또는 대조하며 행간을 읽을 수 있다.

작품 내 텍스트성은 시조 작품의 내부 요소들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학습자의 읽기과정 안에서 다룬다. 작품 내 텍스트성은 시조 작품 내에서 화자와 청자가 맺는 관계에서 여러 목소리 유형으로 드러난다. 대화체 시조가 대표적이며 독백체의 시조에도 '아희야~'와 같이 청자를 두고 있다. 학습자가 작품에서 화자와 청자의 목소리를 찾고 그들과 내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시조 창작활동으로 시조 형식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작품의 자기 내면화[16]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14) 고정희, 「배경지식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 연구-「도산십이곡」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 제138권, 한국어교육학회, 2012, 175쪽. 문학능력이 문학의 구조에 대한 인지능력으로 시공간적 특수성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대 독자가 고전문학이 창작되던당시의 독자가 지닌 암묵지의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도 텍스트의 규칙을 잘 관찰하는 가운데 자신의 해석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15) 구인환, 『문학교육론』 제4판, 심지원, 2003, 270쪽. 문학수업은 학생들의 문학적 체험과 현실적 체험과의 연속성에 대해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6) 김도남, 앞의 책, 96쪽. 내면화에 이르는 바람직한 활동의 하나로 텍스트의 상호성에 대한 배려를 들고 있다. 단일 텍스트 자체의 범주만으로는 내면화 과정의 심화를 기대하기어렵다. 작품을 통해 알게 된 가치를 학습자의 전 인격적 가치로 관련짓기 위해서는 관련 텍스트와

본고에서도 상호텍스트성 원리를 기반으로 다중텍스트를 수업에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시조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갖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Ⅲ.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한 시조 실험수업

본 연구에서 실험수업을 통해 밝히고자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한 시조수업이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문학 이해력, 표현력, 정의영역 등에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한 시조수업이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언어문화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1. 실험수업의 구성

실험 수업은 2016년 10월에 1주 1회 50분씩, 총 2회 100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실험수업 전에 설문지 문항으로 참가자들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20대 중국인 7명으로 C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학생들이다. 이들 모두 학문목적으로 한국에 온 경우로 최소 5년 한국에 거주하였으며 거주기간과 한국어학습기간이 거의 일치한다. 7명 모두 대학부설 한국어교육센터에서 1년간 중급 수준까지 학습하였다. 이후 진입한 학부과정에서는 단 한 명만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였고 나머지 5명은 컴퓨터공학, 심리학, 의류학 등 한국어와는 무관한 학과를 다녔다. 한국어교육을 대학원 전공으로 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취업을 위해 한국어 수준을 높이고 싶다는 응답이 5명, 중국에서 한국어교사를 지망한다는 응답이 2명에 해당되었다.

상호 연결하여 작품을 읽음으로써 내면화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학습기간에 비해 토픽으로 측정된 한국어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의 경험이 적어서라고 답변하였다. 이들은 현재 한국문학론연구라는 과목을 수강 중이며 시조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필자의 수업을 1회 수강한 경험이 있다. 참가자들의 정보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조 실험수업 참가자 정보

	성별	국적	한국어 학습기간	한국어 수준 (TOPIK)	문학관련 수업 경험	시조 수업 경험
1	여	중국	6년	4급	현재 학기 수강 중 ('한국문학론연구')	작년 1회
2	남	중국	7년	6급		
3	여	중국	6년	5급		
4	여	중국	5년	4급		
5	여	중국	7년	4급		
6	여	중국	5년	6급		
7	남	중국	6년	5급		

실험수업을 담당한 교사는 국어교사로 한국어교육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다른 연구자 1인은 한국어강의 경력 5년차 강사로 한국어교육학 대학원 과정에 있다. 실험수업을 관찰하면서 일지에 기록하였고 사후 설문지 실시 이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별 질의로 보충 기재하였다.

수업 전에 참가자들의 문학 및 시조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설문지로 실시하였다. 실험수업 예상 참가자가 초기에 10명이어서 설문지 회수가 10부가 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어수업에서 '문학수업을 받은 경험'(작년 필자의 시조 수업 제외)에 대해 단 세 명만이 소설, 우화를 배운 기억이 있다고 하였고 '흥미도'에서는 약간 있었거나(2명) 어려웠다(1명)고 응답하였다. '문학수업이 필요한가? "

라는 질문에는 10명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매우 필요하다' 7명, '약간 필요하다' 2명, 어휘가 현실에 안 맞으므로 '별로 필요치 않다'는 응답이 1명),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는, '문화 이해에 도움 될 것이다.'(7명)와 '언어 표현에 도움 될 것이다.'(2명)라고 하였다.

수업에서 다뤄지기를 원하는 장르로는 소설 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대본에 대해서도 전원이 선택하였다.(복수 표시 가능하다는 전제로 '소설'/'영화대본'/'드라마대본' 10명, '시' 4명). 이는 현대 대중매체에 담겨진 글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문학수업이 적당할 것 같은 한국어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중급부터가 적절하다'는 대답이 5명으로 '고급 단계만이 가능하다'는 4명에 비해 많았다. 희망하는 실시 횟수에 대해서는 '주 1회 두 시간'을 선택한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주 2회' 4명) 시조수업에 대해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적 배경을 보다 잘 알 것 같다.', '수업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등 관심을 나타내면서 흥미 있는 수업을 바라고 있었다. 문학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요구는 선행연구와 다르지 않게 매우 높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구성과 재미있는 수업방식이 기대됨을 보여 주었다.

수업 시 다룰 작품 선정에는 대표성, 역사성, 작가, 주제, 형식, 문학사적 의의 외에도 학습자와 교사 변인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한시의 경우, 중국의「의무교육 어문과정 표준문건」의 『한시 115』를 참조하여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와 학습자가 같이 알 수 있는 쉬운 작품을 선정하였다. 자연을 노래한 맹호연의 「춘효」와 그리움의 노래인 왕유의 「상사」를 선정하였다. 고시조 작품으로는 문학정전 목록[17]에 실린 시조 가운데 주제와 평이성을 고려하여 「십년을 경영하여」와 「동짓달 기나긴 밤을」을 선정하였다. 고시

17) 윤여탁·유영미·박은숙,「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목록 선정 연구-한국, 미국, 중국 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34권, 국어교육연구학회, 2014. 377쪽. 한국·미국·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용 한국문학 정전 목록을 참조하였다.

조에 사용된 고어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현대어로 풀이된 형태로 제시한다. 현대시조는 평시조 형식을 지닌 시조 중 다루고자 하는 고시조와 동일 주제의 쉬운 작품을 찾았다. 자연과 그리움을 주제로 각각 김양수의 「매미」와 이은상의 「개나리」를 선정[18]하였다.

실험대상 참가자들의 요구도를 바탕으로 시조 수업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시조의 형식, 내용, 주제, 정서에 대한 주체적 이해와 표현력 키우기로 정하였다. 다중텍스트를 활용하여 상호텍스트성을 요체로 수업을 전개하여 문화 간, 작품 간, 작품 내의 다양한 관계성에 주목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자신만의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상정해보고 시조 작문 활동을 하면서 보다 주체적으로 내면화하고 창조적 활용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평가(evaluation, assessment)에는 크게 두 가지, 평정(rating)과 진단(diagnosis)의 관점이 있다. 평정은 학습자를 판단하고 서열화하려는 결과 중심의 평가라면 진단은 학습자의 변화 정도와 교육효과를 점검하여 개선하려는 과정 중심의 평가이다. 문학교육에서 평가의 대상은 학습자의 문학능력이다. 문학능력은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며 언어와 문화 측면에서 창의적으로 의미구성을 하고 자신의 삶에서 통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19]

평가에서 문학능력을 일반적으로 이해와 표현, 곧 작품에 대해 수용하는 능력과 의미를 내면화하고 새롭게 재생산하는 능력으로 양분한다. 그러나 이해와 표현능력은 중첩적이고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이 둘의 구분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토의·글쓰기·이야기하기·경험 평가·자기 보고

18) 김양수의 「매미」는 〈초등학교 1-2 국어교과서〉 수록 작품이고 이은상의 「개나리」는 〈초등학생 시조 암송 추천 100수〉에 실린 작품이다.

19) 우한용, 「문학교육의 평가 메타비평의 글쓰기 평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00권, 한국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99, 544-546쪽. 염은열, 「학습자의 자기 이해를 위한 문학교육 평가 방안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제34권, 국어교육학회, 2009, 354-355쪽, 357쪽을 참조하여 통합하였다.

등으로 통합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안적 방법이 있다. 또는 문학교육 평가로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와 정의능력에 대한 평가로 양분하기도 한다. 이해·분석·해석 등을 다루는 인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데 비해, 감상·수용·소통 등과 연관된 정의적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쉽지 않다. 다루기 어려운 정의적 능력에 대해서는 면접·관찰·질문지·수행평가 등의 평가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20)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시조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평가를 설계하였다. 문학교육에 대한 평가로 계량적 방법과 질적인 분석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기술하여 학습자의 전체적인 진행상(狀)을 보이고자 하였다. 실험수업이 외국인 대상으로 단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학습자와 교육에 대한 평가로 평정보다는 진단의 의미를 강조하였다.21) 먼저 양적 평가를 위해 평가영역을 인지와 정의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인지측면을 다시 이해와 표현으로 나누어 문항을 설계하였다. 정의영역도 문항을 구성하여 평가에 포함하였다.22) 교사중심의 평가보다는 학습자중심의 평가를 지향하여 자기평가지를 통해 양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자기평가지로 구성한 평가영역에 관한 분류표이다.

---

20) 김창원, 「문학교육 평가론의 자기 성찰」, 『국어교육학연구』 제47권, 국어교육학회, 2013, 108-116쪽.

21) 여기서의 '진단'은 선술했듯이, 결과 중심의 '평정' 에 대비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의미하며 교육처치 이전에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는 일반적 의미의 진단평가와는 구별된다.

22) 고은진, 「영시의 반복적 패턴을 활용한 쓰기지도 방안」, 부산대학교 영어교육 석사학위 논문, 2011, 34-39쪽.정의적 영역 구성은 이것을 참조하였다. 영시의 쓰기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쓰기능력 평가와 더불어 정의적 영역을 흥미도, 자신감, 참여도, 필요성 이해 등 4가지로 분류, 자기설문 평가하여 전후 결과를 검증하였다. 본고에서는 단기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평가의 정의영역에서 흥미도와 필요성 인식 등 두 가지만을 포함하였다.

〈표 2〉평가영역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지영역	이해영역	형식 이해
		내용 이해
	표현영역	적용 표현
		창작 표현
정의영역	흥미도	
	필요성 인식	

평가 항목으로 시조의 리듬성과 3장 전개 형식에 대한 이해(문항①, ②), 문화 간·작품 간·작품 내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내용에 대한 이해(문항③-⑥), 자기경험에의 적용을 통한 표현(문항⑦)[23], 시조작문을 통한 표현(문항⑧)과 시조문학에 대한 흥미도(문항⑨), 시조 등 문학수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⑩) 등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점수는 5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2차시 수업 이후 참가자들이 설문지로 향상정도를 자가 평가하도록 하고 결과를 산출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다음은 수업 이후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자기평가표이다.

〈표 3〉 실험 수업 후 자기평가표

평가 항목	전혀 향상 되지 않았다	별로 향상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약간 향상 되었	매우 향상 되었

23) 염은열, 「학습자의 자기 이해를 위한 문학교육 평가 방안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제 34권, 국어교육학회, 2009, 357쪽. 자기평가 방법 가운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글쓰기로 서사의 다기(多岐)성을 통해 학습자의 주체적 태도, 자기 이해, 창의성 등을 함양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다	다
① 시조를 운율에 맞춰 리듬감 있게 읽을 수 있다.					
② 시조의 3장 형식을 이해할 수 있다.(제시-전개-주제)					
③ 시조를 다른 나라 시(절구, 하이쿠 등)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내용, 형식, 주제 면)					
④ 서로 다른 시조 간에 주제가 연결된 경우를 이해할 수 있다.					
⑤ 고시조, 현대시조를 보면서 같은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⑥ 시조를 읽고 작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⑦ 시조를 읽고 나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야기할 수 있다.					
⑧ 주제를 정해 시조 형식에 맞춰 창작할 수 있다. (부분 작문)					
⑨ 시조에 흥미를 느껴 더 배우고 싶다.					
⑩ 시조 등 문학을 수업에서 더 많이 다루어야 한다.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수업 과정을 관찰일지에 기록하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차시별로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가 반응하고 활동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수업 이후에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추가 확인 질의하여 서술하였다.

2. 실험수업의 전개

〈1차시〉

실험수업 1차시의 도입부에서 학습자의 모국문학 장르인 중국의 한시[24]인 절

24) 조동일, 「한시의 율격에 대한 민족어시의 대응」, 『대동문화연구』 제33권, 대동문화연구학회, 1998, 85쪽. 동아시아 민족어시들이 한시에서 분기되어 각 민족 고유의 양식으로 발전된 문학이며 한국의 향가와 시조, 일본의 하이쿠(和歌), 베트남의 國音詩 등을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구를 가장 먼저 제시한다. 학습자에게 익숙한 간체자로 된 한시를 제시하고 중국어로 낭독을 부탁한다. 한국어로 의미를 확인하고 절구의 형식과 역사적 의의를 환기한다. 정형시의 또 다른 예로 일본의 하이쿠 작품을 소개한다. 절구와 하이쿠와 더불어 한국의 시조를 제시하여 문화별 정형시들 간의 형식, 내용전개, 주제, 역사성 등에 대해 비교하며 이해한다.

전개에서는 작품 간 텍스트성을 적용하여 동일 주제의 고시조와 현대시조 두 편을 제시한다. 시조 작품들을 같이 읽고[25] 비교하면 서로의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고 작품들 간의 관계에서 환기되는 의미가 다양할 수 있다. 자연과의 관계를 노래한 고시조로 송순의「십년을 경영하여」와 현대시조로 김양수의「매미」를 제시하여 비교 대조하며 이해한다. 유사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언어표현, 작가의 사상, 생활상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찾아보고 이야기한다. 시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3장 6구라는 형식과 기-서-결이라는 내용 구성, 종장의 첫 어절 음수 지키기 등을 제시하였다. 자연물의 의인화와 의성어, 의태어 등의 수사법을 문맥 안에서 익힐 수 있다.

활동에서는 작품 내 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작품을 보다 내면화시켜 자신의 생각과 삶과 연계시킨다.

「매미」에서 화자가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선택과 이유를 서로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시조의 일부 어절을 비우고 개인별 주제를 정해 창작하여 쓰고 발표 감상하는 활동을 한다.

〈2차시〉

도입에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다룬 중국 절구 왕유의 「상사(相思)」를 제시하면서 학습자의 모문화와 모문학에 대한 스키마, 흥미와 자부심, 열린 마음

25) -김상진,「엮어 읽기를 통한 시조 학습지도 방안-고등학교 수업을 대상으로」,『국어교 육연구』제47권,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2010, 10쪽.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장점으로 시간의 효율성, 관심의 제고, 작품적 가치의 명료화를 들고 있다.

자세를 고취한다. 전개에서 황진이의 「짓달 기나긴 밤을」과 이은상의「개나리」를 함께 제시한다. 중국한시와 고시조, 현대시조에서 시대와 작가에 따라 사랑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본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는 임을 기다리는 절절함을 객관화시켜 적극적인 자세로 표현하였고, 「개나리」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직설적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전달하는데, 이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인 은근미의 발현이다. 대조적 의태어로 표현되는('서리서리', '굽이굽이')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감각을 경험한다. 현대시조인 이은상의「개나리」에서는 인물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편지의 발신과 수신을 하는 2명의 화자가 숨어 있음도 알 수 있다.

활동에서 작품의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 만약 내가 「개나리」에서 편지를 받은 화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하여 표현한다. 「개나리」 시조 틀에 맞추어 자유 주제를 정해 시조 짓기를 한다. 시조를 지어 봄으로써 시조의 형식과 구조를 경험적으로 익히게 된다. 시조의 창작 경험은 학습자의 문학적 창작이면서 문화체험이 되어 한국언어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지은 시조를 운율과 리듬을 살려 낭송하게 한다. 실험수업의 구성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실험수업의 구성 원리

문화 간 텍스트성	⇒	작품 간 텍스트성	⇒	작품 내적 텍스트성
도입		전개		활동
중국 절구, 일본 하이쿠, 한국 시조 같이 제시하여 문화 간 정형시의 형식과 의미, 주제 전개 등 상호 비교하기		동일 주제 고시조와 현대시조 작품을 같이 제시하여 비교, 대조하며 읽기		텍스트와 자신과 관계 맺으며 의미를 재구성하고 내면화하기, '나라면?' 상상하기. 시조 창작하고 발표하기

다음은 '시조 활용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1차시와 2차시 교수-학습안이다.

〈표 5〉 실험수업 1차시 교수-학습안

<table>
<tr><td>학습
목표</td><td colspan="3">자연친화적 고시조와 현대시조의 정서를 이해한다.
시조의 형식과 내용적 의미, 표현법을 이해한다.
시조 창작 통해 시조의 정형성을 내면화한다.</td><td>1차시</td><td></td></tr>
<tr><td colspan="6"></td></tr>
<tr><td>문화
간
텍스
트성</td><td>도입</td><td colspan="2">1. T:맹호연의 〈春曉〉입니다.
<table><tr><td>春眠不覺曉
處處聞啼鳥
夜來風雨聲
花落知多少</td><td>봄잠에 아침인줄 몰랐더니
여기저기 새우는 소리
밤새 비바람소리 들려
꽃은 얼마나 떨어졌을까</td></tr></table>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배운 적 있지요? 무슨 뜻인지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도 정형시가 있습니다.
<table><tr><td>古池や 蛙飛びこむ 水の音</td><td>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들자 /
물소리 풍덩</td></tr></table>T:형식이 어떤가요? 절구는 5언4행 20자로 된 중국의 정형시이고, 하이쿠는 5,7,5 1행 17자 음수율로 된 일본의 정형시입니다 .
한국의 정형시는 3장 6구 4음보 45자의형식을 지닙니다.</td><td>7'</td><td>ppt
자
료</td></tr>
<tr><td colspan="6"></td></tr>
<tr><td>작품
간
텍스
트성</td><td>전개</td><td colspan="2">2. 시조의 형식과 내용 상호텍스트적 이해하기
고시조 송순의 〈십년을 경영하여〉와
현대시조 김양수의 〈매미〉를 제시하고 읽게 한다.
<table><tr><td>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간 달 한간 청풍한간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td><td>숨죽여 살금살금 나무에 다가가서
한손을 쭈욱 뻗어 잽싸게 덮쳤는데
손안에 남아 있는 건 매암매암 울음뿐</td></tr></table>T:시조의 형식: 시조를 보며 음의 수를 빈칸에 채워봅시다.</td><td>20'</td><td></td></tr>
</table>

		<table><tr><td>3</td><td>4</td><td></td><td></td></tr><tr><td></td><td></td><td>3 / 4</td><td>4</td></tr><tr><td></td><td>5 / 6</td><td></td><td>4 / 3</td></tr></table> 3장 6구 4음보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시어의 특징 : 초려 삼간, 의태어, 의성어, 의인법		
작품 내 텍스트성	활동	3. 내면화하기 ※대상과의 대화: 말 걸기- 대답하기-의미 찾기 ·말 걸기: 매암매암 울음소리 ·대답하기: 성공적인 매미잡기 ·의미 찾기: 손안에 남아 있는 건 매미 울음 뿐 → 매미는 잡았을까? 놓쳤을까? → 내가 매미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4. 시조 창작하기 <table><tr><td>숨죽여</td><td>살금살금</td><td></td><td>다가가서</td></tr><tr><td></td><td>쭈욱 뻗어</td><td>잽싸게</td><td>덮쳤는데</td></tr><tr><td></td><td>남아 있는 건</td><td></td><td></td></tr></table> 5. 시조 발표하고 감상 나누기	23'	학습지

〈표 6〉 실험수업 2차시 교수-학습안

학습 목표 및 주제	그리움의 고시조와 현대시조의 정서를 이해한다. 시조의 형식과 내용적 의미, 표현법을 이해한다. 시조 창작을 통해 시조의 정형성을 내면화한다.	2차시	
문화간 텍스트성	도입	1. T:전 시간에 절구와 시조를 배웠지요 오늘의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table><tr><td>紅豆生南國 春來發几枝 愿君多采擷 此物最相思</td><td>홍두는 남쪽 나라에서 자라는데 봄이 왔으니 얼마나 피었을까 그대 홍두를 많이 따두세요 그것이 그리움에는 으뜸이라오.</td></tr></table> 王維의 〈相思〉입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무슨 뜻인지 번역할 수 있을까요? 홍두day도 있다지요? 그리움을 표현하는 시조들을 읽어봅시다.	7'	ppt

<table>
<tr><td>작품 간 텍스트성</td><td>전개</td><td>2. 고시조·현대시조 상호텍스트적 읽기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과 이은상의〈개나리〉를 함께 제시하여 낭송한다.
<table><tr><td>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td><td>매화꽃 졌다하신 편지를 받자옵고
개나리 한창이라 대답을 보내었소
둘이다 봄이란 말은 차마 쓰지 못하고</td></tr></table>
시어의 특징: 춘풍 이불, 의태어, 추상적 시간을 구체화</td><td>18'</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작품 내 텍스트성</td><td>활동</td><td>3. 내면화하기.
※대상과의 대화: 말 걸기- 대답하기-의미 찾기
·말 걸기: 매화꽃 졌다하신 편지 받기
·대답하기: 개나리 한창이라고 편지쓰기
·의미 찾기: 차마 쓰지 못한 말-봄
→소통의 어려움인가 은근한 소통인가?(한국문화의 은근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4. 시조 창작하기
<table><tr><td></td><td></td><td></td><td>받자옵고</td></tr><tr><td></td><td></td><td></td><td>보내었소</td></tr><tr><td>둘이다</td><td></td><td>차마 쓰지</td><td>못하고</td></tr></table>
5. 시조 발표하고 감상 나누기</td><td>25'</td><td>학습지</td></tr>
</table>

3. 실험 수업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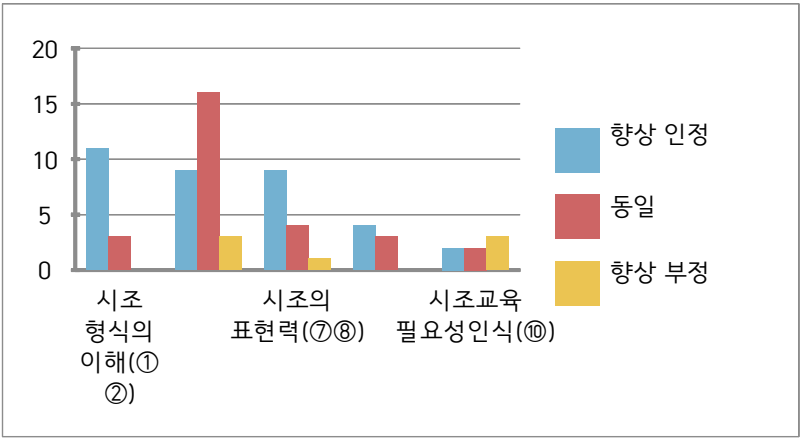
1) 양적 분석 결과

먼저 자기평가지의 결과이다. 시조 형식과 내용의 이해와 표현, 정의영역(흥미, 필요성 인식)으로 구성된 항목에 대하여 참가자들이 5점 척도로 스스로 향상된 정도를 표시하였다. 평가의 주체로 타인이 아닌 참가자 본인으로 설정한 자기평가의 경우 교육 이후 자신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반영한다. 또한 평가를 통해 자기 이해와 성찰의 시간을 갖는 데 의의가 있다. 질문지의 '매우 향상되었다'와 '약간 향상되었

다' 두 가지를 '향상 인정'으로 처리하고, '보통이다'를 '동일'로,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와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를 '향상 부정'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3등분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시조의 형식 이해 2문항, 시조의 내용 이해 4문항, 표현력 2문항, 정의영역에서 각각 흥미도 1문항, 필요성 인식 1문항 등 총 10문항을 유사성을 근거로 5개 영역으로 다시 범주화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다음은 5개 영역의 자기향상 평가지의 참가자 평균을 구하여 향상 인정, 동일, 향상 부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한 표와 도표이다.

〈표 7〉 수업 후 자기평가 결과 (합계인원/퍼센트)

	향상 인정	동일	향상 부정	합계
시조 형식의 이해(①, ②)	11(78.57%)	3(21.43%)	0(0.00%)	14(100%)
시조 내용의 이해(상호텍스트성 기반)(③-⑥)	9(32.14%)	16(57.14%)	3(10.72%)	28(100%)
시조의 표현력(⑦,⑧)	9(64.29%)	4(28.57%)	1(7.14%)	14(100%)
시조 흥미도(⑨)	4(57.14%)	3(42.86%)	0(0.00%)	7(100%)
시조교육 필요성인식(⑩)	2(28.57%)	2(28.57%)	3(42.86%)	7(100%)



〈그림 1〉 수업 후 자기평가 결과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조 형식의 이해, 시조 내용의 이해, 시조의 표현력, 시조에 대한 흥미도 등에서 수업 이후 자신이 향상되었다고 믿는 참가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이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 참가자가 많았다. 다만 시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수업 이전에 비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사전 요구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자기평가를 통해 참가자들은 수업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논할 수 있는 평가라기보다는 문학교육을 받은 참가자 입장에서 자신의 향상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평가를 통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데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질적 분석 결과

다음은 질적인 결과 제시이다. 수업관찰일지, 차시별 활동지와 설문에 대한 답변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활동 가운데 '만약 나라면?'에 대한 응답과 시조 작문 결과, 수업 후 반응을 주로 제시하고자 한다.

〈1차시〉

자연을 주제로 문화 간, 작품 간, 작품 내 상호텍스트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국가별로 고정된 형식을 갖춘 정형시가 있으며, 같은 제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비교하였다. 같은 시조 장르에서도 통시적으로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자신이 시조 내의 화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가정을 통해 자신의 삶으로까지 적용 확장하는 경험을 갖는다. 다음은 현대시조 「매미」에서 화자가 '만약 나라면…?'에 대한 참가자 응답의 일부이다.

"그냥 날아가게 할 거예요. 자유를 줄 거예요."
"잡지 않아요. 무서워요."
"소리만 듣고 있어요."
"날씨가 덥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름이니까."

다음으로 「매미」의 일부 어절을 비우고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창작하여 쓰기활동을 하였다. 강아지, 폭포, 애인, 은행 ATM 등 소재를 다양하게 창안하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별로 어렵지 않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음은 일부 참가자들의 시조 창작의 예이다.

숨죽여 살금살금 강아지에게 다가가서 양팔을 펼치는데 갑자기 도망갔어. 꼬리를 흔들면서 반짝반짝 웃고만 숨죽여 살금살금 그녀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뻗어서 급하게 덮쳤는데 품안에 남아 있는 건 은방울 같은 웃음뿐 숨죽여 주룩주룩 폭포에 다가가서	두 손을 쭈욱 뻗어 폭포를 만지려는데 손안에 남아 있는 건 아름다운 무지개뿐 숨죽여 살금살금 은행에 다가가서 한손을 쭈욱 뻗어 비밀번호 눌렀는데 손안에 남아 있는 건 만 원짜리 한 장 뿐

참가자들은 국가별 정형시 비교와 고전과 현대라는 통시적 비교, 그리고 시조 창작활동이 모두 처음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수업이후 설문지에서 진술한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재미있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고전시조를 알게 되고, 해석을 통해 시조의 배경과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정형시를 배웠다. 재미있는 느낌이 있다.",
"시조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시간이 있으면 시조를 한 번 더 읽고 싶다"
"자기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시조의 형식을 알 수 있다. 시조를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2차시〉

2차시에서 그리움을 주제로 한 중국의 절구, 한국의 고시조, 현대시조를 상호 비교하여 감상하였다. 다음은 현대시조 「개나리」에서 편지를 받은 화자가 '만약 나라면?'에 대한 학습자 응답의 일부이다.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할 것이다. 그러고 싶다."
"받은 편지와 같은 형식으로 화답할 것이다. 그래야 할 것 같다."
"직접 만나 이야기한다."

"보고 싶다고 대답한다."

다음으로 「개나리」의 시조 창작 쓰기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1차시보다 시조 작문에서 빈칸이 많아지고 '-자옵고', '-었소.'등의 고어적 표현이 그대로 있어도 개의치 않아 보였다. 편지 대신 꽃, 논문, 카톡, 문자 등 자신의 일상에서 주고받는 매개체를 설정하여 자신의 주제를 표현하였다. 다음은 일부 참가자의 쓰기 예이다.

생일이 됐다고 수국을 받자옵고 울금향 한창이라 대답을 보내었소. 둘이다 만나자 말은 차마 쓰지 못하고	논문의 신청서를 차마 쓰지 못하고 겨울철 온다하신 문자를 받자옵고 날씨가 춥지않다 대답을 보내었고
오늘은 바쁩니까 카톡을 받자옵고 아니야 쉬어라고 대답을 보내었고 둘이다 보고싶다 말은 차마 쓰지 못하고 교수님의 논문 지도를 받자옵고 다시 고쳐야할 부분을 보내었소.	다같이 놀자는 말은 차마 쓰지 못하고

다음은 참가자들이, 제시된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비교해서 서술한 예이다.

"고시조는 더 직접적으로 자기감정을 표현하고, 의태어가 많다."

"현대시조는 사랑에 대해 감정표현이 소극적이며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있다. 대화성이 있다."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시조수업을 한 결과 참가자들은 고시조와 현대시조에서 나타나는 작품의 내용, 수사법, 화자와 청자, 감정표현 등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찾으며 이해하였다. 감상의 주체로서 자신과 텍스트의 대화과정상에서 시조를 감상하였고, 나아가 자국의 정형시와 관련시켜 시조를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의 전통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만약 자신이 화자라면 다르게 반응할 거라며 자신만의 분명한 선택을 표명하였다. 시조 작문 활동 시간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필요한 어휘를 찾고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조 짓기를 하였다. 창작시조 발표시간에 서로의 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차에 걸쳐 작품 낭송할 때 2어절(1구)씩 끊고 리듬감을 살려 읽기에 향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수업의 연구문제들에 대한 결과를 통합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1〉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한 시조 수업결과로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언어, 문학/문화 이해력에 유의미한 향상이 이루어졌다. 수업 후 실시한 자기평가에서 시조에 나타나는 운율과 정형성에 대한 이해에서 향상을 보였다. 다중텍스트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문화 간, 작품 간, 작품 내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학습자 자신과의 경험과도 연관 지으며 창작 활동을 통해 문학을 삶의 영역으로 연결시켰다는 데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수업을 통해 시조에 흥미를 매우 많이 갖게 되었으며 이는 시조수업이 한국어수업에서 재미있고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였다. 정의 영역은 흥미도와 필요성을 다루었는데 시조와 문학, 문화 수업에 대한 흥미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필요성은 상승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이는 사전 점수가 이미 높은 경우이기 때문

으로 보인다. 병행한 질적 분석 결과를 보면, 참가자들은 시조의 주제와 형식을 문화와 통시적·공시적 시각에서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인식하였고 '나라면?'이라는 사고 확장하기와 시조 작문을 통해 내면화와 문학창작 활동을 흥미있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2〉 '상호텍스트성을 적용한 시조 수업'을 통해 시조라는 문학 장르를 한국언어문화교육에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를 타문화의 정형시와 비교문화적 시각에서 이해하거나 통시적, 공시적으로 다양한 시조와 연계시킬 수 있고 작품 내적 화자·청자 간이나 작품과 독자와의 상호텍스트성을 원리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교수-학습안를 참고하여 교육 현장에서 시조 수업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단형의 리듬 있는 대화적 정형시라는 시조의 교육적 이점이 활용되면 시조교육이 의사소통과 상호문화능력 향상이라는 한국언어문화교육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맺음말

문학은 언어의 일상성과 창조성 사이에서 최적합을 향한 언어운용의 모델이자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화를 함축한 그릇이다. 그 가운데 시조는 한국시문학 역사에서 최고봉의 위치에 있으면서 단형의 형식미와 리듬성을 지니고 있어 교육적 유용성이 높다. 다만,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연구과 실제에서 문학교육의 노정은 이제 첫걸음이 디뎌졌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시조 수업을 하여 교육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적용하기를 주장하기 위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시조의 상호텍스트성을 교육방안의 구성원리로 삼아, 문화 간 텍스트성으로 도입하기, 작품 간 텍스트성으로 작품 제시하기, 작품 내적 텍스트성으로 내면화하기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고급 외국인을 대상으로 2회 실험수업

을 실시하였다. 중국 정형시인 절구와 일본 정형시인 하이쿠를 문화 간 텍스트성으로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한국 정형시인 시조의 형식과 내용을 상호문화적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하였다. 같은 주제의 고시조와 현대시조 작품을 제시하여 작품 간 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통시적으로 내용, 표현법 및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작품의 내면화 과정에서는 작품 내적 텍스트성을 적용하여 작품 내용과 주제와 학습자 자신의 경험이 만나는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찾는 주체적 읽기를 하였다. 주어진 시조 틀에서 주제를 선택해 시조 짓기 활동으로 실제 작품 창작의 경험을 하였다.

시조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 후 자기평가지를 통해 자신의 향상도를 인지와 정의 영역에서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육경험에 대한 자가 평가이자 성찰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평가지 결과 산출 외에도 수업관찰, 설문지, 확인 질의 등으로 질적 분석을 병행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두 가지 통합 분석을 통해 시조 수업이 학습자들의 언어, 문학/문화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실험 수업이 단기로 제한된 상황에서 완전한 변인통제를 못하였고 통제집단 설정으로 비교 효과의 제시를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고는 시조라는 문학 장르를 한국언어문화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실험 수업을 하고 효과를 검증한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언어문화교육의 실정에 맞는 시조 교육 과정과 평가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것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자료

가도, 『한시 115』, 리북. 2013.
구인환, 『문학교육론』 제 4판. 심지원, 2003, 270쪽.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0, 129-140쪽.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교육』, 박이정, 2010, 96-98쪽, 135쪽.
김현수,『테리 이글턴의 문학이론입문』, 인간사랑, 2006, 15-40쪽.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2007, 7쪽.
원용우, 『우리시대의 문학과 인생』, 국학자료원, 2011, 22-23쪽
Whitehead, A.N.,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The Free Press,1929, p.14, 오영환, 『교육의 목적』, 궁리출판사, 2004, 18쪽.
Hofstede, G.,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1980.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2. 논저

강경희·강승혜, 「한국어문학교육 연구 현황과 동향 분석-유형 및 주제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11권 제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5, 31-32쪽.
강충화, 「한국어교육에서의 고전문학 활용과 교육-학문 목적 학습자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55-75쪽.
고은진, 「영시의 반복적 패턴을 활용한 쓰기지도 방안」, 부산대학교 영어교육 석사학위논문, 2011, 34-39쪽.
고정희, 「배경지식을 활용한 고전시가 교육 연구-「도산십이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38권, 한국어교육학회, 2012, 175쪽.
김상진, 「엮어 읽기를 통한 시조 학습지도 방안-고등학교 수업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연구』 제47권,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2010, 10쪽.
김창원, 「문학교육 평가론의 자기 성찰」, 『국어교육학연구』 제47권, 국어교육학회, 2013, 108-116쪽.
매영,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현황과 교육 방안 연구: 「운수 좋은 날」과 「낙타상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2-51쪽.
박종한, 「문화의 정의: 하나의 통합적 정의를 찾기 위한 두 번의 거대한 도전」, 『중국어문학논집』 제76권,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 443-480쪽.
박종한, 「문화 연구와 교육의 정초를 위한 탐색적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83권, 중국어문학연구회, 2013, 523-558쪽.
우한용, 「문학교육의 평가 - 메타비평의 글쓰기 평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00권, 한국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99, 544-546쪽.

윤여탁,「한국어교육에서 현대문학 정전연구」, 『국어교육연구』 제10권,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2002, 50-56쪽.

윤여탁,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 제14권 제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132-134쪽.

윤여탁·유영미·박은숙,「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정전목록 선정 연구-한국, 미국, 중국 을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 제34권, 국어교육연구학회, 2014. 377쪽.

이명애·박광옥·이지양 ,「한국문화교육에서의 문화지능 적용 연구-'문화적 선입견 다루기' 전략 을 중심으로-」,『언어와 문화』 제12권 제4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6, 152-154쪽.

이창봉. 「은유를 통한 '기쁨'의 이해」,『인간연구』 제20권, 가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2011, 198-201쪽.

장문정,「한국어 문학 교수요목 설계를 위한 요구 분석」, 『이중언어학』 제36권, 이중언어학회, 2008, 366-367쪽.

조동일,「한시의 율격에 대한 민족어시의 대응」,『대동문화연구』 제33권, 대동문화연구학회, 1998, 85쪽.

황인교,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이화어문논집』 제16권, 이화어문학회, 1988, 213-234쪽.

〈Abstract〉

A Study on the Pedagogical Value of Sijo Class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Focusing on Experimental Classes based on Intertextuality Principles–.

Park, Kwang-Ok, Lee, Myeong-Ae, Lee, Ji-Yang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value of Sijo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through experimental Sijo class to foreign students and its following effect. Before the experiment, we conducted participants' needs analysis. Then we constructed 2 time literary classes founded on Sijo's Intertextuality principles. The 3 factors of Intertextuality(Intercultural textuality, Intertextuality, and Intratextuality) are utilized into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final activity of the class in order. After the classes, we assessed the result of Sijo Instruction by the use of the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class observation note and interview, which showed the sijo literary class was very enjoyable and meaningfu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Sijo literary instruction can be very effectively adopted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Key words: Sijo, Sijo literary educati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Intertextuality, Intercultural textuality, Intratextuality, Self-evaluation, Experimental Class

이 논문은 2017년 01월 08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17년 01월 11일부터 2017년 01월 19일까지 심사를 하고,
2017년 01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이우걸 시조에 대한 고찰

유 순 덕 *

〈국문초록〉

시작법에 대한 명확한 자각으로 창작한 현대시조에는 서정성과 현대성이 어떻게 발현되었으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이우걸 시인의 시조를 살펴보았다. 서정시는 본질적으로 주관의 영역이지만 시적 발화는 개인적 주관성만이 아닌 사회적 보편성을 담보하게 되어, 일인칭 화자의 단일하고 고답적인 미감은 실제 현대시에서는 다양하게 굴절되어 나타난다.

본 논문은 먼저, 이우걸 시인의 서정시의 육화와 균형과 조화를 통해 정신주의를 추구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그는 관계라는 추상어를 작품으로 창작할 때에도 공허한 내면토로가 아닌 '각도'나 '칼날'과 같은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우걸 시인은, 시인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입과 눈과 귀를 지니고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자기갱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인은 자연인 일기, 계절 등을 매개로 할 때도 실직, 분단, 명예퇴직 등을 노래할 때에도 내면화를 통해 시대정신을 노래하였다. 또한, 사물을 새롭게 만나 형상화 할 때에도 대상에 대한 상상력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했다.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작품을 창작할 때에도 만년필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우걸 시인의 단시조는 조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되었다. 이미지와 간결체, 행갈이, 의미에 따른 행의 배치 등에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움을 추구한 면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시와 시조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시인의 시관은 자연스러운 행의 배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설시조에서는, 이병기와 조운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인은 열거와 반복을 통해 역동적인 리듬을 확보하며 시상의 고조와 점층적 효과를 통해 음악적 효과까지 노리며 작품을 엮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

* 경기대학교

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사십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현대시조의 내포와 외연을 넓히고 현대적인 기법들을 차용해 현대시조를 더욱 발전시킨 시인의 서정성과 현대적 기법이 발현된 작품들은 좋은 전범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제어: 서정시, 현대성, 육화, 시대정신, 서정성, 내면화, 상상력

Ⅰ. 서 론

이우걸 시인(1946-)[1]은 서정시 존재 근거를 '인간에 대한 끝없는 자기 질문'이라고 믿는다. 서정시는 궁극적으로 언어를 통해 언어가 갖은 한계로부터 해방되려는, 또는 언어를 씀으로써 언어를 더 이상 쓰지 않으려는 역설적 지점에 그 존재의 영역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인의 작품들은 전통시조에서와 같은 '자연'보다는 문명을 대상으로 노래하는데, 자연을 대상으로 노래할 때에도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와 시조를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고 서정시와 현대성과의 진정성 있는 교섭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그 결과 시인은 중앙시조대상 신인상

1) 이우걸은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에서 출생, 부곡 초등학교와 중학교, 밀양 세종고를 졸업한 뒤 경북대 사대 사회교육과를 입학한다. 대학시절인 1971년 학보에 「엽서」, 「코고무신」 등을 발표, 1972년 『월간문학』에 당선했으나 이영도 시인의 권유로 이듬해인 1973년 『현대시학』에 3회 추천을 완료하며 등단한다. 시집은 『지금 누군가 와서』(학문사, 1977), 『네 사람의 얼굴』(문학과지성사, 1983), 『저녁이미지』(동학사, 1985), 『사전을 뒤적이며』(동학사, 1996), 시선집 『그대 보내려고 강가에 나온 날은』(태학사, 2000), 『맹인』(고요아침, 2003), 시선집 『지상의 밤』(시선사, 2004), 『나를 운반해온 시간의 발자국이여』(2009, 천년의 시작), 『주민등록증』(2013, 고요아침) 등이 있고, 평론집으로는 『현대시조의 쟁점』(나라, 1984), 『우수의 지평』(동학사, 1989), 『젊은 시조문학 개성 읽기』(작가, 2001), 산문집 『질문의 품위』(2010) 등이 있다.

(1983), 마산시 문화상 (1985), 성파시조문학상(1989), 정운시조 문학상(1989), 경상남도 문화상(1994), 중앙시조대상(1995), 이호우 문학상(2000), 경남문화상(2000), 한국문학상(2003), 마,창 시민불교문화상(2004) 등을 수상한다.

1926년 육당 최남선이 「조선 국민으로서의 시조」를 발표하면서 시조부흥운동이 시작된다. 이후, 이병기(1891-1968) 시인이 현대인의 정서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며 '시조 혁신론[2]'을 주장한다. 이러한 노력은 1960년대 장순하 등의 시인들로 이어지는데, 이우걸 시인은 한 대담에서 이영도, 정완영, 시인 등에게 시조를 배우고, 『현대율』이라는 이영도 선생의 제자 모임에서, 이근배, 김제현, 이상범, 서벌 선배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한다. 시인은 이같은 앞선 선배 시인들의 영향을 받아 현대시조를 더욱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3] "시조가 왜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혈맥에 닿아 함께 흐를 수 있는 시인가를 아는 일이 시조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4]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인의 이러한 시적 경향에 대해, 이영도 시인은 3회 추천을 완료하면서 "시상의 심도에 있어서나 시조 본질의 바른 이해 및 꾸준한 창작열의, 참신한 발상과 차분한 구성, 그리고 어느 사물에서도 거기 제 나름의 관찰을 제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표현의 능력과 사고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5]는 소감을 밝힌바 있다. 이

---

2) 이병기, 「시조를 혁신하자」,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316쪽.
1. 實感實情을 표현하자. 2. 取才의 범위를 확장하자. 3. 용어의 삼수. 4. 격조의 변화. 5. 연작을 쓰자. 6. 쓰는 법, 읽는 법.

3) 이우걸, 『이우걸 평론집-젊은 시조문학 개성읽기』, 2001, 작가, 175쪽.
이우걸 시인은 유재영 시인과의 대담에서 우리 시조의 방향을 작품으로 보여주시던 김상옥 선생님, 언어의 경제성을 체득케 해주시던 이영도 선생님, 시조의 '현대성'을 이론으로 가르쳐 주시던 장순하 선생님, 전통시조의 한 스타일을 화려하게 열어주신 정완영 선생님에 대해 회고한 적이 있다.

4) 이우걸, 『현대시조의 쟁점』, 나라, 1984, 32쪽.

5) 이영도, 「추천사」, 『현대시학』 1975년 5월호, 83쪽.
이영도 시인은 1973년 『현대시학』에 「이슬」과 「지환」을, 2회 추천으로 「편지」, 「설

우걸 시인은 자기 나름의 관찰의 눈이 외부와 내부를 함께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인의 시선이 자연이나 현실을 보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통해 읽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회성과 서정성의 균형 속에 탄생하는 시인의 시편들은 시작법에 있어서도 전통시조와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우걸 시인의 시조에 나타난 서정성과 상상력, 이미지, 상징, 객관적 거리 등의 다양한 현대적 기법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이우걸 시조에 대한 평설과 논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지엽[6]은 이우걸의 작품은 섬세하면서도 대범성을 지니고 있고, 따뜻한 시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싸늘함과 독설을 예비하는 면은 시대에 열려 있는 개성적 목소리를 지니기 위한 그의 시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1996년『사전을 뒤적이며』에서는 섬세한 서정성과 시대정신을 동시에 내포한 작품들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한다.

유재영[7]은 언어의 역설적 기능과 새로운 율격에의 음악적 요소를 획득함으로써 현대시조의 의미론적 확대를 가능케 해 주었다고 전제하고, 현대시조의 새로운 정서 창조로서 시의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

서종택은 그의 작품은 일반적 사물도 평범하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심중을 파고드는 것은 그의 깊숙하고도 투명한 의식 때문이라고 하고, 윤재근은 시인 이우걸은 비극이란 슬픈 연극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이 비극의 인연이며, 그 인연은 한사코 인간을 적막하게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승리하게 하는 감동과 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이 苦이므로 패배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함을 가리켜 깊은 곳을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한다. 이것이 이우걸의 시들이 말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해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인 이우걸은 시조니 현대시니 가르는

야」를, 1973년 10월호에 3회 추천으로는「도리원 주변」을 추천 완료하였다.

6) 이지엽, 「섬세한 서정성과 시대정신」, 유성호 편저, 『이우걸의 시조미학』, 2006, 89쪽.

7) 유재영, 「의인화 또는 역설의 기능」, 『현대문학』 1987년 9월호, 431-433쪽.

것을 무색하게 한다.[8]

이승훈[9]은 이우걸 시조의 특성은 그 대상이 현대적 감각, 현대적 상상에 의해 노래하는 점을 든다. 이우걸은 자연보다는 문명을 대상으로 하고 자연을 대상으로 할 때도 전통적인 인습적 상상력을 벗어난다고 하면서, 자연에서 현실을 읽고, 현실에서 고통을 읽고 마침내 고통에서 그의 이상, 이상으로서의 자연을 읽는다고 한다.

이정환[10]은 이우걸의 작품이 첫째, 언어 자체가 주는 예술미학인 아주 모던한 면모와 둘째, 사회성 짙은 현실 인식의 세계, 즉 결연한 대항 의지를 표출하거나 문명의 이기를 질타한 작품으로 혼용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면서 주로 후자 쪽의 작품을 주 텍스트로 분석하였다.

장경렬[11]은 이우걸의 시를 읽으면 우리는 항상 그의 시가 담고 있는 절제의 미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미덕은 시조 형식에 대한 시인의 애정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한국어로 된 뛰어난 시이지 시조 형식이라는 또 하나의 한계는 아니다. 이우걸의 작품이 대부분 시조형식으로 쓰인 것에는 틀림없지만 시조라는 한계 안에서 수용되기에 앞서 시로서 뛰어난 작품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주[12]는 시조라는 장르가 자신의 불가피한 본능과 기질임을 드러낸 뛰어난 시인이라고 하면서, 시조문학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시인이라고 한다.

유성호[13]는 이우걸 시인의 시편들은 한결같이 사회성과 서정성의 복합적 균

---

8) 서종택, 「이우걸의 시세계」, 『지금은 누군가 와서』, 현대시학사, 1997, 63-70쪽.
윤재근, 「이우걸의 시와 사물 그리고 형상과 고해」, 유성호 편저, 앞의 책, 132쪽.

9) 이승훈, 「시조와 현대적 상상력」, 유성호 편저, 앞의 책, 163-172쪽.

10) 이정환, 「무수한 채찍질 끝에 피워 올린 무지개 혹은 접시꽃」, 유성호 편저, 앞의 책, 62쪽.

11) 장경렬, 「시조 또는 "적요의 공간"에 담긴 "절제와 온유함"」, 유성호 편저, 위앞 책, 35~61쪽.

12) 장석주, 「말들의 뿌리」, 유성호 편저, 앞의 책, 78-88쪽.

13) 장석주 , 「전통적 형식과 현대적 감각의 활발한 교섭」, 유성호 편저, 앞의 책, 189-199쪽.

형 속에서 태어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집단적으로 잠복해 있는 정신적 병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있다. 그의 미적 지향은 비극과 절망을 넘어서 균형과 희망 쪽으로 생의 형식을 재구하려는 시적 욕망으로 한결 경사되고 있다. 그를 비관주의자로 부를 수 없는 까닭도 이러한 생의 형식의 갱신에 대한 그의 역동적 힘 때문이라고 한다.

박철희[14]는『자연을 뒤적이며』를 살펴보며 시인의 시편들은 한결같이 전통적인 시조적 관습에서 벗어나 있다. 이 벗어남이 우리를 낯설게 한다. 시조 장르의 관습적 구속에서 도리어 자유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 이 시집의 특색이다. 시종일관 그의 눈길은 내부 지향적이다. 자연을 보면서 자신을 보고 내면을 읽고 있다. 이처럼 이우걸 시조에 작품에 대한 논의는 주로 평론을 통해 무척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논문[15]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우걸 시인은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시대와 현실 앞에 선 개인의 내면 풍경을 그려낸다. 그러기에 시인의 작품들은 생을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현대적 기법으로 시조를 창작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우걸 시인의『이우걸 시조전집』[16]에 나타난 서정성과 현대시조의 외연과 내포를 더욱 확장, 심화시킨 현대 미학적 면모들이 작품에 나타난 양상을 고찰해보기로 할 것이다.

Ⅱ. 이우걸 시조의 세계에 나타난 특질

1. 서정시의 육화와 정신주의

서정시는 본질적으로 주관의 영역이므로 일인칭 문학, 순간적 감동의 형상화

14) 박철희, 「현대시조의 가능성」, 유성호 편저, 위의 책, 157-162쪽.
15) 엄경희, 「이우걸 시조에 내포된 모더니티의 일면」, 『한국언어문화』 제 49집, 2012.
손영희, 「이우걸 시조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6) 이우걸, 『이우걸 시조전집』, 태학사, 2013(이하, 저자와 출판사 등은 생략하기로 함).

등의 용어로 정의되며, 형식적으로는 고백적이고 자기 표현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서정시의 주체인 시적자아는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시적 발화는 개인적 주관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어느 정도 사회적 보편성을 담보하게 된다. 고전적 삼분법에서 말하는 일인칭 화자의 단일하고 고답적인 미감은 실제 현대시에서는 다양하게 굴절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서정의 특성도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동인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시인은 이러한 서정시를 육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육화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뚜렷이 나타나게 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시의 이미지는 경험 사실의 감각화 또는 육화를 일컫는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언어 발달의 단계에 따라 정신적 이미지(mental image), 비유적 이미지(figurative image), 상징적 이미지(symbolic image)로 나눈다. 이우걸 시인은 이러한 이미지로 나타난 시, 즉 육화된 서정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인은 자신의 평론집에서 '창'(唱)을 떠나 '시'로서 정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오늘날에 와서 현대시조는 보다 개성적이고 보다 육화된 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결정론적 세계관을 배격하고 보다 열려있는 의식의 창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언어의 꽃이기를 희구하게 되었다. 이제 시조는 보편적 서정성의 획득을 위한 형식이라는 그릇과 그 보편성으로 획득할 수 없는 철저한 개성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현대시조로서의 또 다른 향기를 지닌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기에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육화된 서정'과 열려있는 의식의 창을 통한 '시'인 것이다. 그는 형식이라는 그릇과 개성이 철저한 조화를 이루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17] 근대적 개인의 세계와 자아는 서로 긴장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17) 이우걸, 「노래시의 갈등과 극복」, 『우수의 지평』, 동학사, 1989, 225-229쪽 참조.

횡선과 종선은 우연히 만났지만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각도가 생겼다
각도는 원치 않았던
그들 내면의 상처였다.

그저 달무리처럼 둥글고 싶었을 뿐
빗금이 되어서라도 부딪치고 싶진 않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각도가 생겼다.

눈 감으면 각도는 칼날처럼 떠올랐다
그 칼날은 밤새도록 어둠을 물어뜯으며
아침이 닿을 때까지
파도치며 울곤 했다

-「관계」 전문[18]

이 작품에서 시인은 "내면의 상처"라는 관념을 '각도'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달무리처럼 둥글고 싶었"다고 표현하거나, "빗금이 되어서라도"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보여준다. 셋째 수에서는 자신의 상처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면을 "각도가 칼날처럼 떠올랐다"고 하고, 각도로 인해 상처받아 울고 있는 마음을 자신이 울고 있다고 하지 않고, "그 칼날"이 "어둠을 물어뜯으며" 울곤 했다고 표현한다. 또한, 화자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파도치며 울곤 했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인은 이처럼 서정시의 육화를 통해 현대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8) 『이우걸 시조전집』, 308쪽.

한 개인의 의식이란 다양한 생의 방식으로 인해 오로지 한 가지만으로 도식화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닌다. 그러기에 세계에 대한 시인의 태도는 비판과 관조, 화해 등이 서로 겹쳐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우걸 시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화해적 태도이다. 시인은 화해를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처럼 시인의 시정신은 날카로우면서 부드럽고, 단정하면서도 절제되어 있는 어조, 또는 때로 단호함으로, 때로 따뜻함으로 이 세계와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이 작품에도 시인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세계와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위 시에 나타난 것처럼 시인은 '관계'라는 추상적 단어를 작품으로 보여줄 때도 진술이 아닌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보여준다. 지난날의 인연들과 스치며 생긴 상처를 표현하지만 삶에 대한 인식이나 시적 처리를 상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육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무릇 시란 정신의 핏빛 요철이므로
장님도 더듬으면 읽을 수 있어야 하리
집 나간 영혼을 부르는
성소의 권능으로.

얽힌 말의 실타래 같은
이미지의 굴레 같은
그 터널을 절뚝거리며
내 독자는 걸어 왔구나
그러나 양파 속이여
아 드러날
허방이여.

-「시」 전문[20]

19) 엄경희, 「인고적 정신이 일궈낸 화해의 무늬」, 유성호 편저, 앞의 책, 102쪽 참조.

이우걸 시인의 초기시와 중기시를 살펴보면, 초기엔 다분히 유미주의적 취향이었다. 그러다가 시인은 현실과 언어미학의 조화 그리고 절대의 가치를 함의하는 아포리즘적 시구 창작으로 시조가 지닌 응축의 미학을 살리는데 힘을 쏟는다. 시인의 시세계는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정신주의적 면모가 나타난다. 여기서 정신(spirit)이란 마음(mind)이나 혼(soul)과 다르다. 정신은 살아있는 실체이면서 이념적인 자기 지향성을 갖는 게 특징이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성찰한다. "시란 정신의 핏빛 요철"임을 강조하며, 두 눈이 보이지 않아도 "정신"을 통해 더듬으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집 나간 영혼을 부르"듯 지난 시간을 성찰하며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한다.

시인은 지난시간 자신과 독자들은 "얽힌 말의 실타래", "이미지의 굴레 같은" 시를 붙들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와 돌아보니 오랜 시간 "절뚝거리며" 걸어온 그 길은 "터널"처럼 어둡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방"의 세계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찰은 상투적인 서정시 쓰기를 경계하자는 의지도 포함된 것이라 생각된다. 시인은 이처럼 끊임없는 성찰과 자기 갱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시인이 80년대 불행히도 우리 시조시단에 선 한 시인의 시적 궤적이 그의 연륜과 더불어 방대하게 변화해온 모습을 당당히 보여 줄만한 시인을 거의 갖지 못한 점을 지적한 걸 보아도 알 수 있는데,[21] 이는 시인이 강철같은 정신으로 온몸으로 시조를 밀며 이를 시적으로 구현해 내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이리라. 그는 현대시조의 현대화에 일획을 긋는 작업을 실천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22]

---

20) 『이우걸 시조전집』, 297쪽.

21) 이우걸, 『현대시조의 쟁점』, 앞의 책, 105쪽 참조.

22) 이지엽, 「섬세한 서정성과 시대정신」, 유성호 편저, 앞의 책, 89쪽.

길이 가파른 곳엔

반드시 샘물이 있다

상처가 깊을수록 깊어지는 사랑이 있듯

어둠을 뚫고 빛나는 저 별빛의 일획으로

– 「희망」 전문[23]

이우걸 시인의 정신주의는 이분법적인 대립이 아니다. 물질과 정신, 전통과 현대, 감성과 이성, 구체성과 보편성 등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길이 가파른 곳"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그 길에는 "반드시 샘물이 있다" 고 확신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반드시"라는 단어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시인은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며 치열한 자기갱신을 추구한다. 핏빛요철 같은 정신을 추구하는 길이기에 때론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처의 이면에는 더욱 "깊어지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안다. 시인의 정신에는 "빛나는 저 별빛의 일획"이 있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사고가 아닌 갈등과 대립을 균형과 조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인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못 다 새긴 자화상이 있어

잦아가는 육신에 기름을 붓고

밤마다 나를 태워서

23) 『이우걸 시조전집』, 135쪽.

더듬더듬 너를 그린다

– 「시작 詩作」 전문[24]

이제 우리 사회는 불확정성의 원리, 불온한 상상력 등의 사유가 세계의 실재에 더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모든 시창작의 근원적 동기가 자기 확인의 나르시시즘에 있다고 할지라도,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거울'조차 흐리고 어둑하며 심지어는 깨어진 거울일 경우가 많다. 그 깨어진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자신의 얼굴은 자기 연민 내지는 자기 부정의 갈등을 가져다주는 복합성의 얼굴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매혹과 몰입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환경적 모순과 맞서고 있는 자신에 대해 사유하고 표현하려 한다.[25]

작품을 창작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자신이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등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이우걸 시인은 오랜 시간동안 온 몸으로 시조를 써온 시인이지만 "아직 못 다 새긴 자화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작품 밖의 시인 즉 현실 속의 나는 작품 속의 나라고 할 수 있는 '시 속의 나'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시 속의 나는 창조된 공간인 작품 내의 존재 즉,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정서를 드러내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나는 "잦아가는 육신에 기름을 붓고" "밤마다" 작품 속의 나인 "너를" "더듬더듬" 그릴 수밖에 없다. 시인은 조화와 균형, 전통과 현대, 형식과 내용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시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시인은 시정신과 시작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공허한 내면토로나 상투적인 서정시가 아닌 정신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인은 절제되고 정적이고 육화된 언어를 통해 스스로 팽이가 되어 "쳐라 가혹한 매여,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를 외치며,

---

24) 엄경희 엮음, 『이우걸 시조연구』, 태학사, 2013, 307쪽.

25) 유성호, 「전통적 형식과 현대적 감각의 활발한 교섭」, 유성호 편저, 앞의 책, 190쪽 참조.

그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꼿꼿이 서서" "접시꽃 하나"(「팽이」)로 피어난 것이다.

2. 내면화와 시대정신

이우걸 시인은 한 대담에서 시조가 화제의 중심에 서지 못한 세월이 오래 되었음을 지적한다. 재기 발랄한 어느 평론가도 시조의 깊은 내면을 진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가끔 스쳐가는 몇몇 평론가들의 관심도 아직은 우리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작품을 논할 때도 우리는 줄곧 하나는 한국의 근대화가 잘못 가져다 준 문화 풍토에 관한 외부지향적인 것과, 내부지향적인 것, 이 두 가지 관점만을 얘기해 왔음을 지적해 왔다고 한다. 내부지향적인 분석이란 다름 아닌 시조시단 스스로의 반성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시인은 시대의 중심 담론을 시조의 소재로 끌어오지 못하느냐, 왜 개성적인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느냐, 왜 실험의식이 없는지에 대해 지적한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시인이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입과 눈과 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26]

서울특별시 남산 국립도서관
노시인의 시구에 경배를 보내듯이
계단을 닦으며 웃는 아줌마께 인사를 한다.

따스한 봄볕이 이 마을에 닿을 때까지
신채호, 데카르트, 이병기 등의 건강을
또는 그, 정신을 위해
그가 든 걸레 하나.

---

26) 이우걸, 『젊은 시조문학의 개성 읽기』, 작가, 2001, 104-172쪽 참조.

부지런한 나라의 교활한 식자識者들이
저 소중한 자료들을 남독濫讀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저 묵묵히
이 건물을 닦고 있었지.

-「겨울 청소부」 전문[27]

이 작품의 화자는 지금 "남산 국립도서관"에서 마주친 소시민의 일상을 미적으로 인식한다. 화자는 추운 겨울 어느 날, "계단을 닦는 아줌마께 인사"를 건넨다. 그런데 문득 청소부의 일하는 모습이 "노시인의 시구에 경배를 보내"는 것처럼 경건하게 보인다. 이 모습은 조금 전 보았던 "소중한 자료들을 남독"하는 "교활한 독자"들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화자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하루 일과를 묵묵히 해내는 소시민의 삶이 "신채호, 데카르트, 이병기" 등과 같은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진정 위대한 삶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화자를 통해 일상적인 삶, 즉 가시적인 삶 속에서 비가시적인 것을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첫째 수에서 청소를 하는 아줌마와 가볍게 인사를 하는 외면적 모습만을 묘사한다. 그런데 둘째 수에 이르러 화자의 긍정적 내면화로 인해 "걸레"를 든 아주머니의 모습은 선구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로까지 확장된다. 그런데 셋째 수의 화자의 부정적 내면은 "부지런한 나라의 교활한 식자들이/ 저 소중한 자료들을 남독"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시인은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 않고 "그저 묵묵히 건물을 닦고 있"는 소시민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시인의 내면은 "따스한 봄볕이 이 마을에 닿기를 바란다. 이처럼 시인의 내면화된 서정시는 필요 이상의 말을 아끼면서도 시대정신을 말한다. 시인은 한 시인이 현대의 많은 정신적, 물질적 환경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어 노래하느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인에게 그보다 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27) 『이우걸 시조전집』, 103쪽.

대상을 '어떻게' 노래하느냐"라는 점이다.

폭력의 정치들이 거리를 누빌 때도
그는 말이 없었다
창밖의 풍경에 관해
시간이 그런 인내를 그에게 가르쳤다.

다만 의자 위에
잠이든 손님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잊고 있던 그의 생을
때로는 상처에 의해
가꾸어지는 영혼을.

거울 속으로 사라지는 푸른 날의 기억들
김씨의 손끝은 이제 조금씩 떨리지만
그 어떤 가면 앞에서도
의연히 가위를 든다

-「청산이발소 김씨」 전문[28]

이우걸 시인은 불면, 굴욕, 번뇌, 허무, 상처, 가면, 어둠과 절망 등을 작품으로 쓴다. 상한 마음의 흔적들이 모여서 시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시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쓰지 못한다고 고백한다.[29]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인의 내면의식은 이 작품에서 청산이발소 김씨의 페르소나를 통해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도 화자의 시선은"김씨의 손끝"을 향한다. "폭력의 정치들이 거리를" 누비며 활보를 해도 김씨는 "말이 없었다." 여기서 "창밖의 풍경"이란 김씨가 꿈

28) 위의 책, 182쪽.
29) 『시조시학』 1995년 상반기호, 91쪽 참조.

꾸던 세상이다. 하지만 이제 김씨는 자신의 생은 때로 "상처에 의해/ 가꾸어지는 영혼"이라는 것을 안다. 나이가 들어 김씨의 "손끝은 이제 조금씩 떨리지만" 창문 밖의 세상은 온갖 폭력과 허위의 가면으로 난무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그 어떤 거짓 앞에서도 "의연히 가위를" 드는 것이다.

김씨는 "폭력의 정치들"이 "창밖"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에도 "푸른 날의 기억들"을 "거울 속으로" 보내며 "상처"로 영혼을 가꾼다. "그 어떤 가면 앞에서도 / 의연히 가위를 든다" 모두가 잘못된 길이라고 할 때에도, 시인은 내면화를 통해 진정성 있게 시대정신을 담아낸다. 그러기에 시인의 마음은 "원인모를 후두염에 걸린" "노동의 하늘을 보"(「비누」)기도 하고, "구인 벽보판을 빗방울이 때리는" 동안 "무노동 무임금주의의/ 깃발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회색빛 그 폐허 위에/ 영혼의 집을 짓"(「연필화 앞에서」)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 마음에 금을 그어 잠들어 있던 이름들
> 발해처럼 고구려처럼 조용히 불러보면
> 노래는 영토 없이도 나라로 대답합니다
>
> 그분들이 간 납정이 같은 말들이
> 저 이념의 철망에 걸려 피 흘리고 있을 적에
> 우리는 부끄럽게도 제 노래만 불렀었지요
>
> – 「해금시인 12인집을 읽으며」 전문[30]

이 작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인의 시대정신은 남북분단과 "이념"에 대한 작품을 창작하기도 한다. 화자는 지금 해금시인 12인 선집을 읽고 있다. 가로막힌 길과 이념으로 "마음에 금을 그어 잠들어 있은 이름들"을 "발해처럼 고구려처럼" 불러본다. 그 나라는 한때 위상을 떨친 자랑스러운 나라였지만 지금은 모두 사

30) 『이우걸 시조전집』, 160쪽.

라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인들은 "영토 없어도 나라로 대답"하기에 시인의 내면의식은 지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다. 화자는 "이념의 철망" 때문에 "납정이 같은 말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은 지난날 "제 노래만" 부른 것에 대해 담담한 어조로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의 이같은 섬세하면서도 대범하고, 따뜻한 시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싸늘함과 독설을 예비하는 면모로 인해 그의 "작품들은 사회성과 문학성이 유기적, 총체적, 역동적으로 결합됨으로써 드높은 향기를 발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그의 작품들은 이상적인 사회시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31]

이상 살펴본 이우걸 시인의 시적 세계에 관해, 유성호는 이우걸 시인이 우리 사회에 미만(彌滿)해 있는 내면을 일관되게 비판하면서, '시조' 양식 속에 가장 당대적인 감각을 담아내는 적공(積功)을 일관되게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직 외길만을 걸어온 시인이 전통적 정서의 재확인보다는 모더니티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시조 미학을 확충하려는 노력과 성찰을 보여주는 것은, 시조의 양식적 견지와 확충을 동시에 이루려는 일관된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한다.[32] 그러기에 시인의 작품은 "숨 가쁜 생의 경영이/ 밀서처럼/ 기록"(「가야산」)하고, "우리 몸속엔 금속성 파편이 있다"(「아직 우리 몸속엔- 휴전 50년」)고도 하고, "다 낡은 국밥집 창가에 앉아"서도 "실직같은 비"를 보며, "수출처럼 난만하던 철쭉꽃은 지고 없는데/ 살아서 다졌던 생애의/ 뼈하나 묻히고 있다"고(「산인역」) 노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은 자연이나 일기, 계절 등을 매개로 하여 노래할 때도 서정의 내면화를 통해 시대정신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

31) 이종문, 앞의 글, 146쪽.

32) 유성호, 「시간의 선명한 얼굴」, 『이우걸 시조연구』, 앞의 책, 239쪽.

3. 상상력과 객관적 거리

하이데거는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실체론과 근대적 인식을 비판한다. 그는 그 양자들이 상이한 차원들로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 없는 통일적 현상을 '세계-내-존재'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함께 현존재적인 어떤 것이며, 똑같이 둘러보며 배려하는 세계-내-존재로서의 존재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함께와 똑같이는 실존적으로 이해되어야지 범주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함께하는 '세계-내-존재'에 근거해서 세계가 그때마다 각기 이미 언제나 내가 타인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세계인 것이다. 현존재의 세계는 공동세계이다. 안에-있음은 '타인과 더불어 있음'이다. 타인의 세계 내부적인 자체존재는 공동현존재라고 말한다.[33] 이러한 세계에서 시인을 만난 사물은 그저 사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사물은 인간에게 말을 건다. 이우걸 시인은 이러한 사물들을 형상화하여 시의 언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사물을 새롭게 만나 언어로 형상화하는 것은 시인의 몫이다. 이러한 능력은 시인의 눈과 귀에 상상력이 닿아야만 가능하다. 이우걸 시인은 이러한 작시의 비밀을 터득하려고 언제나 시의 언어가 왜 사물 그 자체이며, 사물의 언어가 왜 형상화되어야 時象이 詩想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가를 다진다.[34] 여기서 시인에게 상상력이 내재해 있다는 것은 내적으로 풍요하다는 것이요, 이미지가 자발적인 부단한 흐름을 향유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상상력이 결여된" 사람을 편협하고 옹졸하고 서글프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동정한다. 심리학자들은 현대 세계의 비극적 사건들이 상상력의 빈곤화에 의해서 대부분 유발되는 개인적이고 집단적 심리의 심각한 불균형에서 파생된다고 한다.

잠시 상상력의 어원을 살펴보면, 상상력은 이마고(imago), 즉 "표상, 모방"과 이미토르(imitor), 즉 "모방하다, 재상하다"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경우

33)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 166면-67쪽 참조.
34) 윤재근, 「이우걸의 시와 사물 그리고 형상과 고해」, 유성호 편저, 앞의 책, 19쪽.

어원에는 심리적 현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진리까지 반영되어 있다. 상상력은 규범적 모델-이미지-을 모방하고 재생시키고 재 현실화시키고 무한히 반복한다. 상상력을 가진다는 것은 세계를 그 전체성 속에서 바라본다는 뜻이다. 개념에 저항하는 모든 것을 지시해주는 것이 이미지의 힘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만약 시인이 상상력이 결여되었다면, 그는 인생과 자신이 영혼이 심오한 현실과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35]

내가 지금 그의 잔을 바라보면
세계는 갑자기 투쟁의 눈을 버리고
설경의 나무들처럼 달빛으로 몸을 덮는다

하나의 우주, 하나의 따스함
우리는 지금 먼데서 한 없이 날아와서
이토록 순수한 잔을 눈부시게 가꾸고 있다

그가 지금 나의 찻잔을 조용히 바라보면
세계는 갑자기 투쟁의 눈을 버리고
설경의 나무들처럼 달빛으로 몸을 덮는다

-「세계는 갑자기」 전문[36]

이 작품은 1977년에 발간한 첫 번째 시조집 『지금은 누군가 와서』에 수록되었는데 암시적 묘사가 주를 이루는 게 특징이다. 여기서 묘사란 작가의 심리투영 여부에 따라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로 나뉜다. 먼저 이 작품을 살펴보면, 첫째 수와 셋째 수에서 "내가 지금 그의 잔을 바라보면"과 "그가 지금 나의 찻잔을 조용히 바라보면"은 작가의 심리가 투영되지 않는 객관적 묘사라 볼 수

35)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미지와 상징』, 이재실 역, 까치, 1998, 24쪽 참조.
36) 『이우걸 시조전집』, 19쪽.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표현들은 대체로 주관적 묘사로 심리적 세계에서 시인만이 본 심리적 영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 첫째 수에서 화자는 어두운 밤 "그의 잔을 바라보"고 있다. 즉 시적 화자는 지금 '그'라는 3인칭 화자의 눈으로 잔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란 익명의 눈이거나 '초월자'로 추론된다. 그러기에 시인이 그의 잔을 초월자나 '새'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면, "세계는 갑자기 투쟁의 눈을 버"리게 된다. 여기서 밤은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세계가 문을 열어줌으로 인해 "투쟁의 눈"은 사라지고 세계는 "달빛으로 몸을 덮"게 되는 것이다.

둘째 수에 이르면 현존재의 세계는 공동세계, 즉 타인과 더불어 나누는 그런 세계가 되어 "하나의 우주"로 확장된다. 이제 "나"와 "그"로 분리되었던 세계는 "우리"가 되어 "투쟁의 눈"을 버리고 "하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세계가 된다. 시적 화자의 상상력을 통해 확장된 그 서정의 세계는 "설경의 나무들처럼 달빛으로 몸을 덮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계를 위해 우리는 "먼데서 한 없이 날아"와"순수한 잔"을 가꾸어 가기에 한없이 눈부시다. 그러기에 "그가 지금 나의 찻잔을 조용히 바라보"아도 내가 잔을 바라보던 것처럼 설경의 나무들은 달빛으로 몸을 덮는다. 시인은 이처럼 현대적 기법, 즉 암시적 묘사, 상상력, 상징, 이중적 시선 등의 사용으로 상당히 낯설면서도 신선한 작품을 창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묵은 앨범의 먼지를 털다가
우연히 녹이 슨 만년필을 발견했다
스스로 울음 울면서 한 시대를 기록했던 것.

몇 번이고 다시 잡고 대화를 건네 본다
"서툴러도 때 묻지 않았던 그 마음이 그립다"고

녹이 슨 그의 얼굴은
아무런 대답이 없네

만년필은 물이 마른 호수처럼 금이 가 있다
만년필은 인적 끊긴 호수처럼 적요하다
그처럼 나의 인생도
멀리 와 있을 것이다.

-「만년필」 전문[37]

이우걸 시인은 끊임없는 성찰이 시조를 현대시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만큼 발전시키고, 내 스스로 좋은 시인이 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한다.[38] 이 작품에서도 시인은 우연히 발견한 녹이 슨 만년필을 보며 존재론적 성찰을 한다. 첫째 수에는 "묵은 앨범의 먼지를 털"던 화자와 "녹이 슨 그의 얼굴"의 화자가 등장한다. "우연히" 마주친 녹슨 만년필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이 앨범의 먼지를 터는 화자에게 환기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즉 만년필이라는 사물이 화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화자는 사물이 건네는 말에 대답을 하기 위해 기억을 더듬는다. 그리고는 만년필을 가지고 "스스로 울음 울면서 한 시대를 기록"하던 시절을 떠올린다. 화자 '나'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서툴러도 때 묻지 않았던 그 마음이 그립다"고 당신도 그러냐고 "몇 번이고" 묻는다 하지만 "녹이 슨 그의 얼굴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화자의 언어를 받아 적던 녹이 슨 만년필은 이제 "인적 끊긴 호수처럼 적요하다." 만년필은 언어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임을 알고 있는 듯 녹이 슨 채 말이 없다. 그저 "물이 마른 호수처럼 금이 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금이 간다는 것은 "때 묻지 않았던 그 마음"에서 "멀리 와"버려 더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

37) 『이우걸 시조전집』, 312쪽.
38) 엄경희 엮음, 앞의 책, 308쪽.

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라는 현존재는 모든 사물을 실천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살아간다. 인간에게 사물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위한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인은 사물에 해석을 가하는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그저 "금"이 간 모습으로만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서로간의 객관적 거리를 확보한다.

이와 같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서정시를 쓰는 시인을 향해, 이승훈 시인은 우리 시단에 이우걸 같은 시인이 있다는 것은 그의 시가 이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든 시는 결국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조선 시대의 시조와 식민지 시대의 시조와 산업화 시대의 시조가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기쁜 일이다고 한다. 문학이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문학이므로 우리는 이 차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39]

다음으로 살펴볼 이우걸 시인의 단시조에도 이러한 객관적 거리가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의 단시조는 조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되는데, 시조시인 조운처럼 이우걸 시인도 초기에는 자유시를 쓰다가 이후 시조 창작에 전념하게 된다. 조운이 1927년 2월에 발표한 「병인년과 시조」에도 우리가 그동안 버렸던 자기를 도로 찾으며 자기 정신을 성찰하고 자기 정신을 수습하며 자기 그릇을 먼저 검토해야 할 간절한 그 무엇을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라고 한다. 조운은 기준 율격에 구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기에 시조의 전통적 율격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형을 개척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40] 그러면서 다양한 분행, 작품과 어울리는 시상의 전개, 시간의 변화와 심정의 변화를 행갈이를 달리해 무척 감각적이면서도 간결한 묘사를 사용해 작품을 창작한다.

---

39) 이승훈, 앞의 글, 170쪽 참조.

40) 유순덕, 「현대시조에 나타난 형식미학과 생명성 연구-이병기, 조운, 김제현, 조오현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8-41쪽 재인용.

조운은 사설시조도 「구룡폭포」 단 한편을 남기는데, 이우걸 시인 또한 현재까지 단 한편의 사설시조만을 남기고 있다. 시인의 사설시조는 이병기와 조운의 사설시조에 나타난 바와 같은 반복, 열거, 점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시인의 단시조에 나타나는 묘사를 통한 간결성은 조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되고, 사설시조에 나타나는 반복, 열거, 점층, 음악적 효과 등은 이병기와 조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통적인 3'4'3(4)'4의 기계적 음보가 아닌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비단 단시조와 사설시조뿐만이 아닌, 이우걸 시인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죽은 아이의 옷을 태우는 저녁

머리칼 뜯으며 울던 어머니가 날아간다

비워서 비워서 시린

저 하늘 한복판으로

-「기러기 1」 전문[41]

이우걸 시인은 난삽하지 않은 이미지 구사가 독자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의 한 방법이고, 시대 상황에 반응하려는 노력이 현실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42] 시인은 이러한 객관적 거리로 작품의 리얼리티를 확보한다.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진 묘사는 시가 힘을 갖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어머니는 "저녁"에 "죽은 아이의 옷을 태우"고 있다. 화자는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머리칼 뜯으며 울던"이라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보여준다.

41) 『이우걸 시조전집』, 144쪽.
42) 엄경희 엮음, 앞의 책, 332쪽.

머리칼을 뜯으며 슬프게 울던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모두 타서 하늘로 사라져 버린 "죽은 아이의 옷"을 따라간다. 아이의 옷을 다 태우고도 비우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을, 화자는 "비워서 비워서 시린"이라는 반복어를 사용해 다 비우지 못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록 어머니는 몸은 지상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아이를 쫓아 "저 하늘 한복판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은"하늘 한복판"을 날고 있는 기러기를 따라 죽은 아들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처럼 죽은 자식의 옷을 태우는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을 묘사할 때도 이미지만으로 간결하게 묘사함으로써 대상과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

잠든 소녀 머리맡을 라디오가 지켜 선 오후

분홍빛 얼굴을 한 음악이 기웃거리다 흰 벽에 쏟아지는 뉴스와 부딪치고 피 흘리고 사라지고 얼굴을 밟고 누군가가 일어서고

그녀의 봄꿈 속에도 복사꽃이 지고 있을까?

-「낙화」 전문43)

이우걸 시인은, 사설시조는 서사적 지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시에 가까운 것이고, 정형시는 운문에 가까운 것이지요. 시조는 응집의 미학이고 사설시조는 해체의 미학이예요. 어디까지나 시조는 운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산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44) 그러기에 시인은 조운과 같이 단 한편의 사설시조만을 창작한다. 그런데 시인의 정형시와는 달리, 사설시조에서는 이병기의 「보리」와 조운의 사설시조「구룡폭포」에서 느껴지는 반복, 열거, 점층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다.

43)『이우걸 시조전집』, 66쪽.

44) 엄경희 엮음, 앞의 책, 260쪽 참조.

이 작품 초장의 화자는 "잠든 소녀"의 "오후", "라디오"에서 음악, 뉴스 등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상상에 잠긴다. 중장에 이르면 화자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피 흘리는" 소식들이 소녀의 "얼굴을 밟고"지나가도 또 "누군가가 일어서고" 있는 장면을 상상력을 통해 떠올린다. 여기서는 '-고'를 네 번 반복해 역동적인 리듬을 확보하며 시상의 고조와 점층적 음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효과로 잠든 소녀의 꿈 속 정경이 꽃이 떨어지는 모습과 중층적으로 겹쳐 점층적으로 상승하다가, 마침내 종장에 이르면 "복사꽃은 지고 있을까?"로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시인의 사설시조는 '장 . 단. 완 급'의 낙폭을 조절하면서 반복과 열거, 절정의 점층적 구조로 음악적 효과까지 노리며 작품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우걸 시인은 서정시와 모더니티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작품을 창작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평생에 걸친 시인의 이러한 노력은 외롭고 고독한 상처투성이 길이었으리라 추론된다. 그럼에도 시인은 "가느다란 가지 끝에/ 앉아 있는 한 마리 새"가 되어 "칼바람 다시 와서/ 가지를 흔들"어도 "무엇을" 위해 "어디로 떠나야 할까"(「판자촌 입구」)를 고민하며, 현대시조의 영역을 더 깊고 넓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 본 논문은 이우걸 시조에 나타난 서정성과 현대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서정시 존재 근거를 '인간에 대한 끝없는 자기 질문'이라 확신하며 정서와 현대성의 진정성 있는 교섭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시조가 왜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혈맥에 닿아 함께 흐를 수 있는지를 아는 일이 시조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시인은 현대시조의 외연과 내포를 더욱 넓고 깊게 넓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우걸

시조에 나타난 특질을 서정시의 육화와 정신주의, 내면화와 시대정신, 상상력과 객관적 거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서정시의 육화와 정신주의에서는 내면의 상처 같은 관념을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인은 '창'(唱)을 떠나 '시'로서 정착한 현대시조는 보다 육화된 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인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갱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시인은 삶에 대한 인식이나 시적 처리를 상투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시란 정신의 핏빛 요철이라고 생각하기에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며 치열한 자기갱신의 시를 창작한다.

다음으로 살펴본 내면화와 시대정신에서, 시인은 현대시조가 시대의 중심 담론을 시조의 소재로 끌어오지 못하느냐, 왜 개성적인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느냐, 왜 실험의식이 없는가에 대해 지적한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시인이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입과 눈과 귀를 지니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연이나 일기, 계절 등을 매개로하여 노래할 때에도 서정의 내면화를 통해 시대정신을 노래한다,

세 번째, 상상력과 객관적 거리에서는 사물을 새롭게 만나 언어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인의 눈과 귀에 상상력이 닿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시인은 지난 시간을 회고할 때에도 진술이 아닌 만년필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묘사한다. 묘사를 통한 대상과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단시조에서는 이미지와 간결체, 행갈이, 의미에 따른 행의 배치 등을 통해 자연스럽고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게 특징이다. 단시조는 조운의 영향을, 사설시조에서는 이병기와 조운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설시조에서는 열거와 반복을 통해 역동적인 리듬을 확보하며 시상의 고조와 점층적 효과를 통해 음악적 효과까지 노리며 작품을 엮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이우걸 시조의 세계에 나타난 특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기에 현대시조는 내포와 외연을 넓히고 현대적인 기법들을 차용해 더욱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사십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력하는 이우걸 시인의 작품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판단된다. 인간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꿈꾼다. 그러기에 현대시조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더 포용적인 면모를 지니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시조를 더욱 깊고 넓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이우걸 시인은 그런 면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본 논문은 형식미학에 있어서의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움으로 남기며 다음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 문헌>

기본 자료

이우걸, 『이우걸 시조전집』, 태학사, 2013.
_____, 『현대시조의 쟁점』, 나라, 1984.
_____, 『질문의 품위』, 작가, 2010.
_____, 『우수의 지평』, 동학사, 1989.
_____, 『이우걸 평론집-젊은 시조문학 개성 읽기』, 작가, 2001.

국내 논저

서종택, 『지금은 누군가 와서』, 현대시학사, 1997, 63-70쪽.
손영희, 「이우걸 시조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엄경희 엮음, 『이우걸 시조연구』, 태학사, 2013, 260쪽, 308쪽, 332쪽.
_____, 「이우걸 시조에 내포된 모더니티의 일면」, 『한국언어문화』 제 49집, 2012, 102쪽.
유성호 편저, 『이우걸의 시조미학』, 작가, 2006.

유순덕, 「현대시조에 나타난 형식미학과 생명성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8-41쪽.
유재영, 「의인화 또는 역설의 기능」, 『현대문학』 1987년 9월호, 431-433쪽.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316쪽.
이영도, 『현대시학』1975년 5월호, 32쪽.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 166-167쪽.

〈Abstract〉

A study appeared on Lee Woogul's Sijo

Yoo, Seon-duk

How lyricism and modernity were manifested in modern Sijo created with clear self-awareness of poetics? And what meaning they have? This paper studied Lee Woogul's Sijo with these questions. Essentially, Lyric poetry belongs to subjective domain. However, poetic ignition guarantees not only personal subjectivity but also social university. So, unique and high-toned esthetic sense with a first person is diversely refracted in modern poetry.

First of all, this paper studied spiritualism works through incarnation, balance and harmony appeared in Lee Woogul's lyric poetry. In creating works with relationship, which is a conjecture word, he showed images of 'angle' or 'blade of knife' not that of 'empty inner expose'. Lee Woogul said that poet should live with mouth, eye and ear alive in many persons' life. He emphasized that poet should effort to rebirth through self-examination and self-renewal. Poets sing the spirit of age through internalization in case of transmitting weather and season and in case of singing unemployment, division of the country and early retirement. And, in case of embodying new matters, he maintained imagination and objective distance. In case of creating works for remembering past times, he endeavored to approach readers by describing with correlative of fountain pen.

It was inferred that Lee Woogul's Sijo was affected by Cho Woon. He followed Cho Woon in the aspect of image, concise style, change of line, arrangement of line according to meaning and pursue of natural softness. His viewpoint of poetr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et and Sijo is complementary, can be found through natural arrangement of line. In the field of Saseol-Sijo, It was thought that he was affected by Lee Byonggi and Cho Woon. Since, he secured dynamic rhythm through enumeration and repetition. And he weaved works through the upsurge of poetic concept and gradual effect in seek of musical effect. World changes constantly and the person who cannot adapt disappear in backwater of history. During the past 40 year, he expanded connotation and denotation of modern Sijo, and he developed modern Sijo by borrowing modern techniques. It is evaluated that his works in which lyricism and modern techniques were

manifested is a good model.

key words : lyric poetry, modernity, incarnation, the spirit of age, lyricism, internalization, imagination

이 논문은 2017년 01월 08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17년 01월 11일부터 2017년 01월 19일까지 심사를 하고,
2017년 01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증보가곡원류(增補歌曲源流)』 농(弄)·낙(樂) 사설과 악곡(樂曲)의 연관성 고찰

정 일 영 *

〈국문초록〉

농과 낙으로 분류되어 있는 곡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함유하고 있는 시조가 많은데, 농과 낙의 사설의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음악적인 차이가 사설의 결합양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0세기에 편찬된 함화진의 『증보가곡원류(增補歌曲源流)』의 농·낙 계열의 곡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가곡의 음악적 특성과 사설의 성격에 대한 연관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농과 낙의 사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랑을 느끼는 감정과 태도에 있다. 농의 작품에서는 계면조의 음악적인 특징과 부합하여 사랑의 좌절, 연모의 주제에서 그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제에서 격한 감정을 꾸밈없이 드러내거나, 슬픔의 감정을 매우 깊게 표현하고 있었다. 반면 낙에서는 사설에서 나타나는 어조가 우조의 음악적인 특징과 연관 있는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구애의 작품에서는 사랑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작품이 농에 비해 많았다. 사랑의 즐거움이나 성적 행위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낙의 경우는 선율이 화려하고 변화가 많은 것처럼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 및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을 통하여 대담하고 진솔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 사랑의 금기와 절제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농과 낙에서 정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심상을 표출하는 작품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서로 구별되는 차이가 있었다. 금기와 관련된 낙의 작품은 농에 비해서 좀 더 자유분방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절제의 경우도 낙의 작품에서는 화자가 처한 현실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좀 더 생동감이 있고 호방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별의 주제에서는 농과 낙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이별을 대하

* 동양음악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인헌초등학교 교사

는 태도가 임에 대한 호소나 이별을 원하지 않는 심정을 한탄하며 체념적으로 노래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농과 낙 사설의 차이는 농의 작품이 계면조, 낙의 작품이 우조의 음악적인 특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사설의 성격을 지닌 것과 연관이 있다. 삭대엽과 농·낙의 사설을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사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곡원류』의 발문의 지적은 가곡의 선율이 분화되거나 새롭게 창작되는 과정 중에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음악적으로 농·낙의 형식이 완성되어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음악적인 특성과 사설의 성격이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결합되어 노래로 불렸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농, 낙, 『증보가곡원류(增補歌曲源流)』, 가곡, 풍도형용, 사설, 악조(樂調)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곡은 시조의 사설을 관현악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곡이다. 가곡은 18세기 전기에 삭대엽(數大葉)을 모체로 하여 초수대엽, 이수대엽, 삼수대엽과 같은 여러 형태로 곡이 분화되었으며, 18세기 말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시대에 농(弄), 낙(樂), 편(編)과 같은 변주곡들이 파생되었다.[1] 국악계에서는 대체로 초수대엽에서 소용이까지의 곡을 기본형으로, 농(弄), 낙(樂), 편(編)의 세 유형은 기본형에서 변화된 파격(破格)의 곡으로 인식하고 있다.[2] 이러한 파격은 음악적인 형식에서 뿐만 아니라 사설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을까

1)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2004, 419-424쪽.

2) 장사훈, 『국악총론』, 정음사, 1979, 255쪽. 국악계에서는 농(弄), 낙(樂), 편(編)을 묶어서 소가곡으로 칭하고 있다.

하는 의문이 든다. 음악적인 형식과 사설의 성격의 관계는 닭과 달걀의 관계와 같아서 그 선후를 규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농, 낙, 편의 사설이 시조의 기본형에서 길어진 형태인 사설시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음악적으로는 가곡의 기본형에 속하는 곡들에 비하여 흥청거림이 많고 멋을 부려서 부르는 선율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농, 낙, 편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서와 함께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은데, 이러한 주제들이 많은 것은 음악의 성격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랑을 노래한 시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은 농, 낙, 편의 음악형식이나 선율의 움직임이 사랑의 감정을 담아내는 데에 잘 부합되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판소리에서는 음악과 사설의 내용이 잘 부합되는 경우를 '이면에 맞게 소리한다.[3], '이면을 그린다.[4]라고 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더러 발견되며, 관련 연구도 적지 않다.[5] 그런데 시조의 사설과 음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영언(靑丘永言)』의 이수대엽, 낙, 만횡청류의 사설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기존 연구가 있으나[6]

---

3) 판소리의 사설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 깊은 소리를 이해하려면, 노래를 부르는 것 외에도 한문으로 된 판소리의 내용을 이해해서 노래와 똑 떨어지게 해야 이면이 맞고 완벽한 소리가 되는 것이다.(성창순, 『넌 소리 도둑년이여』, 언어문화, 1995, 145쪽.)

4) 천이두, 『판소리 명창 임방울』, 현대문학사, 1986, 349쪽.

5)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리듬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 36집, 한국국악학회, 2004.
최동현, 「판소리 이면에 관하여 -사설과 장단을 중심으로」 『판소리 연구』 제14집, 판소리학회, 2002.
박판수, 「판소리 텍스트의 "이면"의 구현 양상 연구」 판소리 연구』 제14집, 판소리학회, 2002.

6) 송종관, 「창사로서의 시조문학 -이수대엽, 낙시조, 만횡청류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18집, 한민족어문학회, 1990.

각각의 곡들에는 서로 다른 주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정도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 변미혜의 연구에서는 사설의 연음표 분석을 통해서 선율의 변형 양상을 구명하려고 하였으나[7] 음악의 특성에 의해서 사설의 성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김세종의 연구에서는 '각조체격(各調體格)'과 '풍도형용(風度形容)'의 역사 및 쓰임, 미학적 의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8], 사설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음악과 사설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歌曲源流』의 발문(跋文)의 아래 내용으로 인하여 악곡(樂曲)과 시조의 사설에는 큰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 우조나 계면조는 본래 어느 한 쪽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조가 계면조로 될 수 있으며, 계면조 역시 우조로 창화될 수 있다. 그리고 삭대엽・농・락・편 등은 서로 옮겨 부를 수 있는 것이니 악보상의 곡목 명에 치우치지 않음이 좋다.[9]

음악과 사설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사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위의 지적은 가곡의 선율이 분화되거나 새롭게 창작되는 과정 중에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 농, 낙, 편의 통시적인 변화과정에서는 기존의 사설을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새로운 사설을 창작하여 선율에 얹어서 불렀을 것이기 때문

---

7)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 선율의 변형(5) -남창 계락,우락,언락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제 36집, 한국국악학회, 2004, 195쪽.

8) 김세중, 「악조(樂調)의 정조(情調)」『한국 음악학의 지평』, 민속원(황준연교수정년퇴임기념논집간행위원회), 2014.

9) 羽界 本非係着者 亦推移有權變之度 唯在歌者之變通 而或以羽爲界 以界爲羽 數大葉弄樂編 相互 推移歌之 非徒以譜上名目偏執可也.(『歌曲源流』,「跋」)

이다. 그렇지만, 농, 낙, 편으로 가곡이 완전하게 분화된 이 후에는 그 곡에 맞는 사설이 선택되어 불려 질 것이었기 때문에 곡의 성격에 맞게 사설이 고정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풍도형용'은 음악적으로 속도와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래가사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10]에 의해서도 사설이 곡의 성격과 부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검토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농, 낙, 편 중에서 농과 낙의 사설을 비교하고자 한다. 농과 낙으로 분류되어 있는 곡에는 특히 사랑이라는 주제를 함유하고 있는 시조가 많은데, 농과 낙의 사설의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가곡의 선율 및 악조(樂調)의 차이가 사설의 결합 양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대상과 연구 방법

본고는 함화진의『增補 歌曲源流』[11]의 농·낙 계열의 곡들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다.

『가곡원류』에는 여러 종의 이본(異本)이 있으나 함화진의『增補 歌曲源流』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로 이 책은『歌曲源流』계 가집을 저본으로 삼고 있으며, 육당본『靑丘永言』과 주씨본『海東歌謠』에 수록된 것을 추가하였으며, 특히『歌曲源流』계 가집의 이본의 하나인『海東樂章』을 참고하였기에 많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둘째,『증보가곡원류』에는 '만횡'이라는 장르가 없어지고 농·낙·편이 각각의 곡으로 분화되어 그 체계가 정착되어 전하고 있다. 이는 소가곡의 사설이 곡에 맞는 내용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12], 기본형 가곡과 구분되는 소가곡의 사설 성격에 대한 구명을 하는 데에

10) 문주석, 『歌曲源流 新考』, 지성人, 2011, 173쪽.

11) 함화진 편·황충기 역주, 『증보 가곡원류』, 푸른사상, 2005.

12) 기존 연구 중『興比賦』와 그 전사본인 『樂府』의 비교를 통하여, 사설과 곡조 간의 고정성이 비로소 생겨난 시기가 19세기 중반~20세기초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전재진, 「가집『興比賦』의 전사본과 19C 후반~20C 초반 가곡의 변화양상」『정신문화연구』2007 여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증보가곡원류』는 시조창(時調唱)의 대본으로 엮은 것이 아니라 가곡창(歌曲唱)의 대본으로 엮었다는 점이다.[13] 이는 가곡의 음악적인 특성이 사설과 어떤 양상으로 결합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가 편찬 과정에서『증보가곡원류』의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은 까닭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증보가곡원류』의 사설시조 화자의 어조(語調)를 화제에 대한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사랑과 관련된 사설의 성격을 8가지 주제로 나누어 검토 해 하도록 한다. 농과 낙의 사설로 불린 사랑에 관한 사설시조 성격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조를 바탕으로 하여 사랑이라는 주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위주제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과 낙에서 즐겨 불린 사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의 분석에서는 사설시조에 나타나 있는 주제의 성격, 화자의 감정의 강도, 표현기법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농과 낙에서의 양상을 비교하고, 기존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농과 낙의 음악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농과 낙의 사설이 곡의 특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 중 편계열의 곡과 계락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농과 낙이 각각 이수대엽과 초수대엽 계열이라는 명확한 음악적인 차이가 있으나,[14] 편계열의 곡은 음악적으로 보았을 때 편은 '엮음', '사설'과 같은 말로서 음악적인 리듬이 촘촘하다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15] 그리고 계면조로 되어 있는 '낙'의 곡인 '계락'은 계면조와 우조의 음악적인 특성이 농과 낙의

름호 제30권 제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63쪽). 따라서 『增補 歌曲源流』 시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13) 함화진 편・황충기 역주, 앞의 책, 30쪽.

14) 황준연, 「가곡(남창) 노래선율의 구성과 특징」『한국음악연구』제 29집, 한국국악학회, 2001, 66쪽.

15) 장사훈, 『最新國樂總論』, 세광음악출판사, 1985, 441쪽.

사설과의 결합 양상을 연구 목적으로 하는 본고의 연구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Ⅱ. 농과 낙의 사설의 성격 분류 및 음악과의 연관성

1. 사랑을 주제로 한 사설시조 사설의 성격과 어조(語調)

『증보가곡원류』는 남녀창의 구분이 없이 분류해 놓았는데, 이는 국악원본 『歌曲源流』와 그 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증보가곡원류』에는 국악원본에 있는 '만횡'이 없고 대신에 '장대엽'과 '계면조 소용', '평롱', '태평가'의 곡목이 늘어났다. 이로써 『증보가곡원류』에는 소가곡이 언롱(言弄), 평롱(平弄), 계락(界樂), 우락(羽樂), 언락(言樂), 편락(編樂), 편수대엽(編數大葉), 언편(言編) 등 8개의 곡으로 나뉘어져 실려 있다. 『증보가곡원류』에는 1356수의 시조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농과 낙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조는 305수이며, 각각의 편수는 다음과 같다.

〈표-1〉『增補 歌曲源流』의 농과 낙의 현황

편명	농		낙			
	언롱	평롱	계락	우락	언락	편락[16]
수	42	125	53	33	45	7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증보가곡원류』에는 농이 167곡, 낙이 138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평롱의 곡이 가장 많다.

농과 낙에 대한 음악적, 문학적인 실체에 대한 구명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

16) '편락'의 곡의 성격에 대해서 장사훈은 편락을 '편'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리듬에 의한 분류일 뿐 편락의 기본 성격은 '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편락'이라는 곡명에서 알 수 있듯이 '락'의 선율을 촘촘하게 엮은 것이기 때문이다.

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농과 낙은 모두 흥청거리며 폭넓은 요성(搖聲)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기본형 가곡과는 구별된다.[17] 기본형가곡에서 농과 낙이 파생된 시기는 대체로 19세기 벽두의 악보인 『유예지』에 처음 나타난 이후에 낙은 19세기 중기에, 농은 20세기 초기에 현재와 같은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19세기 풍류방 문화의 산물이다.[18] 기본형 가곡은 초수대엽부터 소용이까지의 6곡이며 농과 낙은 기본형에서 변화된 파격(破格)의 가곡인데, 가사와 선율에 있어서 기본형과는 차이가 있다. 즉 농과 낙은 3장과 5장의 일각 부분을 확대하는 작곡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사설이 길어짐에 따라서 1, 2, 4장은 그대로 두고 3장과 5장의 앞부분을 늘인 것이다. 농과 낙이 자수가 늘어나 장형시조를 얹어 부른 곡이라는 것은 『서금가곡』이나 『학포금보』에 소가곡에서 늘어난 자수(字數)를 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는 각(刻・脚・角)을 나타내기 위한 '각표'라는 별도의 항목을 두고 있음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19] 그리고 사설이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설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형에 비해서 파격적인 가사들이 많이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설시조의 사설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에 나타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내용을 비슷한 성격에 의해 분류하려는 시도는 일찍이 시도되었으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시조 전체에 대한 분류로는 윤영옥의 책 『時調의 理解』[20]에서 인간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모습을 망라하여 인륜(人倫), 권계(勸戒), 개세(慨世), 우풍(寓諷), 회고(懷古), 송축(頌祝), 규원(閨怨), 별한(別恨), 연군

17) 장사훈, 앞의 책(1985), 432쪽.

18) 김영운, 「가곡과 시조의 음악사적 전개」 『한국음악사학보』 제 31집, 한국음악사학회, 2003, 148쪽.

19) 김영운, 『가곡 연창형식의 역사적 전개 양상』, 민속원, 2005, 101쪽.

20) 윤영옥, 『時調의 理解』,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戀君), 한정(閑情), 취흥(醉興), 감물(感物), 우시(憂時), 술사(述思), 선울(宣鬱), 염정(艶情) 등16여가지의 항목으로 주제를 나눈 것이 있다. 그리고 사설시조의 모태로 알려져 있는「만횡청류」에 대한 분류에는 이능우의 (1) 남녀문제를 다룬 것들, (2) 중국 문화에 적셔져 있는 것들, (3)인생 허무를 노래하고 있는 것들, (4) 인사문제(人事問題)에 모티브가 있는 것들, (5) 물상(物象) 및 生物을 테마로 한 것들 로 다섯 가지로 나눈 분류가 있다.[21]

『증보가곡원류』의 소가곡에도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발견된다. 이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며,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며 살아가려는 모습, 정치에 관련된 것(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것, 부패한 정치에 대한 원망), 세월에 대한 회한, 중국의 인물에 대한 묘사, 그 시대의 장사·음악·해학 등을 담은 풍속에 관련된 것 등이다.[22] 조선후기의 사설시조의 대다수 작품들에서는 주제가 뚜렷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작품 내 제 요소들이 주제의 구현을 위해 통일되는 양상이 미약한 편이며, '남녀문제'나 '사랑과 향락' 등을 주요 화제로 하고 그 제재·소재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을 추구하는 면이 두드러진다.[23] 특히 소가곡의 주를 이루는 사설시조에는 무거운 주제의 내용보다는 중인이나 서민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가벼운 주제의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사설과 관련된 앞의 학자들의 주제 분류 중에서 사랑과 관련된 내용은 윤영옥의 경우는 규원(閨怨), 별한(別恨), 염정(艶情) 등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큰 주제로 묶여져 있으므로 사랑의 모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능우는 남녀문제를 다룬 것이라는 대분류의 하위분류로서

21) 이능우, 『古詩歌論攷』, 선명문화사, 1966, 285-344쪽.

22) 각각의 주제가 나타나는 작품들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모두 고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본고에서는 사랑에 관한 주제를 좀 더 세분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23) 성호경, 『조선시대 시가연구』, 태학사, 2011, 316쪽.

(1) 음방(淫放)에 모티브가 있는 것, (2) 痴情(치정)들, (3) 상애(相愛) 以前 以後에 모티브가 있는 것, (4) 상열(相悅), (5) 상사연모(相思戀慕), (6) 대인(待人), (7) 이별 등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는데,[24] 이는 만횡청류에 관한 것이고『증보가곡원류』시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랑에 관한 모티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본고에서 살펴볼 소가곡의 사설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랑에 관한 다양한 모습과 정신, 문화를 투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증보가곡원류』에는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사설의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설시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설시조를 창작・향유한 계층과 연행되었던 공간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후기의 사설시조의 기본 성격과 변화 추이는 중간계층의 성격과 그들의 의식・행태의 변화 양상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사설시조를 창작하고 향유한 계층은 경아전・겸인(傔人)・군교(軍校)・액례・기술직중인 등의 중간 계층으로 볼 수 있다.[25] 이 외에도 여항(閭巷)의 평민들이나 기방(妓房)의 기생들도 무명씨의 작가로 참여 하였다. 그리고 사설시조가 연행되었던 공간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곳이었다. 예를 들면 유흥과 오락을 위한 흥겨운 분위기의 잔치자리나 주색잡기(酒色雜技)의 유흥공간에서 향수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6]

사랑에 관한 주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설시조 화자의 어조(語調)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조는 시의 담화구조에서 화자의 태도를 가리키며, 일정한 자극에 대하여 일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는 화자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화제'와 '청자', 그리고 '화자 자신'이다.[27]

---

24) 이능우, 앞의 책, 294쪽.

25) 강명관,「사설시조의 창작향유층에 대하여」『민족문학사연구』제4권, 민족문학사학회, 1993, 419-420쪽.

26) 성호경, 앞의 책, 337-339쪽 요약.

27) 성호경 외,「한국시가의 어조(語調) 유형 분류 시론(試論)」『한국시가연구』제25권, 한

어조는 ① 화제에 대한 태도와 어조 유형, ② 청자에 대한 태도와 어조 유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고전시가에 나타나는 심리적 거리는 대부분 '개입'의 형태가 대부분이고, 청자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화제에 대한 태도나 감정을 기준으로 하여 사설시조의 어조를 ① 희열(喜悅), ② 비애(悲哀), ③ 관조(觀照) 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사랑과 관련된 여덟 가지의 세부적인 주제로 분류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분류는 음악적으로 계면조와 우조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곡의 곡태(曲態)가 사설시조의 사설의 성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사랑을 주제로 한 사설의 성격을 어조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8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았다.[28]

〈표-2〉 사랑과 관련된 주제 분류

어조	주제	내 용
희열(喜悅)	구애(求愛)	사랑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구애(求愛)의 행동과 정서
	희락(喜樂)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과 모습
	성애(性愛)	육체적 사랑에 관한 구체적 모습
비애(悲哀)	좌절(挫折)	사랑을 이루지 못함으로서 느끼는 정서적 상태(한탄, 분노, 질투)
	연모(戀慕)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과 모습
	이별(離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에 관한 심정과 모습
관조(觀照)	금기(禁忌)	정상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사랑의 형태
	절제(切除)	사랑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고 초월하는 정서적 상태

'희열'의 어조로 분류된 주제인 '구애', '희락', '성애'에는 화자의 심리 상태가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과 사랑을 통하여 즐거움과 행복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국시가학회, 2008, 311쪽.

28) 분석해야 할 사설시조의 모든 작품이 이러한 어조(語調) 분류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각 주제에 나타나는 화제, 화자, 청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사랑에 관한 8개의 주제를 세 개의 어조에 분류한 것은 논의의 편을 위한 것이므로 어조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본문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다. '구애'는 사랑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구애의 행동과 정서를 말하며,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자신의 감정을 의탁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을 통한 즐거운 모습으로 분류한 '희락' 항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나 사랑의 행위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성격을 가진 작품들에게서 발견되는 모티브이다. '희락'의 주제로 분류된 작품은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이 여과없이 나타나는 작품이 많다. 그리고 육체적 사랑에 관한 구체적 모습에 대한 '성애'는 정서적인 강렬함이 작품 전체에 나타나고 있으며 사랑을 이루었음을 행복하게 표현하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비애'의 어조로 분류된 주제인 '좌절', '연모', '이별'에는 화자가 사랑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감정이 드러난다.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노, 시기, 질투와 같은 '사랑의 좌절'은 사랑을 이루지 못함으로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상태이다. '좌절'의 감정은 화자의 심리적인 깊이가 비교적 깊은 감정으로서 그 표현도 직설적이고 자아도취적인 경우가 많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연모'는 임과의 '이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별'의 주제로 함께 묶을 수도 있겠으나, 후자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순간에 관한 것이라면 전자는 이별 후의 모습으로 차이가 있다. '좌절', '연모'. '이별'의 작품에는 화자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관조'의 어조로 분류된 주제인 '금기'와 '절제'의 주제는 화자가 화제의 외적인 상태에 주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금기'의 주제로 분류한 작품들에서 화제에 대해 정서적 관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가와 화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관찰자의 입장인 경우가 많다. '금기'의 주제로 불린 작품들은 작가가 직접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실행'의 측면보다는 당시에 금기 시 되었던 사랑의 행동에 대해 관찰자가 되어 노래한 작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금기'의 항의 작품은 양반들의 축첩제도나 매매춘(기생)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금기시되던 것이기에 부인 또는 남편

이 아닌 사람과의 사랑이나 승려와의 애정행각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의 작품이 분류되었다.[29] '절제'의 주제로 분류된 작품은 '사랑'에 대해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초월하는 정서적 상태로서 '사랑'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관조'의 어조로 분류하였다.

2. 『增補 歌曲源流』의 농과 낙 사설의 특성 분석[30]

1) '희열(喜悅)' 어조로 분류된 주제의 사설 분석

(1) 구애(求愛)

구애(求愛)란 '이성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랑하는 상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또는 선물이나 다양한 보상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게 된다. 『증보가곡원류』는 남녀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중 화자의 성별을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형태로 구애에 대한 시가 수록되어 있다. 작품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구애'와 관련된 작품은 아래와 같다.

---

29) 특히 양반 계층에서의 일탈은 조선시대에 사회구조적으로는 묵인되고 있었으나, 남녀가 똑같은 성정(性情)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금기시되던 사랑의 행각과 차이가 없어서 금기 항에 넣었다.

30) 농·낙·편에 속해 있는 370수의 시조를 모두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랑에 관한 주제 분류를 통하여 농과 낙에 사용된 사설의 성격을 구명하려는 본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의 주제에 해당하는 모든 작품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제시하되(『增補 歌曲源流』의 작품 번호를 제시) 작품에 대한 분석은 논의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선별하여 설명하되, 같은 주제를 가진 작품들이 농과 낙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정착되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표-3〉 '구애(求愛)'의 작품

주 제	농	낙
구애 (사랑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구애(求愛)의 행동과 정서)	1102	1228, 1230, 1231, 1238, 1245, 1247, 1269, 1274

구애에 관한 작품은 작중 청자와 화자의 거리에 의해서 두 가지로 구별이 가능하다. 즉 청자가 멀리 있어서 화자는 그 마음을 들려 줄 수는 없으나 자기의 사랑의 의지를 결연하게 노래하는 작품들과 청자가 곁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물론 전자와 후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한 종류의 것으로 해석될 수 도 있으나 작품을 잘 살펴보면 그 성향에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임을 향해서 자기의 심정을 나타내는 작품에는 임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임이 곁에 있다면 사랑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노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넝쿨이라는 같은 소재를 사용한 두 작품이 농과 낙에 각각 하나씩 있어서 주목되는데, 두 작품은 그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 어룬자너출이야 에어룬자박너출이야 어인너출이담을손쥐는고야 어룬님 이리로서 저리로갈쩨손을쥐려하노라 『增補 歌曲源流』#1102

> 임이란淮陽金城오리남기되고 나는三四月츩넌출이되여 그남게감기되이리로찬찬저리로츤츤외오풀쳐올이감겨밋부터끗가지찬찬구뷔나게휘휘감겨주야장상에뒤트러저감겨얽혓과저 冬짓달 바람비눈서리를아무만마진들풀닐줄이잇시랴 『增補 歌曲源流』#1228

두 작품의 화자의 임은 현재 곁에 없고 임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

고 있다. 그런데, 마음의 강도가 사뭇 달리 나타나고 있다. #1102 작품에서는 박넝쿨이 담을 넘어가 손을 주는 것에 비유하여 사랑하는 임이 '이런 까닭으로 왔다가 저런 사정으로 갈 때는' 손을 주겠노라고 노래하고 있다. '손을쥐려하노라'라는 표현도 매우 대담하고 적극적이지만, #1228의 작품에 비하면 그 강도가 약하다고 하겠다. #1228의 작품에서는 임을 나무로 비유한 후 자기는 임과 함께하고 싶은 칡넝쿨이 되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임과 휘휘 감겨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뒤틀어져 감겨서 얽혀 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위의 상황이나 세상의 어려움으로 비유되고 있는 '동짓날 바람비눈서리'에도 자기는 결코 풀리지 않겠노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작품이 구애라는 비슷한 심상을 드러내고 있고, 넝쿨이라는 이미지가 임과 함께 얽혀 있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므로 임과의 강한 만남을 희구하는 구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낙의 작품에 보이고 있는 강도[31]는 농의 작품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낙의 작품들 속에 구애와 관련된 사랑의 노래가 많이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인데, 다른 몇 작품을 살펴보면 그 양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임이가오실ㅅ제 노고네를두고가니 오노고가노고보내고그리노고 그中에 가노고보내고그리노고란다몰쏙깨쳐버리고오노고만두리라 『增補 歌曲源流』#1230

> 가슴에궁글에둥실케쑬코 왼색기를눈길게느슷느슷꼬아 그궁게그색기너허두놈이마조잡고훌근훌근나드릴제그는아못조로나견듸려니와 활이나 님외오살나하면그는그리못하히라 『增補 歌曲源流』#1238

31) 낙의 작품은 구애를 넘어서 '성애'적 사랑을 노래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사랑의 확신, 강도,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1230의 작품은 언어의 유희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가고 보내고 그리워하고는 전부 다 깨버리고 오노고만 두겠다'는 말은 이별과 관련된 말은 모두 깨버리고 임이 오는 것만을 남겨 두겠다는 뜻으로서, 임이 자기에게로 와서 사랑을 해 줄 것을 고백하고 있다. #1238 작품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견딜 수 있으나 임의 부재는 견딜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작품이다. 1238번의 작품에서는 어려운 시련을 가슴에 구멍을 뚫고 왼새끼를 그 구멍에 드나드는 것으로 비유하여 그것은 견딜 수 있으나 임이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1231의 작품에서도 '전[32]이 없는 둥근 놋 쟁반에 물이 묻은 순을 가득이 담고 어떠한 누각에라도 발을 벗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으려니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할 수 있으나 하루라도 임 없이 홀로 살라고 하면 그리는 못 하리라'라는 고백은 임에 대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1238번의 작품과 그 구조가 비슷하다. 그리고 #1245의 작품에서는 고래가 물을 들이켜 세게 치밀은 바다로 비유된 험한 그 어떤 곳이라도 '발벗고상금거러가리라'라는 시구를 통해 임과의 만남에서는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없다는 강한 의지를 고백하고 있다.

구애의 양상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임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 한 것도 발견된다. 대체로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송하면서 이러한 임에게 사랑을 주겠노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

> 눈썹은슈나븨안즌듯 니ㅅ바뒤는박씨까세운듯 날보고당싯웃는냥은三色桃花未開封이하로밤비 ㅅ氣運에半만절로핀形狀이로다 春風에胡蝶이되야서간곳마다좃츠리라『增補 歌曲源流』#1247

> 웃는냥은잇바대도좃코 핡의는양은눈씨도곱다 안거라서거라건너라닷거라어허내

32) 그릇의 주변을 나부죽하게 만든 부분임.

사랑삼고라지고 네父母 너삼겨내오실ㅅ제날만괴라내시도다『增補 歌曲源流』 #1269

#1247의 작품은 화자가 남자로 판단되며, 여인을 '반만 핀 삼색 복숭아 꽃'에 비유하여 그 아름다운 모습과 수줍은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봄바람에 호접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따라가겠노라는 고백을 통하여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는 임이 멀리 있지 않고 화자의 바로 앞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269의 작품에서도 여인의 웃는 모습과 흘기는 눈매에 대해 묘사하고 여인의 어떠한 모습(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뛰거나)에서도 사랑을 느끼고 있으며 사랑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임을 낳을 때 나만을 사랑하라고 나시었다는 확신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남자가 화자인 두 작품과 달리 여자가 화자인 #1274 작품에서는 '丈夫에 深花之情을任不禁이니一時花容을 앗겨무삼하리요'라고 하여 장부가 꽃을 찾는 정은 막을 수 없으니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임을 위해 드리겠노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

구애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랑의 표현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았던 조선시대에서도 남녀의 사랑을 얻기 위한 강렬한 메시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사랑하는 임을 위해서는 극복할 수 있겠노라는 의지와 곁에 있는 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사랑하겠노라는 고백은 농과 낙의 사설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애에 관한 작품이 농에서는 하나 밖에 없는 것에 비하여 낙에서는 여덟 수나 되어서 주목된다. 이는 구애라는 것이 사랑을 얻기 위한 적극성을 띄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농의 사설에 비해 낙의 사설이 사랑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애의 주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낙의 사설의 성격이 '화란춘성'이라는『가곡원류』의 형용과 매우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희락(喜樂)

사랑의 즐거움과 관련된 주제의 경우 그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즐거움이라고 했을 때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정상적인 것으로 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육체적인 것은 '성적(性的) 행위' 항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의 금기(禁忌)'항으로 따로 분류하고, 이 항에서는 사회에서 인정되는 정상적인 사랑에 의한 즐거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나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성격을 가진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사랑의 즐거움을 표현한 작품은 낙보다는 농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농과 낙에서 그 성격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4〉 '희락(喜樂)'의 작품

주 제	농	낙
희락(喜樂)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과 모습)	994, 1006, 1034, 1040, 1042, 1067, 1082	1212, 1218, 1219, 1277

사랑의 즐거움을 표현한 작품들은 세 가지 주제로 다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즐거움을 고백한 것, 둘째는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작품, 셋째는 사랑의 즐거움을 재미있는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소주제를 표현한 것이 가장 많고 다른 주제의 작품들은 두 세 작품들이 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이 노래로 표현된다. 이러한 사랑의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고백하는 어조로 불리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랑사랑고고이맷친사랑 웬바다흘두루덥는그물것치맷친사랑 往十里라踏十里라참외넛츨水박넛츨얼거지고트러저서골골이벗어가는사랑 아마도 이임의사랑은끗간듸를몰내라 『增補 歌曲源流』#1082

사랑사랑긴긴사랑 개천갓치내낸사랑 九萬里長空에넌즈러지고남는사랑 아마도 이임의사랑은가업슨가하노라『增補 歌曲源流』#1219

사랑의 노래는 농과 낙에서 각각 한 작품씩 있다. 두 작품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랑'의 단어를 비유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다. 작품 #1082과 #1219 는 그 비유의 대상은 넓은 바다를 덮을 수 있는 그물, 참외나 수박의 넝쿨, 개천, 구만리장공 등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있다. 그 비유의 대상처럼 자신의 사랑이 넓고, 길고, 넘쳐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임과 함께 얽혀서 지내고 싶은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임과의 사랑이 끝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직접적인 즐거움을 노래하는 작품이 전체 작품 중에서 많지 않은 것은 당시 유교사회의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사설의 분위기에서 느껴지듯이 화자는 사랑의 즐거움을 직설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정을 노래하고 부부간의 인연을 소중히 하겠다는 내용의 작품은 사랑의 즐거움을 표현한 여러 노래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가 모두 농에만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다.

洞房華燭三更인제 窈窕傾城玉人을만나 이리보고저리보고처다보고다시보니時年은二八이오顔色은桃花ㅣ로다黃金釵白苧衫에明眸를흘니쓰고半開笑하는양이오로다내사랑이로다 그밧게 吟詠歌聲과衾裏嬌態야일너무삼하시오 『增補 歌曲源流』#994

金化金城수수째半만어더 조그만말마치주푸리여움을뭇고 조粥니粥白楊箸로찍

어자네자오나는마의서로勸하올만정 平生에 離別累 업스니긔조흔가하노라 『增補 歌曲源流』#1042

위의 작품 중 #994의 화자는 첫날밤을 맞이한 신랑이며, #1042의 작품은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두 작품 모두 사랑의 감정이 풍부하다. #994의 작품에는 첫날밤 신부를 대하는 신랑은 신부의 얼굴과 자태에 대해서 아름다운 묘사를 하고 있으며, 서로의 행복한 상황을 잘 노래하고 있다. #1042의 작품에서는 죽을 쑤어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살림을 가진 두 부부가 서로 권하면서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별이 없음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있다. 이러한 심상은 김시경의 작품인 #1067에도 나타나는데, 부부간의 백년동락을 비유를 통하여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의 종장에서는 '우리는 連理枝並蒂花를임과나와것거쥐고鴛鴦衾翡翠衾에百年同樂하리라'라고 노래한다. 연리지는 두 나무가 서로 맞다서 결이 통한 것이며 병체화는 한 뿌리에 두 개의 꽃이 핀 것으로 모두 부부간의 사랑과 화목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수장의 작품인 #1040 에서도 아무리 예쁜 여인이 있어도 인연을 맺지 않고 자신은 '定허신 配匹밧게야거들써볼ㅅ줄잇시랴'라고 노래하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농의 작품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많고, 유려(流麗)하면서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낙의 경우는 사랑의 노래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서 그 특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사랑의 즐거움을 재미있는 표현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아래細가락모래 아무만밟다발자죄다며 임이나를아모만괴인들 내아든가임의情을 狂風에 지붓친沙工잣치깁히를몰나하노라 『增補 歌曲源流』#1212

콩밧헤드러콩닙쓰더먹는감운암소를 아무만쏫츤들그콩닙바리고저어듸가며 이불아래자는님을발노툭차서미적미적하며어서나가소한들이아닌밤에날바리고저어듸

로가리 아마도 싸호고못미틀쓴임이신가하노라 『增補 歌曲源流』#1277

#1212의 작품은 임의 사랑에 대해 그 깊이를 모르겠다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노래하고 있다. 즉 모래를 아무리 밝아도 자취가 나지 않으며 임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여도 내가 그 정(情)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헤아리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따라서 지극히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1277의 작품은 전형적인 부부싸움을 형상화하고 있어서 익살이 넘치는 작품이다. 이불 아래 자는 님을 발로 툭 차서 밀어내며 어서 나가시오 한들 이 밤중에 나를 버리고 임이 어디를 가겠느냐면서, 싸우고도 못 말린다는 것은 임과 싸움은 하지만 임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1218 의 작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칭칭 얽고 동여 짊어지고 태산준령(泰山峻嶺)을 넘어 갈 때 임의 무게에 눌려 죽을지언정 사랑을 지키겠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낙의 노래는 임의 정에 대한 깊이를 광풍에 노를 젓는 사공을 통해 노래한다거나 이불아래에서 벌어지는 부부싸움의 묘사, 임을 업고 높은 산을 넘어가는 모습 등 사랑의 즐거움을 담담하고 익살이 넘치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즐거운 노래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늘 아름답게 보여 진다. 농과 낙에는 전형적인 사랑의 고백 노래가 한 편씩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외의 작품들에서는 농과 낙에서 사랑의 노래가 조금씩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농에서의 사랑의 즐거움을 표현한 노래들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유려(流麗)한 문장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낙의 작품에서는 재미있는 상황을 묘사한 노래들로 되어 있어서 익살스러운 느낌이 발견된다.

(3) 성애(性愛)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성적 행위는 매우 강렬한 것이며 자연스럽게 열망하는 것이다.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육체적인 사랑의 표현인 성행위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비록 밖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지라도 성과 관련된 작품은 그 시대에도 창작되었으며 노래로 불렸다. 특히 평시조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진솔하고 대담한 표현들이 농과 낙의 사설로 쓰인 사설시조에서는 더러 발견된다. 사랑의 주제 중 성적행위에 관한 작품은 농과 낙이 각각 3편으로써 작품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표-5〉 '성애(性愛)'의 작품

주 제	농	낙
성애(性愛) (육체적 사랑에 관한 구체적 모습)	1034, 1089, 1109	1253, 1275, 1288

성적 행위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성에 대한 희구(希求)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과 성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농과 낙의 작품은 이 두 가지 소주제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먼저 농의 두 작품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高臺廣室나는바이 錦衣玉食더욱매매 銀金寶貝奴婢田宅蜜花珠것칼紫的香織赤古里싼머리石雄黃오로다쏨자리로다 平生에 나의願하기는말잘하고글잘하고人物개자하고품자리가장알ㅅ들이하는젊은書房인가하노라 『增補 歌曲源流』 #1034

色것치조코조흔것을 제뉘라서말니돗던고 穆王은天子ㅣ로되瑤臺에宴樂하고項羽는天下壯士ㅣ로되 滿營秋月에悲歌慷慨하고明皇은英主ㅣ로되解語花離別헐제馬嵬

驛에우럿나니 지금에 餘남운少丈夫야멧百年살니라해올일아니하고속절업시늙으리요 『增補 歌曲源流』#1089

위의 작품 중 #1034의 작품은 화자가 여성으로서 세상부귀는 모두 꿈자리에 지나지 않고, 젊은 서방을 얻고 싶어 하는 강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젊은 서방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말잘하고글잘하고人物개자하고품자리가장알ㅅ들이하는' 서방이다. 이 중에서 화자가 중시여기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맨 나중에 언급하고 있는 '잠자리를 가장 알뜰하게 하는' 항목을 통해서 성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는 젊은 서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89의 작품의 화자는 목왕(穆王)이나 항우(項羽)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많은 남자로 파악된다. #1109 의 작품에서도 '雲雨[33]會하니 路柳墻花를적서나볼가하노라'는 시구를 통하여 그 화자가 남자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적인 행위에 대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89의 화자는 왕의 권력보다도 색(色), 즉 성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색(色)처럼 좋은 것을 왜 말리느냐며 반문하면서 자신은 색을 탐닉하며 늙고 싶음을 토로하고 있다. 세 작품의 화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성적 행위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농의 작품에서는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보다는 성적 행위를 바라는 마음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낙의 작품에서는 농의 작품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농의 작품들이 성적 행위를 희구하는 작품들이라면 #1275의 작품[34]을 제외한 낙의 두 작품에서는 성적인 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가 나타난다.

---

33) 운우(雲雨)는 남녀간의 성적 행위를 가리킴.

34) # 1275 의 작품은 '閣氏네 아모리숫보아도하로밤격거보면젊은愛夫의將軍될ㅅ가하노라'라는 종장의 시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의 작품에서와 같이 성적인 희구의 경향을 띄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드립써바드득안흐니 細허리가자륵자륵 紅裳을거드치니 雪膚之豊肥하고擧脚蹲坐하니半開한紅牧丹이香郁於春風이로다 進進코 又退退허니茂林山中에水春聲인가하노라 『增補 歌曲源流』#1253

靑올치六날麻土履신ㅅ고 揮帒長衫을두루처메고 瀟湘斑竹열ㅅ두마듸를쌱리채싸혀집고靑山石逕의굽은늙은솔아래로누은휙근휙근누운흭쓴동넘어가올제면보신가못보신가긔우리男便중禪師외러니 남이사중이라하여도玉갓흔가슴우희수박갓흔듸구리를둥글썰썰썰둥글둥글둥글둥들둥글어저긔여올나올ㅅ제면내사조와중書房이 『增補 歌曲源流』#1288

#1253 의 작품은 농과 낙의 전체 작품을 통틀어서 성행위에 대한 가장 자세한 묘사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남자인 화자는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細허리가 자륵자륵', '雪膚之豊肥' 등과 같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목단(牧丹)에 빗대어 여자의 성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進進코 又退退허니茂林山中에水春聲' 과 같이 성적 행위의 모습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1288의 작품은 여자인 화자에 의해 선사(禪師)와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승려와의 성행위 자체가 음탕한 것일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玉갓흔가슴우희수박갓흔듸구리'와 같이 성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둥글썰썰썰둥글둥글둥글둥들둥글어'처럼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위의 두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는 농의 작품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성적 행위에 대해 부끄럼없이 진솔하고 대담한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낙의 작품은 농에 비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더 강렬한 어조로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성적 행위에 대한 농과 낙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농의 작품은 성행위에 대한 열망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 낙의 작품은 성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통하여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이러한

사설의 특성은 선율과의 연관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즉 농이 모두 계면조이고 그 선율이 단조로운 것처럼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절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낙의 작품은 그 선율이 화려하고 변화가 많은 것처럼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 및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을 통하여 강한 어조로 대담하고 진솔한 성적 묘사를 하고 있다.

2) '비애(悲哀)' 어조로 분류된 주제의 사설 분석

(1) 좌절(挫折)

사랑의 감정은 미움의 감정과 통하기도 한다. 사랑을 통해서 좌절을 겪게 될 때 사람들은 미움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대체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나, 시기(질투), 분노의 모습으로 표출되게 된다. 지나친 사랑은 지나친 미움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랑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아픔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랑의 좌절에 관한 작품은 농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시기(질투)와 분노와 같이 격한 감정으로 노래하는 작품이 낙에 비해 더 많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6〉 '좌절(挫折)'의 작품

주 제		농	낙
좌절(挫折) (사랑을 이루지 못함으로서 느끼는 정서적 상태)	한탄	993, 1123	1202, 1212, 1213, 1222
	시기(질투)	1018, 1106	
	분노	997, 1019, 1093, 1046, 1127	1263, 1265

사랑에 대해서 한탄하는 작품들은 대략 농과 낙에서 여섯 작품이 있다. 이 작품들은 농과 낙에서의 특성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낙의 작품들에는 작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달바자는쌩쌩울고잔듸속에속닙난다 三年묵은말가죽은외용죄용우지는듸 老處女의擧動보소함박쏙박드더지며逆情내여이른말이바다에섬이잇고콩밧헤도눈이잇네보곰자리사오나와同牢宴첫사랑을쑴마다하여뵈네 그를사 月老繩의因緣인지일락敗락하여라『增補 歌曲源流』#993

한字쓰고눈물지고 두字쓰고한숨지니 字字行行이水墨山水뭐것고나 저임아 울며쓴片紙니斟酌하여보시쇼 『增補 歌曲源流』#1202

위의 두 작품을 포함하여 한탄에 대한 다섯 작품들은 각기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농과 낙에 의한 구분은 쉽지 않다. #993의 작품은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서 동뇌연으로 맺어질 신랑감을 꿈꾸지만, 혼인을 맺어 주는 월하노인의 인연은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1123 작품의 경우는 한탄에 관한 주제로서는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산에 가면 두견새의 울음소리 때문에 슬프고, 물에 가면 닷채는 소리에 한숨짓는다고 하면서 들에 가서 살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다. #1213의 작품은 다른 주제들에서도 더러 보이는 기법으로서 갈고랑 잠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한탄하고 있다. 끝으로 #1202의 작품과 #1222의 작품은 사랑에 대한 한탄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어조로 노래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자신이 님에게 편지를 쓴 행위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도 짐작하여 들어 달라고 하는 호소의 심정이 담겨 있어서 단순히 한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임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처럼 한탄에 관한 주제는 각 작품들이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농과 낙에서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공통적인 심상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낙의 작품 중에는 한탄과 함께 임에 대한 호소로 되어 있는 작품이 두 작품이 있어서 농의 작품과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랑의 좌절에 관한 소주제 중에는 시기(질투)에 관한 것이 농에 두 편이 있

다. 그 중 한편은 작자미상의 #1018번 작품이다.

> 靑的了한歡陽의쌀년 紫的粧옷을뉘처발일년아 엇그제날속이고또누를마저속이려하고 夕陽에 가느단허리를한들한들하느니 『增補 歌曲源流』#1018

과연 위의 시조가 노래로 불리워졌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원색적인 욕설로 되어 있다. 歡陽이라는 것이 '화냥'의 음차로 볼 수 있으며, '년'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여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자신을 속인 것과 미모로서 자신의 임을 유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남자 저 남자 유혹하는 여인에 대하여 남성 화자가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좌절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1106의 시조도 위의 시조와 비슷한 감정을 보이고 있으나 작중 화자는 남성이다. 즉 '얼골곱고뜻다라온년아 行實조차不淨한년아'라고 상대 여성(이 시조에서는 기생으로 판단됨)에게 일갈 한 후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밤을 지새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장에서는 기생이 본래 주인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물을 탓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맺고 있어서 #1018의 시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강한 어조로 드러내는 시조는 낙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농에서 위의 두 곡이 있을 뿐이다.

사랑으로 인하여 생기는 좌절의 감정은 한탄과 시기보다 깊어지면 분노로 치닫게 된다. 분노와 관련된 작품은 낙에 비해 농에 더 많이 나타난다.

> 바둑이검둥이靑삽살이中에 조노랑암캐가치얄밉고도잣뮈우랴 미운님오게되면꼬리를홰홰치며반겨내닷고고흔니오게되면두발을벗뛰고코쌀을찡그리며무르락나오락캉캉짓는조노랑암캐 잇튼날 門밧게개사옵세외치는장사가거든찬찬동혀내여주리라 『增補 歌曲源流』#997

술이라하면소물헤듯하고 飮食이라하면헌말등에藥다오듯 兩手종다리잡조지팔과흘기눈에안팟곱장이고자男便을망석중이라안처두고보랴 門밧게 桶메옵소하고 외는장사네나자고잇거라『增補 歌曲源流』#1093

술붓다가盞골케붓는妾과色한다고서새음甚히하는안해 한배에모도실어다띄오리라한바다에 狂風에 놀나깨닷거든卽時다려오리라 『增補 歌曲源流』#1265

사랑의 분노에 관한 형태는 위의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나 닭에 대한 원망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의 #997외에도 #1263 작품이 동일한 수법으로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1046의 작품으로서 얄밉고 미운 님을 부엉이로 하여금 잡아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작품이 있다. 둘째는 #1093 작품처럼 직접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며 #1019의 작품도 남편을 '쇠궁치뒤저엇먹는오리'로 비유하면서 같은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셋째는 위의 #1265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서로서 분노의 감정을 승화시키는 것이다. 첫째와 두 번째의 작품들, 즉 농의 시조에서는 분노의 대상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분노의 마음에서 끝이 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낙의 작품에서는 농의 시에서 발견되는 분노에 비하여 그 감정이 약화되고 용서라는 것으로 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첩이나 아내의 행실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한배에다가 실어서 바다에 띄운 후에 광풍에 놀라서 깨닫거든 즉시 데려 오겠노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랑의 좌절에 관한 주제를 노래한 작품들에서는 농과 낙이 한탄에 관한 것에서는 큰 차이점이나 특징을 찾기가 어려운 반면에, 시기와 질투, 분노에 관한 격렬한 심정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는 낙에 비해 농에서 더 잘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의 작품에서는 시기(질투)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 한

작품도 없으며, 분노에 관한 작품이 있으나 용서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어서 농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해져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특히 시기(질투)의 주제를 표현한 농의 작품에서는 상스럽고 원초적인 욕설이 시조에 등장하고 있어서 그 격한 감정의 어조가 꾸밈없이 드러나고 있어서 주목된다. 마치 잔잔하던 바다가 큰 바람에 의해 큰 물결의 격랑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형국인 것이다.

(2) 연모(戀慕)

임에 대한 그리움은 농과 낙의 사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어느 주제보다 높다. 임과의 이별 후에 느끼는 쓸쓸함과 허전함이 시를 만들게 하고 노래를 만들게 하는 에너지가 되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즐거울 때 보다는 슬프거나 외로울 때 시를 짓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음의 작품들에 나타난 심상은 매우 애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의 작중 화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것에서 주목된다.

〈표-7〉 '연모(戀慕)'의 작품

주 제	농	낙
연모(戀慕)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과 모습)	987, 988, 989, 1002, 1005, 1010, 1015, 1020, 1024, 1025, 1048, 1050, 1053, 1073, 1096, 1103, 1104, 1108, 1114, 1115, 1122, 1134,	1208, 1214, 1239, 1245, 1246, 1262, 1270

위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자연에 빗대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몇 작품에서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표현한 시도 있으며 직접적인 원망이나 그리움에 대한 초월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작품도 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은 낙보다는 농에서 그 작품 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표현의 양상에도 차이가 있어서 주목된다.

농의 작품에서는 자신의 그리운 마음을 자연의 대상을 통하여 감정을 드러내는 형태로 되어 있는 작품이 많다.

귓도리저귓도리 어엽부다저귓도리 어인귓도리지는달새는밤에긴소래저른소래節節이슬흔소래제혼자우러네여紗窓여윈잠을살쓰리도깨오는제고 두어라 제비록微物이나無人洞房에내뜻알기는저뿐인가하노라 『增補 歌曲源流』#987

기럭이풀풀다나라드니 消息인들뉘전하리 愁心은疊疊한듸담이와야사씀인들아니쑤랴 찰하로 저달이되여서빗취여나볼ㄱ가하노라 『增補 歌曲源流』#989

#987 작품의 화자는 귓도리(귀뚜라미)가 달밤에 혼자서 슬피우는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귀뚜라미가 비록 미물이지만 자신의 뜻을 아는 존재는 귀뚜라미밖에 없다고 그리움의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시와 같이 그리움을 이입시키는 대상은 귀뚜라미 외에도 기러기(#989, #1020), 원앙(#1015), 꾀꼬리(#1050)와 같은 새가 있다. 심지어는 맹금류인 수리새(#1053)나 매(#1073)도 등장하며 실을 만드는 거미(#1114)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어서 매우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한다. 이는 모두 농의 사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모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 심상을 담고 있으며 처연한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비유에 의한 기법 외에도 농의 작품에서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시도 있다.

재우희웃둑섯난소나무 바람불제마다흔들흔들 개울에섯는버들은무음일좃차서흔들흔들 님그려 우는눈물은올커니와입하고코는어이무음일좃차서후루룩빗죽이는고 『增補 歌曲源流』#1010

임그려깁히든病을 무음藥으로곳쳐내리 太上老君招魂丹과西王母의千年蟠挑樂

加山觀世音甘露水와眞元子의人蔘果며三千十洲不死藥을아모만먹은들할일소냐 아마도 그리든임을맛날양이면긔良藥인가하노라 『增補 歌曲源流』#1122

이러한 시들은 임을 그리워하는 눈물(#1005, #1010, #1104)로 나타나기도 하며, 애태우는 마음 때문에 간장이 녹을 지경(#1015, #1024)이라고 토로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은 병이 들기도 한다. 위의 시에서 임을 그리워하여 깊어진 병은 그 어떤 명약으로도 고칠 수 없으며 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였다. 임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는 견딜 수 없어 직접적인 원망(#1103, #1115)으로 표출되기에 이른다. 상사병이 들어 잠못 이루게 한 임은 얄밉게도 어디를 다니는지 알 수도 없고 주색에 잠겨서 자기에게 돌아올 줄을 모른다고 원망하고 있다. #1103의 시는 아예 '어이하야아니어던가 무삼일노못오던가'라고 임에게 비탄에 잠겨 묻고 있다. 그리움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눈물, 애간장이 녹는 것, 병이 드는 것만큼 더 절실하고 강렬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전반적인 농의 작품에서 보이고 있는 그리움의 양상은 그 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낙의 작품에 보이는 표현들은 농의 작품과는 차이가 있다.

月下에임生覺하되 임의消息바이업데 四更닭울음듯고瀟湘洞庭외기럭이는달을보고한번길게우는고나 언제나 그리든임만나왼밤잘ㅅ고하노라 『增補 歌曲源流』#1270

남이임을아니두랴 사랑도밧첫노라 梨花에나간임을走馬鬪鷄노니다가霽月强風점운날에黃菊丹楓다盡토록金革白馬猶未還이라 두어라 임이비록이젓스나紗窓긴긴밤에幸혀올ㅅ가기다린다 『增補 歌曲源流』#1208

바람은地動치듯불고 구즌비는붓드시온다 눈情에거룬님을오늘밤서로만나자하고判척처서盟誓밧앗더니風雨中에제어이오리 眞實노오기곳올양이면緣分인가하노라 『增補 歌曲源流』#1214

#1270의 작품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농의 작품들과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깊은 달밤에 닭울음 소리와 외기럭이 등 그리움의 모습을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종장에서 보이는 화자의 심상은 기다리는 임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이나 한탄보다는 임을 만나서 온밤을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208의 작품에서도 자신을 잊은 임을 원망하고 있으나 화자는 이미 자신은 임을 위해 '사랑도밧첫노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봄부터 가을까지 기다림에 지쳐있으나 임이 오늘 밤에라도 '幸여올가기다린다'라고 희망을 표현하고 있어서 막연한 한탄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1214의 작품도 '풍우중에제어이오리'라고 자포자기의 내용으로 보일 수 있으나 눈情으로 오늘밤에 만나자고 맹서를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임이 오기만 하면 자신은 '연분'으로서 님을 맞이하겠노라는 마음을 담고 있어서 그리움의 형태가 농과는 차이가 있다. 즉 낙의 작품은 농의 작품에 비해서 처연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움에 대한 여러 모습들 중에서 그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 시킨 작품들도 있어서 해학을 느낄 수 가 있다. 이러한 작품은 농과 낙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紫扉에개즛거늘 임이신가반기너겨 倒着衣裳하고 傾側朔見하니狂風이陣陣하여捲簾하는소래로다 含笑코 出門看하니慚鬼慚天하여라『增補 歌曲源流』#1002

#1002의 작품에는 화자의 초월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개가 짓는 소리와 바람에 의해서 권렴(捲簾)하는 소리를 듣고 옷 입고 나갔다가 '웃음을 머금고 문밖을 나서보니 혼자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를 뻔하였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1134, #1239, #1262와 같은 작품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가보았으나 임이 오지 않아서 '웃음거리가 될 뻔하였

다'라고 허탈해 하고 있다. #1096의 작품에서는 가을 낙엽 소리를 듣고 짖은 개에게 왜 나를 놀래키느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그리움이 너무 깊어서 작은 소리에도 임이 오는 소리로 여기고 내심 기대를 하였으나 임이 오지 않게 되었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거나 개에게 질문을 던져서 아픔을 잊어보려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

그리움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리움의 형태도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 어느 정서보다 현실적이면서 애틋하고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중에서 농에 나타난 사설은 모두 처연한 심상이 묻어나고 있으며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조의 어조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는 농이 음악적으로 모두 계면조로 되어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비하여 낙의 사설에서는 그리움의 양상을 좀 더 담담하게 그려 내고 있으며, 임에 대한 희망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서 그리움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리움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있는 마음의 표현은 농과 낙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이별(離別)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별이라는 주제 자체가 본래 슬픈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농과 낙에 나타난 이별의 정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별을 대하는 태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주목된다. 이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농과 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으며 각각 다섯, 넷 편 정도가 있다.

〈표-8〉 '이별(離別)'의 작품

주 제	농	낙
이별(離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에 관한 심정과 모습)	995, 998, 1110, 1119, 1133	1207, 1217, 1229, 1236

이별을 나타내는 심상에는 한과 설움이 대표적이며, 이는 농과 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두고가는의안과 보내고잇는이와 두고가는이는 雪雍南關에 馬不前이어니와 보내고 잇는의안은 芳草年年에恨無窮을하여라『增補 歌曲源流』#995

> 玉皇ᄭᅴ울며白活하여 별악上宰나리소서 霹靂이震動하며ᄭᅴᄒᆡ치소서 離別두字 그제야 情든님다리고 百年同佳하리라『增補 歌曲源流』#1110

> 임과나와부듸둘이 離別업시사자하였더니 平生怨讐惡緣이잇서굿태나여희연제고 명천이 내뜻을아오사離別업시하소서『增補 歌曲源流』#1229

#995번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별은 두고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모두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향기로운 풀은 매년 자라건만 이별의 한은 끝이 없는 것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별의 정서는 #998의 '아마도 설운離別은百年三萬六十日에오날인가하노라'의 시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럽고 아쉬워하는 감정이다. 농의 작품에서는 이별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을 황제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읊고 있으며(#1110) 임에 대한 호소(#1119)를 통하여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별로 인하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1133에서도 이별이 생기는 구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므로 長離別은 피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낙의 작품에서도 이별에 대한 심상

이 농의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1229 작품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작자 미상의 #1236의 작품에서도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한숨을 쉬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심상이 나타난다.

이별을 주제로 한 작품은 농과 낙에서 정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심상을 표출하는 작품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이별이 가지는 한과 설움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관조(觀照)' 어조로 분류된 주제의 사설 분석

(1) 금기(禁忌)

사회적으로 금기로 되어 있는 사랑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랑보다 더욱 강렬하고 절박한 심정이 요구된다. 이런 까닭으로 인하여 '사랑의 금기'의 주제로 분류된 작품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연모'의 작품 다음으로 그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수는 농에 비하여 낙이 조금 많고, 표현하고 있는 주제에 있어서도 농과 낙에서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의 〈표-9〉는 사랑의 금기와 관련된 내용과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9〉 '금기(禁忌)'[35]에 관한 내용과 특징

작품번호	작중화자	사용된 비유	내용과 특징
# 986	여인	개구리	'남의님거러두고나종몰나하노라'의 표현
# 1125	남자	초생반달	'남의님거러두고빗취여나볼ㅅ가하노라'의 표현
# 1074	여인		여러 장사꾼들과 바람을 피겠다는 여인
# 999	남자		중이 된 아가씨와의 사랑을 원하는 노래
# 1128	미상		승려와 젊은 사당과의 사랑
# 1132	여인		승려와 젊은 여인과의 사랑
# 1011	미상		난봉꾼과 첩과의 사랑에 대한 야유

35) 정상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사랑의 형태.

# 1016	남자		첩과의 사랑에 대한 폐단(정실이 병들고 늙었을 땐 최고다)
# 1032	남자	송골매, 제비, 두루미, 오리, 소리개, 부엉이	여러 기생에 대한 품평
이하 낙의 작품			
# 1210	미상	두루미	'남의임거러두고깁히를몰나하노라' 의 표현
# 1268	미상	都막대	'남의임거러두고都막대될ㅅ가하노라'
# 1255	여인	벙거지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사랑
# 1264	남자	야생매	일만냥을 주고 산 비싼 잠자리를 함께하는 여인에 대한 묘사

사랑의 금기에 관한 작품들은 크게 그 대상에 의해서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사람과의 사랑, 승려와의 사랑, 첩이나 기생처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과의 사랑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각각의 소주제는 그 내용이나 표현기법의 구조가 비슷한 것이 많아서 농과 낙에서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다음의 작품들은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사람과의 사랑을 열망하는 작품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 저건너廣窓압놉흔집에 머리조흔저閣氏네 初生半달갓치빗치거나마로려나 우리도 남의님거러두고빗취여나볼ㅅ가하노라 『增補 歌曲源流』#1125

> 엇던남근大明殿대들보되고 엇던남근뭇소경의都막대된고 난番소경다서든番소경다섯掌務公司員合하여열두소경의都막대로다 우리도 남의임거러두고都막대될ㅅ가하노라『增補 歌曲源流』#1268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간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랑에 대해 희구하는 작품들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본인의 심정을 노래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라는 시어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제 삼자적인 입장을 취한다

는 특징이 있다. 특히 초장과 중장에 여러 사물을 이용하여 비유를 한 다음 종장에 '우리도 남의님거러두고 ~ 가 하노라'라는 똑같은 사설로 되어 있는 구조의 작품이 '사랑의 금기'항에서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설시조 작품들이 열거·대구·반복 등과 같은 '유형화(類型化)된 공식적 형식'을 보이면서 일정한 구성방식과 표현이 여러 작품들에서 판박이처럼 사용되거나 상투어구(常套語句)들이 다수의 작품에 사용되고 있음[36]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이 '금기' 사항을 깨고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기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유되는 사물 중에는 새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한다. 새는 날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에 적합한 비유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白松骨이나 야생매, 송골매와 같은 맹금류의 경우는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러한 동물을 통하여 본처나 본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격한 사랑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주제나 표현기법에 있어서는 농과 낙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그 수에 있어서는 농이 낙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 여인이 화자가 되어 본래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임으로 사랑하고 싶다는 작품이 낙의 전체 작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목된다. 따라서 낙의 작품들의 전체적인 성향은 현재의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사람과의 사랑에 대한 열망에 관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열망은 본인이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 만족으로 보아야 한다.

'사랑의 금기'와 관련된 작품 중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승려와의 사랑이다.

중놈이점운사랑[37]을어더 嫂父母에孝道를무어슬하여갈ㄱ고 松起ㅅ떡콩佐飯뫼

36) 성호경, 앞의 책, 319쪽.

흐로치다라싱검초삽주고사리며들밧츨나리다라금달내물쇽게우목쏫다딘쟌다귀고 들박이두루캐여바랑ㄱ국게너허가세 上佐야 암쇠등에언치노아새삿갓모시長衫곳 갈에念簑밧처더울타고가리라 『增補 歌曲源流』# 1128

승려에 대한 사랑에는 여승과 남승이 모두 등장하고 있어서 매우 파격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승려들은 금욕(禁慾)을 통하여 자신의 정신세계를 수양해 나가는 사람들로서 성(性)적인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금기를 깨고 승려와 사랑을 하려면 이들의 감정 속에는 매우 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1132의 작품은 여인이 남자 승려를 유혹하고 있으며, #1128의 작품은 승려가 이미 파계를 하여 시부모에게 줄 떡과 반찬을 싣고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농과 낙에서 승려를 주제로 한 금기를 표현한 작품들에서는 모두 그 내용의 파격적인 성격 때문에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 수도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의 금기 중 조선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첩과 기생과의 사랑이다. 이러한 작품이 농과 낙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다.

간나희들도여러層이올네 松骨매도갓고줄에안즌제비도갓고 百花園裡에두루미도갓고 綠水波紋에비오리도갓고짜에퍼안진소리개도갓고썩은등걸에부엉이도갓데 그려 제各各 임의사랑이니皆一色인가하노라 『增補 歌曲源流』#1032

위의 작품은 '간나희'로 일컬어진 '기생들'에 관한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 비유의 대상이 모두 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화자는 그 기생들을 제 각각 사랑할 만하다고 노래하고 있다. 기생이나 첩과의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생이나 첩에 관한 사설에는 위의 작품

37) '사랑'은 '사당'의 오기.

외에도 #1264 작품처럼 일만냥을 주고 산 여인과의 비싼 잠자리를 대한 묘사를 한 작품들도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기생이나 첩과의 사랑을 통한 즐거움을 표현한 작품 못지않게 #1011의 작품에서는 가난한 살림의 난봉꾼이 첩과 사는 것에 대한 야유를 한 작품도 있고, #1016처럼 첩과의 사랑에 대한 폐단을 경계하면서 정실(正室)이야 말로 병들고 늙었을 땐 최고라는 주제를 읊은 작품도 있다. 첩이나 기생과의 사랑을 주제로 쓰여진 작품들에서도 농과 낙의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사랑의 금기에 관한 주제로 분류된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주제와 표현 기법을 공유하고 있어서 농과 낙에서의 특징이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 낙에서는 농에 비해 현재의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사람과의 사랑에 대한 열망에 관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다양한 주제가 조금씩 분포되어 있는 농의 작품과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화자가 금기를 깨고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어조라고 보기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노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농과 낙에 나타난 감정은 사랑에 있어서 금기시되는 것과의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낙의 작품은 농에 비해서 좀 더 자유분방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2) 절제(切除)

사랑에 대한 감정 중 절제와 관련된 작품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농에서 두 작품, 낙에서는 세 작품이 발견된다. 사랑에 대한 절제의 감정과 좌절의 감정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좌절은 자신이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절제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사랑을 자제하고 조절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절제의 감정은 그 원인이 어찌되었든 스스로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초월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아래의 〈표-10〉은 사랑에 대한 절제의 감정을 담고 있는 작

품들이다.

〈표-10〉 '절제(切除)'의 작품

주 제	농	낙
절제(切除) (사랑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고 초월하는 정서적 상태)	1094, 1131	1273

사랑을 열망하고 사랑을 구하고자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人之常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절제하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에서는 사랑을 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독특한 심상을 표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농의 작품은 두 작품이 표현기법이나 나타내고자 하는 심상이 비슷하고, 낙의 작품들은 농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두 작품은 사랑의 절제에 관한 주제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 술먹고病업슬藥과 色하여도長生할術을 갑주고살양이며참盟誓 하지아모인들색일소냐 갑주고 못살藥이니소로소로하여百年까지 하리라 『增補 歌曲源流』# 1094
>
> 秦始皇漢武帝를 뉘라서壯타던고 童男童女함께싯고承露盤에이슬밧고萬頃蒼波에배를씌어採藥求仙하여千萬歲살냐터니모도다虛事로다 우리는 酒色을삼가고節食服藥하여百年까지하리라 『增補 歌曲源流』# 1131

농의 두 작품에서는 장수와 건강을 위해 주색(酒色)을 절제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1094의 작품에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주색을 절제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화자는 술과 색(色)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색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소로소로하여', 즉 조금씩 조금씩 하여서 백년까지 살겠다는 절제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1131의 작품에서는 진시황과 한무제가 불사약을 구하려고 애썼던 일화를 통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주색에 대한 절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작품의 느낌은 차분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는 그 표현기법이 생동감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담담하기 때문일 것이다. 농의 두 작품에서는 자신의 몸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주색을 삼가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로 소극적이고 점잖은 어조라고 할 수 있다.

낙의 작품에서는 사랑의 절제와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표현의 기법에 있어서도 농에 비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 저건너色옷입은사람 얄뭡고도잣뮈웨라 작은돌다리넘어큰돌다리건너가로쒸여온 다어허어허내사랑삼고라지고 眞實노 내사랑이못될시면벗의사랑인가하노라 『增補 歌曲源流』#1273

#1273의 작품에서는 색옷을 입은 사랑이 얄밉고도 밉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감정은 참으로 사랑스럽지만 내 사랑이 못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감정은 그 대상을 싫어하거나 그리워하는 감정으로 나타나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자기의 사랑이 안 된다면 벗의 사랑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고 있어서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낙의 작품은 사랑에 대한 절제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농과 같지만, 표현 기법이나 작품의 분위기가 생동감이 있으며 경쾌하고, 호방한 느낌이다.

사랑의 감정에 대해 절제하고자하는 심상이 담겨 있는 작품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남성의 화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 남성 화자는 술에 대한 절제와 성욕(性慾)에 대한 절제를 실천하고자하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그 중

에서도 후자에 대한 초월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농과 낙에서는 이러한 공통점이 발견되나, 농의 작품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인생무상을 느껴서 주색을 삼가겠다고 하여 담담하고 점잖은 표현들도 되어 있는 반면, 낙의 작품에서는 화자가 처한 현실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좀 더 생동감이 있고 호방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농과 낙 사설의 음악(音樂)과의 결합 양상

『증보가곡원류(增補歌曲源流)』에 수록되어 있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시조들은 화자의 감정과 태도에 의해 희열, 비애, 관조의 세 가지 어조에 각각 그 사설이 가지는 성격에 의해 희열의 어조에 구애, 희락, 성애, 비애의 어조에 좌절, 연모, 이별, 관조의 어조에 금기, 절제 등 여덟 가지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고찰되었다. 농과 낙의 곡에는 위의 소주제를 분류된 시조들이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나, 농과 낙의 음악적인 특징과 사설이 결합되는 양상이 서로 관련이 있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농과 낙의 대략적인 분위기는 옛 가집에 실려 있는 풍도(風度)와 형용(形容)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가곡원류』에는 농가와 낙시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표-11〉 농과 낙의 풍도와 형용[38]

편명	농	낙
풍도	완사청천(浣紗淸川)	요풍탕일(堯風湯日)
형용	축랑번복(逐浪飜覆)	화란춘성(花蘭春城)

위의 글에서 풍도에 있어서는 농은 천(川), 즉 물의 이미지로, 낙은 풍(風),

38) 『가곡원류』에는 각각「弄歌」「樂時調」로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농'과 '낙'으로 칭하도록 한다.

즉 바람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 농의 풍도와 형용은 '아름다운 비단을 맑은 냇물에 띄우니 물결 따라 비단의 앞뒤가 펄럭거리는 모양으로, 낙의 경우는 '요(堯)임금이나 탕(湯)임금의 태평 시대에 봄동산에 꽃들이 만발한 모습으로 곡태를 설명하고 있다.[39] 즉 농은 물결이 일어나고 흘러가고 넘쳐나는 글자들로 표현되어 있으며, 낙은 꽃과 난초, 봄의 글자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의 곡태와 선율은 흘러가는 물과 같이 흥청거리는 형상이며, 낙은 따뜻하고 화창한 날의 봄바람과 같은 형상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풍도형용에서 '형용'에 관한 내용들은 직설적이고 정확한 의미적 표현을 활용하여 가창자들에게 음악적 분위기를 전달함으로써 음악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므로,[40] 노래 가사인 사설의 성격과 연관이 클 수밖에 없다.

물과 바람은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움직임과 관련된 특성만을 본다면 물의 움직임과 바람의 움직임은 차이가 있다. 즉 물의 경우 고요함 속에서의 움직임이다. 호수나 바다에 담겨 있는 물은 움직임이 없는 듯 하여도 그 안에 잠재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이나 계곡에서의 물은 그 흐름이 활발하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제한이 있다. 따라서 물의 움직임은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의 경우는 그 형체가 없으면서 움직임만 있는, 즉 작용만 있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정해진 곳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막힘이 있으면 멈추어 있어야 하는 물의 흐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거침이 없고 자유분방한 움직임이다. 결국, 물과 바람은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움직임의 특성만을 본다면 물이 음(陰)적인 성질이 강하고, 바람은 양

39) 서한범, 「가곡의 변주양상과 미적특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226-228쪽.

40) 문주석, 앞의 책, 147쪽.

(陽)적인 성질이 강하다. 8괘에서 감괘(坎卦)와 손괘(巽卦)는 각각 물과 바람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둘 다 소음(少陰)의 성질 위에 음효와 양효가 얹혀져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41] 『가곡원류』에 나타난 농과 낙이 물과 바람의 형상으로 표출된 것에는 물과 바람의 특성을 상징화한 것으로서 농과 낙의 곡태와 선율은 음악적으로도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과 낙의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그 선율에 있으며, 선율의 차이는 농과 낙의 선율의 모태가 되는 곡이 서로 다름으로 인한 것이다. 즉 농은 이수대엽 계의 갈래로, 낙은 초수대엽 계의 갈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선율이 쓰는 음들과 그 흐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다음의 글에서 확인 된다.

> 롱은 이수대엽처럼 보다 단출한 선율이고, 낙은 초수대엽처럼 자유분방한 선율이라고 볼 수 있다. 우조인 우롱과 우락을 비교하면, 우롱이 태주를 내드름으로 계속 써서 단조로움을 지향하는 듯한데 비하여 우락은 황종과 청황종을 오가며 활발하게 움직인다. 평롱과 계락의 차이도 우조 악곡의 경우와 비슷하다. 2장을 예로 들면, 평롱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평이하게 진행되나 계락은 선율의 굴곡이 많다.[42]

위의 인용문은 농과 낙의 선율이 물과 바람으로 상징화된 풍도와 형용에 잘 부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곡은 흥청거리며 폭넓은 요성을 쓴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곡의 모체의 차이로 인하여 농의 선율은 단출하고 낙은 좀 더 자유분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농과 낙에 관한 다른 견해로는 현행 노래에서 농은 낙보다 높은 음역을 많이 사용하고, 낙은 농보다 멜리스마틱(melismatic)하며, 농은 길게 끄는 음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43] 낙은 하나의

41) 이성환・김기현, 『주역의 과학과 道』, 정신세계사, 2006, 391쪽.
42) 황준연, 앞의 논문(2001), 65쪽.
43) 김우진, 「가곡 계면조의 농과 낙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사설에 여러 음을 사용하여 변화가 많은 느낌이며, 농은 한 음으로 길게 끌기 때문에 유장한 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악보의 분석을 통하여 낙은 노래의 앞부분을 조금 높은 소리로 들어서 내는 '드는 형' 악곡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44] 결국, 농과 낙은 그 모곡의 차이로 인하여 농과 낙의 음악적인 곡태와 선율은 달라졌으며, 그 특징은 낙이 농에 비해서 좀 더 변화가 많고 활발한 느낌이라면 농은 차분함 속에서 흥청거리는 멋이 있는 곡이다.

농과 낙은 선율의 차이뿐만 아니라 선율을 구성하고 있는 조(調)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가곡에는 주지하듯이 우조와 계면조의 두 음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곡태(曲態)라든지 음계는 서로 다르다. 가곡의 우조는 황종·태주·중려·임종·남려로 구성되는 5음음계로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계면조는 황종·협종·중려·임종·무역의 5음음계이던 것이 황종·중려·임종·(무역)의 3음음계(또는 4음음계)로 변형되었다.[45] 우조와 계면조는 우조의 제2음 태주와 제5음 남려를 1율씩 올려주면 계면조 음계로 되고 반대로 계면조의 제2음 협종과 제5음 무역을 반음씩 낮추면 우조가 된다.[46] 따라서 우조와 계면조는 서로 조옮김이 그리 어렵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조에 맞는 사설을 부르게 된다. 곡태에 있어서는 가곡의 계면조나 우조가 큰 차이는 없다. 계면조는 본래 슬픈 것이었으나 그 음계의 변화로 인하여 가곡의 계면조나 우조 등 어느 곡이나 화평한 곡태로 바뀌었다.[47] 그 중에서 계면조는 성음과 농현으로 인하여 우조에 비해 슬픈 느낌이 있으며 우조는 좀 더 담담하고 정대한 성향을 가진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증보가곡원류』의 작품을 조성에 따라 나누어 보면, 계면조에는 언롱, 평

44) 김영운, 앞의 책(2005), 121쪽.
45) 장사훈, 앞의 책(1985), 428쪽.
46) 권오성, 『한민족음악론』, 학문사, 2000, 196쪽.
47) 황준연, 『한국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176-177쪽.

롱, 계락의 세 곡이며, 편락은 반우반계(半羽半界)로 되어 있으며, 우조에는 언락, 우락 두 곡이 해당된다.[48] 따라서 농의 곡이 모두 계면조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낙의 곡은 우조와 계면조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9] 본고에서는 계락과 편락을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농과 낙 작품의 음악적 조성은 〈표-12〉와 같다.

〈표-12〉 농과 낙 작품의 음악적 조성(調性)

편명	계면조		우조	
	언롱	평롱	우락	언락
수	42	125	33	45

『증보가곡원류』의 농과 낙의 사설 중 사랑을 주제로 한 사설에는 계면조와 우조의 선율의 특징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롱과 평롱의 농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설의 내용은 계면조에서의 특징이 있을 것이며, 우락과 언락의 낙의 작품에서는 우조의 특징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추론 가능하다. 이는 농과 낙의 사설이 결합되는 양상이 계면조와 우조의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농과 낙의 곡에 불렸던 사설은 농과 낙의 음악적인 특징에 부합되도록 고정화되어 갔으며, 사랑을 주제로 분류된 시조들이 사랑의 모습에 대한 것은 농과 낙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면조와 우조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13〉은 어조(語調)와 주제(主題)에 따른 농과 낙 작품의 특성을 요약한 것으로 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48) 김영운, 앞의 책, 111-116쪽 참고.

49) 반우반계라는 것은 우조인 언락과 계면조인 편삭대엽을 연결하려며 우조에서 계면조로 변조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는 대게 3장의 중간에서 하게 된다. 낙의 곡이면서 계면조로 계락과 사설을 촘촘하게 엮은 편락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은 서론에서 밝힌 바 있다.

〈표-13〉 어조와 주제에 따른 농과 낙 작품의 특징

어조	주제	농	낙
희열(喜悅)	구애(求愛)	▸작품이 하나 밖에 없으며 강도가 비교적 약함	▸농에 비해 작품수가 많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사랑하는 임을 위해서는 극복할 수 있겠노라는 의지와 사랑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담고 있음
	희락(喜樂)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많고, 유려(流麗)하면서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음	▸재미있는 상황을 묘사한 노래들로 되어 있어서 익살스러운 느낌이 발견됨
	성애(性愛)	▸성행위에 대한 열망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절제하는 듯한 인상을 줌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 및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을 통하여 대담하고 진솔한 성적 묘사
비애(悲哀)	좌절(挫折)	▸시기(질투)의 주제를 표현한 농의 작품에서는 상스럽고 원초적인 욕설이 시조에 등장하고 있어서 그 격한 감정이 꾸밈없이 드러나고 있음	▸시기(질투)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 한 작품도 없으며, 분노에 관한 작품이 있으나 용서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음
	연모(戀慕)	▸낙에 비해 작품수가 많고 자연의 대상을 통하여 감정을 드러냄. 그리움의 강도가 강하며 처연한 심상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주를 이룸.	▸그리움의 양상을 좀 더 담담하게 그려 내고 있음. 임에 대한 희망적인 모습을 담고 있음
	이별(離別)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임에 대한 호소나 이별을 원하지 않는 심정을 한탄하며 체념적으로 노래	
관조(觀照)	금기(禁忌)	▸비슷한 주제와 표현기법을 공유하고 있어서 농과 낙에서의 특징이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음	▸ 농에 비해서 좀 더 자유분방한 감정을 표현
	절제(切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인생무상을 느껴서 주색을 삼가겠다고 하여 담담하고 점잖게 표현함	▸화자가 처한 현실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좀 더 생동감이 있고 호방한 느낌으로 표현

사랑의 희열, 비애, 관조의 어조에서 보여 지는 농과 낙의 사설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드러난다. 농과 낙의 사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랑을 느끼는 감정과 태도에 있다. 각각의 어조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에서 농과 낙의

사설은 계면조, 우조의 음악적인 차이로 인해 표출되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희열의 어조로 되어 있는 구애, 희락, 성애의 주제의 특징은 농과 낙의 경우 모두 사랑의 기쁨을 밝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구애의 경우 농의 작품은 한 작품 밖에 없는 반면 낙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애의 경우 낙의 곡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화란춘성(花蘭春城)'이라는『가곡원류』의 형용인 우조의 특성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구애의 작품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사랑하는 임을 위해서는 극복할 수 있겠노라는 의지와 사랑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사랑의 '희락'이나 성적 행위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낙의 선율이 음악의 선율이 화려하고 변화가 많은 것처럼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 및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을 통하여 대담하고 진솔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희열로 분류된 농의 작품에서는 사랑의 즐거움이나 성적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담담하고 절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농에서 사랑의 즐거움을 표현한 노래들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유려(流麗)한 문장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차분한 느낌마저 든다.

비애의 어조로 되어 있는 좌절, 연모, 이별의 주제에서의 큰 특징은 농의 작품이 강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기(질투)의 주제를 표현한 농의 작품에는 상스럽고 원초적인 욕설이 시조에 있어서 그 격한 감정이 꾸밈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농의 형용인 축랑번복(逐浪飜覆)과 부합되는 모습으로서 계면조 선율의 움직임이 도약의 선율이 많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또한 농의 작품에서는 연모의 감정을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그리움의 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처연한 심상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연모의 경우에도 농의 곡이 대부분인데, 이는 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은 계면조의 선율이 슬픔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낙의 작품은 사랑에 대한 좌절을 표현한 작품에서 시기(질투)의 마음을 담

고 있는 작품이 한 작품도 없으며, 분노에 관한 작품이 있으나 용서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모와 관련된 주제에서도 그리움의 양상을 좀 더 담담하게 그려 내고 있다. 임에 대한 희망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서 농의 작품과는 구분이 되었다. 그런데 이별의 주제에서는 농과 낙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임에 대한 호소나 이별을 원하지 않는 심정을 한탄하며 체념적으로 노래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관찰의 어조로 되어 있는 금기와 절제에서는 농과 낙의 사설에서 공통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소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랑의 금기에 관한 주제에서는 낙에서는 농에 비해 현재의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사람과의 사랑에 대한 열망에 관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다양한 주제가 조금씩 분포되어 있는 농의 작품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표현 양상에 있어서도 낙의 작품은 농에 비해서 좀 더 자유분방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사랑의 감정을 절제하려는 심상이 담겨 있는 작품들에서도 농의 작품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인생무상을 느껴서 주색을 삼가겠다고 하여 담담하고 점잖은 표현들도 되어 있는 반면, 낙의 작품에서는 화자가 처한 현실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좀 더 생동감이 있고 호방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과 낙의 선율이 음악과 결합되는 양상은 음악적인 선율분석을 통하여 농과 낙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농과 낙의 음악적인 분석만으로는 농과 낙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농과 낙의 음악적인 분화 이전에 평시조가 사설시조로 분화되었다는 사실과 사설시조를 부르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곡 선율의 3장과 5장이 길게 늘었다는 것은 가곡의 선율적 특성이 사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20세기 여창가곡에서 평롱(平弄) '북두칠성'과 계락(界樂) '바람은'이 사설과 연관 있음을 밝힌 연구[50]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50) 김민정,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여창가곡 전승」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들면 평롱 '북두칠성'의 사설이 '임과의 만남을 이루어내어 만남의 기쁨과 곧 다가올 이별의 안타까움이 교차하듯 선율의 흐름도 넘실넘실 거리낌 없이 흐르다가도 이내 곧 숨죽이듯 잠잠해지는 형태를 반복해 나간다.'[51] 는 지적은 노랫말과 선율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과 낙의 '풍도형용'은 음악의 분위기와 극적인 감정의 상태 등을 짧은 글귀로 표현하여 후대로 오면서 고착화되는 과정을 통해 '풍도형용'의 의미에 알맞은 노래가사를 선택하여 불렀으며[52], 특히 사랑을 주제로 한 사설의 고찰을 통하여 그러한 현상이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음악과 사설의 관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악곡의 분위기와 느낌을 결정짓는 것은 음악의 선율과 노랫말이다. 음악과 선율의 결합양상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성악곡에서는 대체로 선율의 특성에 맞는 노랫말이 불렸고 노랫말에 어울리는 선율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가곡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노랫말을 여러 선율에 얹어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선율의 특성에 맞는 노랫말이 선택된다. 특히 음악적인 형식이 완성되어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설의 성격과 음악적인 연관성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전해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설정이 가능해 지는데,

---

51) 김민정, 위의 논문(2015), 191쪽. 또한 계락(界樂) '바람은'의 노랫말의 내용이 '임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바람이 지동 치듯 불고 궂은비가 붓듯이 오는 궂은 날씨에 과연 올수 있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선율의 흐름은 오히려 즐거운 듯 나긋나긋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임과의 재회가 무사히 이루어질 것만 같은 낙관적인 희망 내지 확신을 갖게 해 준다.'라고 하여 사설과 음악의 풍도형용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193쪽)

52) 이동복, 「雲崖 朴孝寬 硏究」 『歌客 박효관을 통해 본 조선시대 正歌세계』, 국립국악원, 2002, 30쪽.

이러한 의문점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증보가곡원류(增補歌曲源流)』의 가곡의 농과 낙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조들 중 사랑을 주제로 하여 기록되어 있는 작품들의 분석을 통하여 농과 낙의 선율과 악조(樂調)에 부합되는 사설의 특성이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농과 낙은 『가곡원류』의 풍도와 형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물과 바람의 상징으로 대표되는데, 음악과 사설이 이러한 특성에 맞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 곡의 느낌과 분위기에 부합되고 있다. 양자는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농의 곡태와 선율은 흘러가는 물과 같이 흥청거리는 형상이며, 낙은 따뜻하고 화창한 날의 봄바람과 같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의 움직임이 잠재성과 한계를 가진 움직임이라면, 바람은 그 형상은 없으나 작용이 활발하며 보다 자유분방하게 움직인다는 특성이 있다. 음악에 대한 이러한 형상화는 농과 낙의 음악적인 차이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초수대엽의 선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낙이 농에 비해 좀 더 변화가 많고 활발한 느낌이라면 이수대엽 계열의 농의 선율과 곡태는 차분함 속에서 흥청거리는 멋이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다. 두 곡의 음악적인 차이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함유하고 있는 사설의 성격의 차이점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사설시조들은 그 사설이 가지는 성격과 어조(語調)에 의해 '희열(喜悅)'의 어조에 구애(求愛), 희락(喜樂), 성애(性愛), '비애(悲哀)'의 어조에 좌절(挫折), 연모(戀慕), 이별(離別), '관조(觀照)'의 어조에 금기(禁忌), 절제(切除)의 여덟 가지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고찰되었다. 농과 낙의 곡에는 위의 소주제를 분류된 시조들이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나, 구애의 경우는 낙의 곡에서 월등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의 좌절에 관련된 작품들은 농의 곡에서 더 많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숫자에 의한 차이 외에도 각각의 소주제들로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는 작품들은 주제의 성격, 화자의 감정의 강도, 표현기법 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농과 낙의 선율에 맞는 사설이 선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의 희열, 비애, 관조의 어조에서 보여 지는 농과 낙의 사설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드러난다. 농과 낙의 사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랑을 느끼는 감정과 태도에 있다. 각각의 어조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에서 농과 낙의 사설은 악곡의 특징, 즉 선율 및 악조의 음악적인 차이로 인해 표출되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희열의 어조로 되어 있는 구애, 희락, 성애의 주제의 특징은 농과 낙의 경우 모두 사랑의 기쁨을 밝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농의 작품은 한 작품 밖에 없는 반면 낙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애의 작품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임을 위해서 사랑을 이루고 싶은 의지와 사랑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사랑의 '희락'이나 성적 행위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낙의 선율이 음악의 선율이 화려하고 변화가 많은 것처럼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 및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을 통하여 대담하고 진솔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 이는 '화란춘성(花蘭春城)'이라는『가곡원류』의 형용인 우조의 특성이 희열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희열로 분류된 농의 작품은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사랑의 즐거움이나 성적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담담하고 절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농에서 사랑의 즐거움을 표현한 노래들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유려(流麗)한 문장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차분한 느낌마저 든다.

비애의 어조로 되어 있는 좌절, 연모, 이별의 주제에서의 큰 특징은 계면조로 되어 있는 농의 작품이 강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기(질투)의 주제를 표현한 농의 작품에는 상스럽고 원초적인 욕설이 시조에 있어서 그 격한 감정이 꾸밈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농의 형용인 축랑번복(逐浪飜覆)과 부합되는 모습으로서 계면조 선율의 움직임이 도약의 선율이 많다는 것과 연관이 있

다. 그리고 연모의 경우에도 농의 곡이 대부분이며, 연모의 감정을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많은데, 그리움의 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처연한 심상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은 계면조의 선율이 슬픔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낙의 작품은 사랑에 대한 좌절을 표현한 작품에서 시기(질투)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 한 작품도 없으며, 분노에 관한 작품이 있으나 용서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모와 관련된 주제에서도 그리움의 양상을 좀 더 담담하게 그려 내고 있다. 임에 대한 희망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서 농의 작품과는 구분이 되었다. 그런데 이별의 주제에서는 농과 낙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임에 대한 호소나 이별을 원하지 않는 심정을 한탄하며 체념적으로 노래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관조의 어조로 되어 있는 금기와 절제에서는 농과 낙의 사설에서 공통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소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랑의 금기에 관한 주제에서는 낙에서는 농에 비해 현재의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사람과의 사랑에 대한 열망에 관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다양한 주제가 조금씩 분포되어 있는 농의 작품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표현 양상에 있어서도 낙의 작품은 농에 비해서 좀 더 자유분방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사랑의 감정을 절제하려는 심상이 담겨 있는 작품들에서도 농의 작품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인생무상을 느껴서 주색을 삼가겠다고 하여 담담하고 점잖은 표현들도 되어 있는 반면, 낙의 작품에서는 화자가 처한 현실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좀 더 생동감이 있고 호방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가곡의 사설은 악곡의 선율과 악조(樂調) 및 곡태(曲態)와 어울리게 결합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삭대엽과 농·낙의 사설을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사설이 달라질 수 있다는『가곡원류』의 발문의 지적은 가곡의 선율이 분화되거나 새롭게 창작되

는 과정 중에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음악적으로 농・낙의 형식이 완성되어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음악적인 특성과 사설의 성격이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결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계락과 편계열의 사설에 대한 검토 및 소가곡 각곡의 특성에 맞는 사설의 성격에 대한 검토는 고를 달리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歌曲源流』

2. 논저

강명관,「사설시조의 창작향유층에 대하여」『민족문학사연구』제4권, 민족문학사학회, 1993, 419-420쪽.

권오성, 『한민족음악론』, 학문사, 2000, 196쪽.

김민정, 「한성권번과 조선권번의 여창가곡 전승」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김세중, 「악조(樂調)의 정조(情調)」『한국 음악학의 지평』, 민속원(황준연교수정년퇴임기념논집간행위원회), 2014.

김영운, 『가곡 연창형식의 역사적 전개 양상』, 민속원, 2005, 101쪽, 121쪽.

, 「가곡과 시조의 음악사적 전개」『한국음악사학보』제 31집, 한국음악사학회, 2003, 148쪽.

김우진, 「가곡 계면조의 농과 낙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문주석, 『歌曲源流 新考』, 지성人, 2011, 147쪽, 173쪽.

박판수, 「판소리 텍스트의 "이면"의 구현 양상 연구」『판소리 연구』제14집, 판소리학회, 2002.

변미혜, 「사설에 따른 가곡 선율의 변형(5) -남창 계락,우락,언락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제 36집, 한국국악학회, 2004, 195쪽.

서한범, 「가곡의 변주양상과 미적특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226-228쪽.
성창순, 『넌 소리 도둑년이여』, 언어문화, 1995.
성호경, 『조선시대 시가연구』, 태학사, 2011, 316쪽, 319쪽, 337-339쪽.
성호경 외,「한국시가의 어조(語調) 유형 분류 시론(試論)」『한국시가연구』제25권, 한국시가학회, 2008, 311쪽.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2004, 419-424쪽.
송종관, 「창사로서의 시조문학 -이수대엽, 낙시조, 만횡청류를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제18집, 한민족어문학회, 1990.
윤영옥, 『時調의 理解』,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6.
이능우, 『古詩歌論攷』, 선명문화사, 1966, 285-344쪽.
이성환·김기현, 『주역의 과학과 道』, 정신세계사, 2006, 391쪽.
이보형,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리듬거시구조에 대한 담론분석 시론 -한애순 심청가 화초타령 대목의 리듬적 응결성을 중심으로-」『한국음악연구』제 36집, 한국국악학회, 2004.
장사훈, 『국악총론』, 정음사, 1979, 255쪽.
, 『最新國樂總論』,세광음악출판사, 1985, 428쪽, 432쪽, 441쪽.
전재진, 「가집 『興比賦』의 전사본과 19C 후반~20C 초반 가곡의 변화양상」『정신문화연구』2007 여름호 제30권 제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천이두, 『판소리 명창 임방울』,현대문학사, 1986, 349쪽.
최동현, 「판소리 이면에 관하여 -사설과 장단을 중심으로」『판소리 연구』제14집, 판소리학회, 2002.
함화진 편·황충기 역주, 『증보 가곡원류』,푸른사상, 2005, 30쪽.
황준연, 「가곡(남창) 노래선율의 구성과 특징」『한국음악연구』제 29집, 한국국악학회, 2001, 65-66쪽.
, 『한국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176-177쪽.

〈ABSTRACT〉

A Study on 『*Jeungbo Gagokwonryu*』 Nong and Nak Correlation between Text and Music

Jeong, Il-Young

There are a lot of Sijo with a theme of love in pieces of music classified into Nong and Nak, and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correlation of musical difference with the aspect of the combination of Saseol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Saseol of Nong and Nak. This study would dra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Gagok and the characteristics of Saseol with the pieces of Nong/Nak in Ham Hwa-jin's *Jeungbo Gagokwonryu*, compiled in the 20th century as main research subjects.

Nong and Nak are respectively represented by the symbols of water and wind as known in Pungdo and Hyeongyong in *Gagokwonryu*, and music and Saseol are combined according to these characteristics, so they correspond to the feel and atmosphere of the piece. Both have active movements in common, but the musical form and melody of Nong are in the form of exultation like the flowing water while those of Nak are in the form of the spring wind on a warm, sunny day. The embodiment of the music is caused by the musical difference between Nong and Nak, and Nak, which uses Chosudaeyeop melody, is more changing and active than Nong while melody and the musical form of Isudaeyeop-line Nong, there is a style of exultation in calmness. The mus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pieces can be found more clearly through the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Saseol, which has the theme of love.

Pieces of Sijo with a theme of love were sung as songs, put on the melodies of Nong and Nak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seol. Pieces of Sijo about love in Nong and Nak are distributed in an approximately similar proportion, but courtship was distributed exceptionally more in pieces of Nak, and pieces related to a longing for a lover or frustration by love are distributed at a higher ratio in pieces of. In addition to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number, pieces classified the same into each subtheme show different aspects of the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the intensity of the emotions of the speaker and the expression techniques, so it is noted that Saseol was chosen suiting the melodies of Nong and Nak.

The biggest difference in Saseol of Nong and Nak lies in the emotion and attitude toward the feeling of love. Nong strongly appears in works of longing and frustration by love, in tune with musical characteristics of Gyemyeonjo. Such themes expressed intense emotion or emotion in expressing emotions intensely. In contrast, there were noticeably more pieces of Nak that the tone is related in tune with musical characteristics of Ujo. There were noticeably more pieces of Nak reflecting the awareness that, for love like courtship, active behavior and willingness would be necessary, as compared to those of Nong. Also, in the pleasure of love or the expression of sexual acts, Nak shows bold and honest descriptions through the uses of onomatopoeia, mimetic words and vibrant expressions; e.g. gorgeous and changeful melodies. Pieces with themes the taboo of love and moderation in love, there are pieces, which express similar images, without any emotionally big difference commonly exist in Nong and Nak, bu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m. Pieces with themes the taboo of love and moderation in love, express freedom of emotion, also Pieces with themes the moderation in love, expresses itself as a more lively and resourceful feeling, through a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speaker is placed. Pieces with themes of farewell, three are not big difference Pieces of Nong and Nak with a theme of farewell have a regret and with resignation attitude.

The difference relates to the fact that the work of a piece of Nong is relevant to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Gyemyeonjo*, Nak is related musical characteristics of Ujo. The comments in the epilogue of *Gagokwonryu* that Sakdaeyeop and Nong/Nak Saseol are not statically used and that Saseol may vary depending on the situation are valid to some extent in the process in which a Gagok melody is separated or newly created. However, in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no change any longer as the form of Nong/Nak has been completed musically, they have been sung as songs with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and the characteristics of Saseol.

Key words: Nong, Nak, *Jeungbo Gagokwonryu*, Gagok, Pungdo Hyeongyong, Saseol, Musical tone

이 논문은 2017년 01월 08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17년 01월 11일부터 2017년 01월 19일까지 심사를 하고,
2017년 01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彙 報
한국시조학회 이사회 자료

1. 한국시조학회 2017년도 이사회(온라인)

일시 : 2017년 1월 4일(목) 12:00 ~ 12:30

장소 : 온라인(카카오톡 채팅방)

참석자 : 김상진, 김성문, 김용기, 이춘희, 강명주

주요내용 :

1) 학술지 발간 출판사 변경의 건

- 지난 이사회(2016. 6. 11. 한양대)에서 1차 논의한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
- 발간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존에 학술지를 발간해 오던 '보고사'에서 46집부터는 '책사랑'으로 출판사를 변경하여 발간하기로 함.

2) 기타

한국시조학회 제61차 전국학술발표대회

- 주제 : 글로벌시대의 시조문학
-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302관) 301호 첨단강의실
- 일시 : 2016. 12. 10.(토) 13:30~18:00
- 주최 : 한국시조학회·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3:30~13:50 등록 사회 : 김성문(중앙대)
13:50~14:00 개회사 김상진(한국시조학회장)
축 사 최성환(중앙대 인문대학장)

제1부 주제발표 사회 : 안영훈(경희대) / 박애경(연세대)
14:00~14:40 시조와 하이쿠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성 비교 고찰
발표 : 박영준(중앙대) / 토론 : 신영명(상지대)
14:40~15:20 한국 교훈시조와 인도네시아 구린담 비교 연구
발표 : 마가렛 테레시아(경희대) / 류찬열(중앙대)
15:20~15:40 휴식 및 기념촬영
15:40~16:20 시조의 형식 考
발표 : 신웅순(중부대) / 박상영(대구가톨릭대)
16:20~17:00 설득형 시조의 유형 연구
발표 : 김세림(한양대) / 남동걸(인천대)

17:00~17:10 휴식

제3부 종합토론(17:10~18:00) 좌장 : 박규홍(경일대)

한국시조학회 편집회의

1. 제1차 편집회의

일시 : 2017. 1 .10(화) 19:00

장소 : 인사동 '음식이야기 밥'

참석자 : 신영명, 김용기, 김성문, 강명주, 이춘희

주요내용 : 『시조학논총』 46집 발간 건

1) 총 투고논문 : 14편

2) 심사위원 선정

3) 발간 일정 논의

4) 기타

- 발간일정 :

2017. 1. 8 원고마감(총 14편)

2017. 1. 10 제1차 편집회의

2017. 1. 19 심사완료

2017. 1. 20 제2차 편집회의(게재 편수 및 순서 확정)

2017. 1. 21 게재확정 메일 고지, 출판사에 원고 인계

2017. 1. 21~1. 25 필자교정

2017. 1. 31 제3차 편집회의 및 최종교정(책사랑)

2017. 2. 3 연구재단 탑재

2. 제2차 편집회의

일시 : 2017. 1 . 20(금) 15:00

장소 : 인사동 '음식이야기 밥'

참석인원 : 신영명, 박상영, 김용기, 김성문, 강명주, 이춘희

주요내용 : 『시조학논총』 46집 발간 건

1) 투고논문 심사결과 논의 및 게재 편수 결정

- 14편의 투고논문 중 '게재 가능' 4편 '수정 후 게재' 1편, '게재불가' 9편

2) 발간 일정 논의.

- 발간일정 :

2017. 1. 20 제2차 편집회의(게재 편수 및 순서 확정)
2017. 1. 21~25 필자 수정
2017. 1. 26 수정논문 재심 및 게재확정논문 출판사 인계
2017. 1. 26~30 출판사 편집
2017. 1. 31 제3차 편집회의 및 최종교정(책사랑)
2017. 2. 3 연구재단 탑재

3. 제3차 편집회의

일시 : 2016. 1. 31(화) 16:00
장소 : 인사동 '음식이야기 밥'
참석인원 : 김용기, 김명준, 김성문, 강명주, 이춘희
주요내용 :

1) 총 14편 중 최종 5편 게재 확정. (게재율 36%)
2) 목차 논의
3) 최종 편집 및 교정
4) 『시조학논총』 발송자 명단 및 발송부수 확정
5) 2월 3일 편집이사가 연구재단에 탑재하기로 함.

韓國時調學會 會則

제1장 총 칙

제1조 이 학회는 韓國時調學會라 칭한다.

제2조 이 학회는 시조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계발, 자료의 정리와 보존, 그리고 회원간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며, 시조가 지니고 있는 민족 문화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창달하고, 현대 사회에도 독창성을 지닌 현대시조가 계속 창작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 발표회 개최
2. 학회 논문집『時調學論叢』발간
3. 연구 자료 및 연구 논저 발행
4. 시조에 대한 교육 기관과 문화 기관의 자문과 건의
5. 시조에 대한 유공자의 현창 사업
6. 해외 학술 교류
7. '韓國時調學術賞'을 운영·관리
8.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이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재직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이로써 시조 연구에 관심있는 자로 한다.

1. 시조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시조문학이나 한국문학에 대한 저서 1권 이상, 또는 논문 2편 이상을 학술지에 발표한 자.
3. 이사회에서 그 회원임을 인정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이 학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둠.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부회장 중 과반수이상을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거주자로 한다.)
3. 이사(실무이사 및 지역이사) 약간명
4. 감사 2명
5.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평의회 회원이 되다.

제7조 이 학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추대하고,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과 평의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9조 이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회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이 중 연장자가 수석 부회장이 되어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의결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경리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6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실천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추대 및 개선
4. 회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안건

제12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는 회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학회지『時調學論叢』의 발간과 연구논저의 발행을 위해 출판편집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진행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 이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1985년 4월 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개정 회칙은 198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개정 회칙은 1991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개정 회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 개정 회칙은 1996년 1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 개정 회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6월 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이 개정 회칙은 2014년 6월 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6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시조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정 2007. 07. 21 (규정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시조학회(이하 :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 윤리 확보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건전한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1. 인간윤리, 사회윤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총무이사와 10인 이내의 지역이사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문제에 있어 사회일반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2~3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3. 회장은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단장 혹은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등의 자문을 위해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선정 시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타당성 검토
2. 연구과제 중에서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강령과 연구지침 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진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와 관련된 피험자로부터 적절한 동의서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6.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7. 연구사업단장 혹은 연구책임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 위원장이 부의 하는 기타 사항

제5조(연구계획서 심의, 결정 및 통보)

1. 위원회는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ㄱ. 승인
   ㄴ. 조건부 승인
   ㄷ. 보완 후 재심사
   ㄹ. 부결
   ㅁ.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연구진의 교육 등)

위원회는 연구진의 연구윤리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진은 적어도 연1회 이상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사항)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규・계속과제의 세부연구내용 및 관련사항을 검토・관리하도록 독려한다.

부칙(2007.07.21. 연구윤리규정 제3호)

이 규정은 2007. 07. 21부터 시행한다.

한국시조학회 출판·편집 규정

(2016년 6월 11일 개정)

제1조 총칙

1. (발간 목적) 시조 작품, 이론, 교육 및 상호 학제적 연구와 비평을 진작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2. (원고의 성격) 1항의 발간 목적에 맞는 논문으로써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한다.
3. (기고 자격) 기고자의 자격은 한국시조학회 회원으로 정한다. 단, 기획 특집에 한하여 한국시조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비회원의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4. (간행) 『시조학논총』은 2003년도부터 1월 31일과 7월 31일 연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2002년 12월 30일에 『시조학논총』 제18집이 발간되었으므로, 『시조학논총』 제19집은 2003년 7월 31일에 발간하기로 한다).

제2조 연구 윤리 활동

5. (연구 진실성) 연구 과정 및 결과물에 오류, 위조, 변조, 표절, 재편집, 부당한 명시 등의 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도 객관적인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7. (부정행위의 제보 및 처리)

    1)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회원 2인 이상의 동의와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공동으로 접수한다.

2) 제보 접수 후 40일 이내에 예비 심의 및 본 심의를 완료한다.

3) 제보자와 동의자의 신원은 제보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야만 공개될 수 있다.

8. (예비심의회) 제보 접수후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예비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심의회장: 부위원장이 예비심의회를 관장한다.

2) 심의위원: 위원 중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3) 특별위원: 제보된 부정행위의 사안과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4) 심의위원과 특별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다.

9. (예비 심의)

1)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는 '부정행위', '부정행위 근거없음', '판명불가'로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심의와 판명을 위한 세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규정과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3) 부정행위에 대한 판명은 예비심의회 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판명은 예비심의회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하고, 이 경우 결과 보고에 소수자의 의견을 첨부한다.

4) 예비 심의의 판명이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어느 쪽으로도 2/3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명불가'로 결과 보고한다.

5) 심의 진행의 필요에 따라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연구자, 혹은 제보자를 예비 심의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함께 직접 면담할 수 있다.

10. (본 심의 및 판명 결정)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정수 2/3 이상의 참석 혹은 위임에 의해 본 심의를 진행하고,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판명을 결정한다.
2) 예비 심의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판명되어 결과 보고된 사안에 대한 추인 결정과 '판명 불가'로 보고된 사안에 대한 판명 결정은 본 심의 참석, 위임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결정한다.
3)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에 대한 추인이 부결되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1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연구 결과물의 저자(들)가 지며,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책임은 제보자가 진다. 각각의 판명에 의해 책임을 지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학회의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부정행위'로 판명된 연구 결과물의 게재를 취소하고 on-line 출판과 DB의 탑재 파일을 삭제한다.
2) '부정행위자'는 1차시 2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2차시 영구제명한다.
3) 학회의 홈페이지, 뉴스레터, 차기호 학회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명의에 의해 심의과정 및 결과, 소수자 의견, 조치 사항을 포함한 '공시'를 발표한다.
4)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책임을 지는 제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뢰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 연구재단 및 기관에 심의결과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원고의 전체 형식

12. (표기)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의 경우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하고, 외국어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 ) 안에 외국어를 넣는다.
13.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14. (필자)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히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한다.
15. (초록) 각 논문마다 반드시 국문초록과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한다. 국문초록은 원고지 3매 이내, 영문초록은 제목을 포함하여 150-200단어 정도로 출판 지면 1쪽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게재 심사를 위한 논문의 초록에는 필자의 이름과 신상을 밝히지 않는다. 다만 영문초록은 영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독문, 불문, 중문, 일문 등 기타 외국어도 가능하다.
16. (주제어) 각 논문마다 5~6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Keywords)를 명기한다. 한글 주제어는 국문초록 뒤에 쓰고 영문 초록 말미에 영문 주제어를 쓴다.
17. (참고문헌) 본문에 이어서 '참고문헌'(12 포인트 굵은글씨체)라는 제목 하에 참고자료의 서지사항을 열거한다. 서지 정보와 인용 횟수는 인용지수(citation impact)의 전산화와도 관련되므로 논문에 직접, 간접으로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한 자료는 모두 명기하고, 연구의 참고용 자료는 제외한다.

제4조 논문의 편집 형식

18. (전체 편집) 원고는 가급적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한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1) 용지 설정 : 용지 설정은 A4로 한다.
    2) 용지 여백 : 용지 여백은 위 20, 아래 15,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의 〈한글〉 프로그램 초기값으로 한다.
    3) 문단 모양 : 여백은 왼쪽 0ch, 오른쪽 0ch로 하고 간격은 문단 위

0mm, 문단 아래 mm로 하며 줄간격은 160%, 정렬방식은 혼합, 낱말 간격은 0%로 하고 첫째 줄 들여쓰기를 설정한다.

4) 글자 모양 : 글꼴은 신명조로 설정하고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으로 한다.

19. (목차) 목차의 장 절 항의 표기 형식은 장절 형식은 로마숫자 대문자－아라비아 숫자－한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양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원문자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Ⅰ ……

1 ……

1) ……

(1) ……

① ……

20. (인용문) 인용하는 내용의 분량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히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여서 기술하며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9포인트로 한다.

21. (각주) 자료의 출처나 원문 및 참고문헌을 밝히고자 할 때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1) 각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위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각주의 내용은 해당 쪽의 아래에 싣는다.

2) 각주는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9포인트로 설정한다.

3) 각주의 인용 문헌은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1) 단행본의 인용 경우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국문도서 예)임종찬, 『시조문학의 본질』, 대방출판사,1986, 19쪽.

영문도서 예) Groothuis, Douglas R., Unmasking the New Age, Downers,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6, p.23(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함)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할 경우

필자명, 「소논문제목」, 편자(대표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류준필, 「안민영의 매화사론」,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 작품론 2』, 집문당, 1995, 570쪽.

(3) 한글 번역본인 경우

원필자명, 원저서명, 번역자명,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원저서명은 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한다.)

(4) 학위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수.

예) 최동국, 「조선조 산수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25쪽.

(5)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인 경우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발행처(또는 발행주체)명, 『잡지명』

제○권(제○호), 출판년도, 쪽수

예) 류해춘, 「한국 시조문학의 존립기반과 그 본질에 관한 시고」, 『시조학논총』 제19집, 2003, 77쪽. (단, 권, 호는 인용한 정기간행물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6) 신문의 경우

「기사제목」, 『신문명』, 연월일, 면수

(7) 웹페이지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 검색일

(8) 동일한 문헌 인용 표기

– 바로 위에 있는 동일한 문헌의 각주는 '위의 글'(또는, 위의 책)로 표기

– 인용한 글보다 앞서서 제시된 동일한 문헌은 '앞의 글'(또는, 앞의

책)로 표기

22. (참고문헌표기)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기타 로마자어 사용 언어 포함) 순으로 배열하고 각각 그 언어의 자모순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의 인용 문헌 표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영문 저서의 저자명은 First Name, 2nd Name의 이니셜으로 한다.
23. (강조)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방점, 밑줄 혹은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고 (원문 강조) 혹은 (필자 강조)를 명시한다.
24. (기타) 논문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을 따른다.
    「 」: 작품, 논문, 영화, 드라마, 연극
    『 』: 작품집, 신문, 잡지, 저서
    ‘ ’: 강조, 간접 인용
    “ ”: 직접 인용
25. 규정되지 않은 양식은 일반 논저 저술 양식을 따른다.

제5조 투고 원고 접수 및 논문 심사 절차와 게재

26. (기고) 원고는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신청에 접수하거나 편집이사에게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부득이한 경우 디스켓에 저장된 파일도 등기우편으로 접수함)
27. (논문 게재 신청서) 논문의 심사는 필자를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필자의 신상 명세는 투고 당시 작성한 ‘논문 게재 신청서’에만 명시한다.
    1) 신청서에는 논문의 제목, 필자의 이름, 필자의 소속 직장, 우편과 이메일 주소, 전화 연락처 등을 반드시 명시한다.
28. (시간과 횟수) 원고 제출은 수시로 가능하고, 상반기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하고, 하반기의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한다. 논문 게재 횟수는 회원당 연1회로 제한하고 연속게재를 금지한다.
29. (심사) 제출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3인에 의해 별도로 정한 양

식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는다.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2) 편집위원장은 원고 접수 마감일 경과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접수된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 또는 해당 분야 전공자에게 편집인이 의뢰한다. 심사평은 투고논문 심사조서 양식을 사용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논문 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심사조서를 검토한 후 게재 평가를 관장한다.
5)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필자에게 통지할 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첨부한다.
6) 특집 혹은 청탁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0. (게재 평가) 심사위원의 평점과 게재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심사조사의 10가지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당 5단계(A:아주 우수 10~9, B:우수 8~7, C:보통 6~5, D:미흡 4~3, F:아주 미흡 2~1)로 평가한 뒤 점수 합계를 산출한다.
2) 심사위원의 산출점수가 80점 이상은 (1)게재, 79~70점은 (2)수정후 게재, 69~60점은 (3)수정후 재심사, 60점 미만은 (4)게재 불가이다.
3) (2)수정후 게재, (3)수정후 재심사, (4)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4) '게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
   (2) 단 심사위원 1인의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수정후 게재
5) '수정후 게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79~70점 사이
   (2) 단 심사위원 1인의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수정후 재심사

6) '수정후 재심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69~60점 사이

(2) 단 심사위원 2인의 점수가 각각 60점 미만이면 게재불가

7) '게재불가'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60점 미만

(2) 단 심사위원 2인의 점수 합계가 140점 이상이면 수정후 재심사

31. (수정) 게재 예정인 논문의 필자는 심사위원들이 명시한 수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편집위원회와 해당 심사위원의 합의로 처리한다.

1) 수정 이행에 대한 조치가 5일 이내에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난 논문 집필자에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학회지 발행 이전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학회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편집 및 발간

32. (교정 및 편집과 공동저자) '게재'로 심사를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필자에게 1회 이상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는 필요한 교정을 지정된 일정에 처리해야 한다. 공동 저자의 경우는 제 1저자와 제 2저자의 구분은 순서대로 하며 제 1저자 이름 앞에 *표를 표시한다.

33.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을 투고한 필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기일에 맞춰 납부하여야 한다.

34. (저작권) 『시조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한국시조학회는 저작권을 가지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재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편집 위원회의 구성

35. 편집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비롯한 학회 관련 출판에 관한 일을 결정 집행한다.
36. 구성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편집위원장 1인과 최소 7명 이상 최대 20인 이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경우 후임자로 교체하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38.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성과가 높은 원로 학자를 선임하고, 편집위원은 시조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이 뛰어난 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 부 칙

39. 본 규정의 시행과 수정은 한국시조학회의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40. 본 규정은 2008년 6월 21일부터 적용된다.(본 규정의 시행으로 이전의 논문심사규정과 논문투고규정은 폐기한다.)
41. 본 개정된 규정은 2014년 6월 21일부터 적용한다.
42. 본 개정된 규정은 2016년 6월 11일부터 적용한다.

한국시조학회 투고논문 심사조서

성함		소속	
직위		전공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 번호 :	

논문 제목		
총괄 평점 (V)	* 게재 [100점( ), 90점( )] * 수정 후 게재 [80점( ), 70점( )] * 수정 후 재심 [60점( ), 50점( ) * 게재 불가 [40점( ), 30점 이하( )]	
평가 항목		항목 평점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 8 / 6 / 4 /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10 / 8 / 6 / 4 / 2
	내용의 완결성	10 / 8 / 6 / 4 / 2
	논문 작성의 성실성	10 / 8 / 6 / 4 / 2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10 / 8 / 6 / 4 / 2
	논문주제의 창의성	10 / 8 / 6 / 4 / 2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10 / 8 / 6 / 4 / 2
	논문초록의 적합성	10 / 8 / 6 / 4 / 2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 8 / 6 / 4 / 2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10 / 0
심사 총평 :		
수정 사항 :		

한국시조학회 회원 주소록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1	강경훈	성결대학교		(031) 702-71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APT 109-2301		123
2	강관진	중앙대학교		(010) 3709-1291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섭외이사	222
3	강구율	동양대학교	(054) 630-1204	(054) 637-2259	(직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동 1번지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 (자택) 750-754 경북 영주시 선비로 215 1동 610호 현대강변타운 bongamm@daum.net	윤리위원	154
4	姜明慧	강원대학교 국문과	(033) 250-8120	(033) 253-6265	강원도 춘천시 교동 148-18 019-367-5795 MYONGHYE@chollian.net	지역이사	54
5	강영미	서경대학교		(016) 273-4539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A동 106호		237
6	강진구	중앙대학교	(02) 820-5903	(017) 738-0210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224
7	姜惠淑	민족사관 고등학교		(02) 226-3838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목련APT 106-201		92
8	高敬植	경희대학교 국문과	(02) 961-0019	422-1968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26
9	高美淑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주공7단지APT 704-1102		80
10	고순희	부경대 국문과	(051) 620-6619	(051) 621-9410	부산시 남구 대연동 599-1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kosh@pknu.ac.kr		139
11	孔種源	중앙일보사 논설위원	(02) 7515-253	(02) 353-1830	서울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사 논설위원실		17
12	곽지영	중앙대학교		(016) 855-1485	서울시 동작구 흑석1동 221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214
13	具仕會	선문대학교			336-708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지역이사	84
14	具壽榮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042)822- 0101~11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45-2		11
15	국윤주	전남대학교 국문과	062) 530-313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3
16	鞠孝汶	호남대학교 국문과	062) 371-8211	062) 232-2929	광주시 동구 학1동 612-24		82
17	권두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880-6048	(031) 423-3089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우성아파트 201-1502		147
18	권순회	고려대학교	(02) 3290-25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76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19	권오경	부산외국어대학교	(053) 850-7761	(053) 763-7355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산55-1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7
20	權龍周	세종대학교 평생교육원	(02) 3408-3463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세종대학교 평생교육원		87
21	金 鍾	조선대학교 문리대국문과	062) 222-8151	062) 222-5669	광주 서구 화정3동 우미APT 102-210		12
22	金甲起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2260-3146	(02) 412-8712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우성APT 283-105		32
23	金畿鉉	경북대학교 인문대국문과	053) 950-5118	053) 741-699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 gihyun@knu.ac.kr		42
24	金蘭珠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	(02) 732-5574	(02) 886-2713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81-6 현대APT 101-1408		79
25	金大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02) 362-0151		서울 동작구 사당동 419-96		28
26	金東俊	동국대학교	(02) 260-3391	010- 2017-0719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삼성(아) 107동 1801호 kdjoon@hananet.net	평의원	1
27	金明姬	강남대학교 국문과	031) 2803-677	031) 263-6174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산 6-2 강남대학교 kmh@kns.kangnam.ac.kr		50
28	金相善	중앙대학교	(02) 829-5031	(02) 589-2190	서울 동작구 사당1동 419-50 (우) 156-091	평의원	5
29	金善豊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02) 812-0944		서울 중구 신당2동 432-13 장충그린빌라 102		83
30	金成基	조선대학교 국문과	062) 230-6515	062) 265-8190	광주 북구 각화동 471 금호타운 12-202		72
31	金時泰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02) 290-0089	(02) 557-6905	서울 성동구 행담동 17 한양대학교		31
32	金信中	전남대학교 인문대국문과	062) 530-3137	062) 373-8383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대 국문과 sckim@chonnam.ac.kr	지역이사	64
33	金榮敦	제주도청 문화체육부	064) 23-6141 교)306	22-8856 53-1838	제주시 일도2동 162-31 신산미화APT 다-107		35
34	金英云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연구실	031) 709-81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708-7 정문연사택 101-4		104
35	金墉鑽	한중대학교 국문과	033) 520-9203	033) 535-2650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산 119 한중대학교 국문과		93
36	金銀美		031)371- 6211~4	031) 92-088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월비구 379-2501		74
37	金義淑	강원대학교 국문과	033) 50-6114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57
38	金鱗九	춘천간호보건 전문대학	033) 240-9024	033) 261-5775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45 금호APT 201-201		39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39	金貞華	동국대학교		032) 438-4709	인천시 남구 관교동 성지APT 102-703		94
40	金佐起	전교장		033) 652-5279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40-23 대림맨션 1003		53
41	金準玉	여수대학교 국문과	062) 659-3556	062) 262-8401	광주 북구 각화동 금호타운 12-501		97
42	金重烈	군산대학교 국문과	063) 60-1315	02) 336-284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16-38		71
43	金智勇	전교장	031) 88-5300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8-6 초원(大元)APT 309-1303		30
44	金泰俊	동국대학교 국문과	02) 260-3147	02) 815-8988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36
45	金學成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02) 760-0238	02) 704-2903	서울 마포구 도화1동 마포삼성APT 111-502		70
46	김금남	남서울대학교		011) 669-655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410-304		210
47	김명순	대구한의대학 교	053) 819-1315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 75번지 대구한의대 한문학과		152
48	김명준	한림대학교	033) 248-3423	010) 6526-1392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연암관 4층 2430호 국어국문학과	편집이사	111
49	김문기	경북대학교		053) 950-5825	대구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67
50	김민정	성균관대학교	02) 2243-8282	011) 9586-008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36동 304호		180
51	김병국	건양대학교			충남 논산시 내동 산 30 건양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31
52	김상진	한양대학교		011) 9862-5494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금강아파트 910동 1602호	회장	163
53	김석배	금오공대	054) 467-4359		경북 구미시 신평동 188 금오공대 인문사회과학부		185
54	김선희	대전 중리초등학교	042) 633-7684	042) 635-5837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보람APT 114-502		126
55	김성동	선아고등학교		018) 351-5660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팬더APT 4-1306		213
56	김성면	전북대학교	041) 956-6612	063) 245-0056	전주시 덕진구 우아2가 롯데아파트 108동 603호		161
57	김성문	중앙대학교 국문과	02) 820-6476	010) 7727-7538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문과	총무이사	204
58	김원태	(주)MODA 대표이사	86)216-113 -5233	86)139-166 0-0701	3/Floor, 3B Panish Bldg. No.158, Guyang Rd. Shanghai, China.		227
59	김정민	수원대학교	032) 552-9407	011) 272-9407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74-7 대양나이스빌2차 1011호	홍보이사	209
60	김정오	중앙대학교		011) 630-6005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문과		186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61	김정화	영남대학교		053) 986-6262	대구시 동구 둔산동 214-1번지		165
62	김종규	대불대학교		061) 273-5770	전북 목포시 연산동 주공아파트 307-304		146
63	김종환	육군3사관학교	054) 330-4611	010) 3337-3926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사서함 135-9호		150
64	김주석	강원대학교	02) 956-4256	010) 3243-4253	(우)132-758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서원아파트 104동 706호 juserk@naver.com		237
65	김지은	중앙대학교 국문과	02) 915-2731	011) 686-7734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아파트 105동 1303호	연구이사	225
66	김진희	인천대학교		016) 466-4435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제이사	166
67	김창원	경기대학교 국문과	031) 249-9131	010) 2266-9703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19-49	국제이사	112
68	김풍기	강원대학교 국교과	033) 250-6618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207
69	김헌선	경기대학교		018) 356-9108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60
70	나정순	한남대학교		011) 768-394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4 트윈타워 B동 1405호		156
71	南東杰	인천대학교	032) 441-5073	010) 4326-2933	인천시 서구 검암동 신명3차APT 302동 1004호	연구이사	99
72	남상득		042) 863-7173	042) 489-5731	대전 광역시 서구 월평 3동 황실타운 아파트 106- 607		132
73	노규호	한중대학교	033) 520-9204	010) 2557-9353	강원 동해시 지흥동 한중대 한국어문학부		219
74	노인숙	교원대학교	043) 230-398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 교원대 부속고등학교 noinsook@hanmail.net		133
75	瀨尾文子			052) 751-1788	日本國 名古屋市 昭和區 元宮町 6-17		49
76	柳慶桓	천안 북일고등학교		032) 341-1639	경기 부천 소사구 범박동 33-2 2/7 연립 가-204		78
77	류수열	한양대학교		063) 220-2320	서울시 성북구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부회장	170
78	류재순	(주)미창석유 대표이사		051) 403-6441	부산 영도구 동삼동 201 주식회사 미창석유		228
79	류찬열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02) 820-5905	010) 6566-2881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정보이사	215
80	柳海春	성결대학교 국문과	031) 467-8153	016) 343-32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교 한국학부 국어국문학전공 rhc@sungkyul.edu		58
81	文武鶴	영남일보	053) 757-5113	053) 985-7524	대구 영남일보 논설위원실		56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82	文永午	동덕여자대학교 국문과	(02) 913-2001~5	(02) 391-8063	서울 종로구 홍지동 63-5		19
83	문주석	영남대학교			대구시 동구 방촌동 1113-284 대천빌라 101호		162
84	민병관	부산대학교 국문과		010) 8581-5493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국문과		205
85	朴奎洪	경일대학교	053) 850-7105	053) 792-2033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601번지 시지보성타운 263-903 khpark@bear.kyungil.ac.kr	감사	68
86	朴基豪	신구전문대학 출판학 강사		(02) 782-98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2 은하APT C-903		63
87	朴佶男	한남대학교	042) 629-7311	042) 226-5080	대전시 중구 대사동 계룡APT 2-1501 Yu5080@kornet.net		95
88	朴明姬	전남대학교 국문과 강사	062) 520-6631	061) 393-2095	전남 장성군 영천리 944-12		66
89	박미영	백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41) 550-0511	010) 7448-6511	충남 천안시 안서동 천안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회장	145
90	박상영	대구가톨릭대학 교 국어교육과	053) 850-3114	016) 887-415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로 13-13 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총무이사	201
91	박애경	연세대학교	02) 909-4389	010) 3248-4389	서울 성북구 정릉2동 192-175 vivelavie@hanmail.net		142
92	박연호	충북대학교	043) 261-20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충북대 국문과	지역이사	184
93	박영준	중앙대학교 국문과	02) 820-5905	010) 8389-9091	서울시 도봉구 방학4동 우성1차 아파트 104동 604호	홍보이사	194
94	박영환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010) 8999-9833	서울 중구 필동3가 동국대 중어중문학과		218
95	朴堯順	한남대학교 국문과	042) 672-6410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45-2		34
96	박용찬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053) 950-781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198
97	朴乙洙	순천향대학교 국문학과	041) 542-4755	02) 355-5885	(우) 336-912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156	평의원	4
98	박종수	용인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산 117-6 용인대학교		125
99	朴焌圭	전남대학교 국문과	062) 520-6632	062) 55-5205	광주 북구 중흥동 329-12		61
100	朴喆熙	서강대학교 국문과	02) 715-0141	02) 723-8093	서울 마포구 신수동 1 서강대학교		20
101	박현숙	숙명여자대학교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현대아파트 201동 2303호		172
102	배은희	인천대학교	032) 770-8110	017) 595-1989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정보이사	144
103	白淳哲	대구대학교 국문과			경기 파주시 야동동 산98 대방아파트 107동 401호		109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104	변성환	경북대학교 국문과	(053) 950-5106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
105	변종현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bjhyun@kyungnam.ac.kr		143
106	서영숙	한남대학교	(02) 708-4950	(02) 396-2574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4-2 효동빌라 B동 101호		171
107	徐宗男	성신여자대학교 국문과		(02) 469-3686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 목동신시가지APT 903-401		102
108	성무경	성균관대학교		(032) 505-8137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49
109	成浩榮	인천대학교	(032) 460-3464	(032) 469-2722	인천시 남구 도화동 177번지 인천대 국문과		100
110	손대현	경북대학교 국문과	(053) 950-5106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
111	손영화	전북대학교		(063) 451-2351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종리 875-4		178
112	손오규	제주대학교	(064) 754-3216	(010) 3090-27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1	지역이사	220
113	손찬식	충남대학교 국문과	(042) 821-6501	(042) 863-6302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 국문과		128
114	송원호	고려대학교		(02) 930-7428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133-15 30/1		148
115	송정란	건양대학교			충남 논산시 내동 대학로 119 건양대 건양회관 419호		193
116	宋鍾官	영남대학교		(053) 742-2489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85-11 5/2 chang992@chollian.net		69
117	신경숙	한성대학교 국문과	(02) 760-4014	(010) 3099-4014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국문과 diaz@hansung.ac.kr	윤리위원	130
118	신상성	용인대학교	(031) 417-5258		경기도 안산시 사동 요진APT 205동 204호		124
119	申蓮雨	서울산업대학 문예창작과	(02) 970-6294	(02) 2644-2959	서울시 양천구 목6동 목동APT 613-1904		105
120	辛映明	상지대학교 국문과	(033) 730-0217	(033) 761-0196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편집위원 장	88
121	愼鏞玳	충북대학교 인문대국문과	(043) 261-2029	(043) 262-349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32-4		14
122	신웅순	중부대	(041) 750-6682	(010) 4572-9954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중부대학교 인문학부	윤리위원	153
123	辛恩卿	우석대학교 국문과		(010) 8944-489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지역이사	52
124	신장섭	경민대학교	(031) 828-7143	(010) 4188-7143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562-1		217
125	신현규	중앙대학교		(010) 2299-8892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업무이사	223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126	安東柱	호남대학교 국문과	062) 391-8211	062) 227-2450	광주 동구 용산동 290-6		76
127	안민정	선문대		010- 8880-030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41
128	안영길	성결대학교	031) 467-89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성결대 국문과		183
129	안지영	서강대학교	031) 901-327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백마마을 극동APT 202-702		118
130	吳東春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문예창작	02) 734-5048	02) 2602-4234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61-114 ODC@poet.or.kr	평의원	62
131	吳珉弼	울산 남고등학교	052) 72-7896	052) 73-3016	울산시 남구 신정3동 491-20		41
132	오선주	전북대학교	063) 270-3167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종리 875-4 전북대 국문과		190
133	吳昇姬	동백문화재단 출판 문화국	051) 643-6268	051) 56-8795	부산 금정구 남산동 224-5 7/4		51
134	오영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02) 434-5195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21-16		179
135	吳鍾珏	강동구 상일동 삼일공고	02) 428-0732	031) 577-3975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우성APT 114-1002		77
136	우응순	고려대학교	02) 3290-1960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 국문과		181
137	元容文	한국교원대학교	043) 230-3511	02) 452-6786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1-53	평의원	6
138	유육례	조선대	062) 230-7628	010- 9730-2630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239
139	유지화	서울교대	02)918-3963	010- 5267-3963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19번지 동신아파트 101동 1402호		238
140	尹勝俊	민족문화추진회	02) 389-5563	02) 299-2934	서울 성동구 옥수2동 70 22/4		60
141	尹汝松	호남대학교 국문과	062) 371-8211	062) 371-4196	광주 서구 쌍촌동 96 광명하이츠 101-911		75
142	윤태현	동국대학교	02) 260-3146	02) 442-4838	서울시 강동구 성내1동 미주APT 5-1102		120
143	李格周	경기 미금시 금곡중학교	031) 592-7087	031) 64-1702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 626-2 주공APT 105-104		73
144	이경영	경기대학교	02)390-511 4	011) 603-3174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1	부회장	221
145	이경철	중앙일보	02) 751-5589		고양시 주엽2동 문촌마을 대원APT 1805-301		122
146	이계홍	문화일보	02) 3701-5290	02) 445-0148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APT 114-602		121
147	이노형	울산대학교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 29번지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59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148	이대구	장학사	042) 580-7441	042) 525-9795	대전시 중구 문화1동 279-2 충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dgl@cnoe.or.kr		106
149	李東妍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02) 360-2139	02) 393-2812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동 두산아파트 104동 110호		89
150	이명현	중앙대학교	02) 820-5904	010) 7346-2654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208
151	李敏弘	성균관대 사범대 한문과	02) 760-0114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APT 200-102		43
152	李炳基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063) 220-217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전북대학교		21
153	이병용	중앙대학교	02) 820-5084	02) 423-670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43-33 태종아트빌 B동 302호		189
154	李丙疇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02) 267-3131	02) 392-0916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22		24
155	李相寶	국민대학교 국문과	02) 914-3141~5	02) 286-8774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186-1 미성맨션 5-1002		18
156	이상원	조선대학교	062)230-65 60	062) 653-2855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57
157	이수곤	서강대학교	02) 242-9022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56-19		114
158	이순희	경북대학교		010) 8218-5253	우)702-726 대구 북구 구암동 화성그랜드파크 305동 902호		236
159	이승남	동국대학교	02) 260-3146	02) 834-24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APT 15동 1702호		119
160	李承敦	대원고등학교	02) 447-9352	02) 424-7536	서울 송파구 잠실3동 주공APT 452-105		13
161	李英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02) 300-1469	02) 307-7484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218 영지출판사/ H.P. 019-306-7484 Lyji@korea.com		8
162	이영태	인하대학교	032) 860-8717	011) 264-9472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88
163	이완형	배재대학교		010) 4467-2779	대전시 서구 연자1길 14번지 배재대학교 국문과		206
164	이완희	중앙대학교	02) 6247-5321	011) 9968-2845	서울 서초구 반포1동 30-20 삼호가든4차아파트 나-903		226
165	이은성	성균관대학교	02) 744-8447	011) 9917-8447	서울시 중구 동숭동 50-36번지 202호		191
166	李壬壽	동국대학교 국문과(경주)	054) 770-2120	054) 743-4380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 경주캠퍼스 lis@dongguk.ac.kr		33
167	이정선	한양대학교		02) 395-1418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동진빌라 2동 102호		173
168	이정옥	위덕대학교		054) 760-1692	경북 경주시 위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68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169	李鍾建	수원대학교	(031) 220-2389	(02) 2602-4615	서울 강서구 화곡1동 424-6 43/4 017-255-4615 jglee43@chollian.net		48
170	李鍾出	중부대학교	(041) 750-6782	(02) 581-1690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46-1 현대APT 10동 505호	평의원	15
171	李眞姈	인천대학교		(031) 203-7235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55-1 황골 주공APT 148-403		101
172	李濼旭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820-5086	(017) 295-2734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03-5 lcwchungang@hanmail.net	평의원	85
173	李昌植	세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267-813 1 교)3132	(02) 591-0323	충북 제천시 신월동 산 21-1 세명대학교		45
174	李昌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	(062) 520-6631	(062) 529-2124	광주 북구 중흥1동 716-25		65
175	李採榮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10) 2362-8822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지역이사	211
176	이충희	麗水港 導船士		(010) 8207-1409	전남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 461-13		235
177	이태희	인천대학교	(032) 770-8646	(019) 375-5627	인천시 남구 도화동 177 인천대 국문과	지역이사	192
178	이택동	카톨릭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135
179	이현자	경희대학교			양천구 신정6동 목동 아파트 1405-403		129
180	이형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3290-2491	(010) 6275-5070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leehd@korea.ac.kr	지역이사	141
181	이홍식	한양대		(010- 7587-7703	서울시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섭외이사	240
182	李和炯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031) 201-2270	(041) 632-6227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경희대학교 외국어학부 한국어학과	윤리위원	90
183	林基中	동국대학교	(02) 260-3054	(02) 543-54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20-1203		22
184	임미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063) 270-3736	(010) 3895-7202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234
185	임유경				미국		136
186	林鍾贊	부산대학교 국문과	(051) 512-0311	(051) 755-4602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01-43 금정빌라 501호	평의원	37
187	임주탁	부산대학교	(051) 510-2601	(011) 9509-4168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지역이사	232
188	林憲道	공주사범대학교	(041) 850-5114	(041) 852-3938	충남 공주시 중학동 173-1		10
189	장성진	창원대학교		(055) 279-7207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75
190	장정수	고려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58
191	全圭泰	전주대학교 국문학과			서울 마포구 상수동 86-32		9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192	全元範	광주교육대학 국어교육과	062) 520-4020~ 1	062) 262-4816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107
193	전재강	안동대학교	054) 820-5358	011) 9597-7622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윤리위원	151
194	全駿杰	동국대학교	02) 260-3114	02) 802-2296	서울 금천구 시흥5동 253-5		55
195	鄭圻喆	한남대학교	042) 629-7800	010) 2408-8253	대전시 서구 도마2동 대아APT 106-902		96
196	정영신	명지대학교 (사진작가)	02) 375-8926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277-12 H.P. 017-256-8926		116
197	정우락	영산대학교			경남 양산시 영산대학교 교양학부 국문학전공		169
198	鄭在鎬	고려대학교 국문과	02) 94-4381~9	02) 92-2708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48-17		23
199	정종진	서강대학교	02) 635-4505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3가 한양APT 3-804		115
200	曺圭益	숭실대학교 국문과	02) 820-0326	02) 533-8442	서울 동작구 사당2동 105번지 우성아파트 302-1103호 kicho@saint.soongsil.ac.kr		59
201	조명숙	명지대학교 (시인)	02) 3151-0622		서울시 은평구 응암4동 263-171호		117
202	趙完鎬	도서출판 혜진서과 대표	02) 324-7313	02) 483-0719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APT 413-701		86
203	조유영	경북대학교		010 3293-3069	대구시 경북대학교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212
204	조태성	전남대학교 국문과	062) 530-3130	010) 2614-383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편집위원	202
205	조태흠	부산대학교	051) 510-2082	010) 2202-2082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6
206	조평환	건국대학교	043) 840-3322	011) 9919-9693	충북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		230
207	조희경	성결대학교	031) 467-8922	019) 354-058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성결대 국문과		182
208	周康植	부산교육대학교	051) 500-7215	051) 528-6894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현대APT 502-105		38
209	陳載植	단국대학교 (천안)	041) 550-3252	041) 573-7080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1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범대 교학과		98
210	車周源	광문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02) 426-6642	02) 442-6669	서울 강동구 상일동 주공APT 331-206		91
211	차혜원	강남대학교	031) 2803-871	011-295-6 479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6-2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부		134
212	崔 喆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02) 392-0131	02) 923-8748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25
213	최 웅	강원대학교	033) 250-8122	011) 365-9083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교		229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214	崔康賢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02) 880-7662	(02) 584-7423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27
215	최규수	명지대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대림APT 201-101 choi63@dreamwiz.com		140
216	崔東國	인천대학교 국문과	(032) 770-8116	(032) 505-7878	인천 북평구 산곡동 142-3 경남APT 106-1007	평의원	16
217	崔英姬			(02) 545-0951	서울 강남구 삼성2동 해청APT 나-505		103
218	최용수	경상대학교		(055) 751-5843	경남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74
219	최은숙	경북대학교	(053) 850-7763	(053) 383-1180	대구시 북구 복현동 서한타운 106동 903호 olive7007@daum.net	국제이사	138
220	崔載南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47
221	최재선	한국산업기술대	(031) 496-834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번지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		197
222	최철호	경북대학교		(053) 761-7326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613번지 신세계아파트 3동 305호		155
223	최한선	전남도립대학	(061) 380-8531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산 262전남도립대학 문화예술학부		233
224	최호석	부경대학교	(051) 629-5418	(010) 2485-6033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1
225	최홍렬	중앙대학교		(010) 6390-361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3-5	업무이사	187
226	韓昌勳	전북대학교 국교과	(063) 270-2714	(02) 917-869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assi431@hanmail.net		110
227	韓春燮		(031) 741-0489	(031) 749-133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신흥주공APT 106-304		2
228	함복희	강원대학교	(02) 954-2891		서울시 도봉구 방학2동 662-10		113
229	허만욱	남서울대학교		(011) 9789-4287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43번지 삼성래미안2차Ⓐ 104동1001호		196
230	許米子	성신여자대학교	(02) 714-1076	(02) 3272-2797	서울 마포구 신수동 93-51 신촌 삼익APT 103-1803		29
231	허영진	중앙대학교 국문과		(010) 9999-0890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5
232	許旺旭	충남 연기 조치원중학교	(041) 863-0773	(041) 866-91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주공 연립 6-305		108
233	洪元基			(02) 535-1989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885 한신상가APT B-402		67
234	黃淳九	동국대학교 한문학과	(010) 6397-2018	(031) 829-4277	서울 서대문구 홍계동 455 현대그린아파트 102-909	평의원	3
235	황인환	고려대학교	(011- 287-0115	(02) 897-8103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925-3 금진청송빌라 다동403호		177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번호
			직장	자택			
236	황재국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033) 250-6640	(02) 900-3983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0-1 현대빌라 2-302		127
237	黃忠基	중경고교	(02) 793-2540	(031) 712-8940	(우) 121-764 서울 마포구 대흥동 태영APT 113-1402		44
238	김태웅	성균관대		010) 3928-043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행복마을아파트 113동 304호		238
239	박지애	경북대		010) 8011-9804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소		239

한국시조학회 단체회원 주소록

순번	단체명	전화	주 소
1	동국대학교 도서관	(02)2260-3452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2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02)94-4381~9 교)488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3	단국대학교 중앙도서관	(031)8005-2359	448-70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4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031)612-9711~2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래구 역곡2동 산 43-1
5	세종대학교 도서관	(02)3408-3072	143-747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
6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02)713-9391~7 교)414	140-742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7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02)2290-1374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8	한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42)629-7689	306-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9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053)850-3264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10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조치원도서관	041)2-4180~4190 교)300	339-7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808
11	순천향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41)530-1106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산 53-1
12	중앙대학교 도서관	(02)829-5031~7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13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063)850-5445, 6114, 7114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14	성신여자 대학교 중앙도서관	(02)920-7318	136-742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15	경상대학교 도서관	(055)751-5115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16	충남대학교 부속도서관	042)822-6320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17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02)902-9151 교)252	132-030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
18	신라대학교 도서관	(051)999-5000	617-736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산 1-1
19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052)73-6101	680-749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 29
20	동덕여자대학교 도서관	(02)940-4214	136-714 서울 성북구 월곡동 23-1
21	부경대학교 도서관	(051)620-6998	608-737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22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02)760-1181	110-745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23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도서관	(031)400-5114	425-791 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

순번	단체명	전화	주 소
24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043)53-9165 교)3359	363-840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1호
25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02)362-6161 교)649	120-75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26	경북대학교 도서관	053)955-5001 교)3039, 3021	702-701 대구 북구 대학로80(산격동) 경북대학교 도서관 연속간행물실
27	동아대학교 중앙도서관	051)200-6342~3	604-714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840
28	서울대학교 도서관	02)886-0101 교)3705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29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063)80-2191~9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30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02)970-5030	151-742 서울 노원구 공릉2동 126
31	국회도서관	02)788-4211	150-703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 국회도서관 협력과
32	성결대학교 도서관	031)467-8284	430-7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산147-2
33	국립중앙도서관	02)535-4142	137-702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34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	032)770-8082	402-749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7번지 인천대학교
35	대진대학교 도서관	031)539-1114	487-711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도서관
36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53)810-1675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37	창원대학교 중앙도서관	055)279-7810	641-773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소나무5길 65
38	경주대학교 중앙도서관	054)770-5052	780-712 경북 경주시 효현동 산42-1번지
39	백석대학교 도서관	02)336-0267	121-837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4-4 백석대학교 도서관(예광북스)
40	경희대학교 도서관	031)201-3217, 3222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참고열람과

제16대 임원명단

평 의 원 : 김동준(동국대 명예교수) 황순구(동국대명예교수)
박을수(순천향대명예교수) 원용문(교원대명예교수)
김상선(중앙대명예교수) 이종출(중부대명예교수)
최동국(인천대명예교수) 임종찬(부산대 명예교수)
이찬욱(중앙대) 오동춘(연세대)

회 장 : 김상진(한양대)
부 회 장 : 박미영(백석대) 류수열(한양대) 이경영(경기대)
총무이사 : 김성문(중앙대) 박상영(대가대)
기획이사 : 안영훈(경희대) 박수밀(한양대)
편집이사 : 김용기(대림대) 김명준(한림대)
연구이사 : 남동걸(인천대) 김지은(남서울대)
정보이사 : 류찬열(중앙대) 배은희(인천대)
섭외이사 : 강관진(중앙대) 이홍식(성결대)
국제이사 : 김창원(경기대) 최은숙(부산외대) 김진희(아주대)
업무이사 : 최홍렬(경민대) 신현규(중앙대)
홍보이사 : 김정민(경희대) 박영준(중앙대)

편집위원 : 신영명(위원장, 상지대)
김명준(한림대) 김용기(대림대) 김성문(중앙대)
박상영(대가대) 조태성(전남대)

윤리위원 : 이찬욱(위원장, 중앙대)
신경숙(한성대) 전재강(안동대) 이화형(경희대) 강구율(동양대)
신웅순(중부대)

지역이사 : 서울지역 – 이형대(고려대)
경기인천 – 이태희(인천대)
대구경북 – 이채영(대구대)
부산경남 – 임주탁(부산대)
강원지역 – 강명혜(강원대)
충북지역 – 박연호(충북대)
충남대전 – 구사회(선문대)
전북지역 – 신은경(우석대)
전남광주 – 김신중(전남대)
제주지역 – 손오규(제주대)

감 사 : 박규홍(경일대) 신영명(상지대)

	입회비	1년 회비	특별회비	입금은행 (예금주)
일반회원	30,000원	30,000원	1,000,000원 이상	(한국시조학회 김성문) 우리은행 1002-055-613567
기관회원	50,000원	50,000원	1,000,000원	

〈논문투고일 안내〉

상반기 5월 31일까지 논문 투고 마감

하반기 11월 30일까지 논문 투고 마감

논문 게재 횟수는 회원 당 연 1회로 제한 (연속 게재 불가)

논문 투고 홈페이지(http://www.koreasijo.net) 온라인 논문 투고란
메일(sijomunhak-@naver.com)

時調學論叢　第46輯

2017년 1월 31일　인쇄
2017년 1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상진
발행처　韓國時調學會

인쇄・보급처　도서출판 책사랑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7-1 201호
전화 : (02)929-4547 팩스 : (02)929-4548
E-mail : idid-yeol@hanmail.net
등록 : 제7-850호

ISSN 1226-2838　　정가 15,000원